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

나눔을 채우다



CONTENTS

- 004**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소개
 - 005**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개요
 - 006**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현황
 - 008**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전체일정
 - 010**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발대식
-

- 012** 네팔 파견활동
 - 038** 에티오피아 파견활동
 - 064** 중국 파견활동
 - 090** 캄보디아 파견활동
 - 116** 케냐 파견활동
-

- 144**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2기 단원들에게
- 146** 인솔자가 보내는 편지
- 150** 아산나눔재단 소개



청년이여!
도전하라!

Go 4 it!



글로벌리더로서 발돋움하는 청년을 양성하라

아산나눔재단은 청년 해외봉사단 1기를 선발하여 네팔, 에티오피아, 중국, 캄보디아, 케냐에 파견되어 봉사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00명의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청년들이 한 손에는 도전을 또 다른 한 손에는 온정을 담아 저개발국 현지에서 나눔을 실천하고 왔습니다. 이 시대를 뛰어넘는 청년들에게 또 다른 세상에 대한 이해와 나눔이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의 원동력이 될 거라는 신념을 심어주기 위해 아산나눔재단의 청년들의 장도를 지원합니다. 청년정신의 기치를 내걸고 선발된 청년 해외봉사단원들은 더욱 더 많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정성스럽게 준비, 계획하여 파견활동을 하는 현지에서 약 2주동안 성실히 완수하고 돌아왔습니다. 단원들이 각자의 마음에 품은 패기와 기상을 몸소 실천하는 노력봉사와 현지인들에게 또 다른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문화교류활동,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배우며 깨우쳐 주는 교육봉사를 전개하였습니다. 나눔이 곧 또 다른 책임임을 자각하고 돌아온 단원들의 사상과 시야는 세계 공민으로서 이미 좀 더 넓은 세계로 향해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산나눔재단의 청년 해외봉사단의 활동이 계속되어 대한민국의 청년정신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청년들의 아름다운 활약을 기대해주시십시오. 감사합니다.



청년 해외봉사단 참가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20~30세의 남, 녀 청년

청년 해외봉사단의 취지

- 대한민국 청년에게 세계 공민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저개발국 지원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



청년 해외봉사단 목적

- 글로벌 리더십 함양
- 수혜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현지 주민과의 교류
- 문화탐방을 통한 참가자 시민의식 함양



청년 해외봉사단의 활동

- 저개발국 아동교육 환경개선
- 학습지원
- 문화교류

청년 해외봉사단의 진행방식

- 모집 공고 → 지원자 접수 → 단원 선발
→ 합숙 교육 및 발대식 → 파견 활동 → 해단식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사업현황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회장님의 서거 10주기를 맞아 정몽준 의원님을 비롯한 가족분들과 관련 기업이 총 5천억원을 출연하여 지난해 10월 7일 설립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그동안 청년창업지원을 위한 정주영 창업캠퍼스 설립, 글로벌 리더 양성을 위한 해외인턴 파견 사업, NGO아카데미를 통한 청년 NGO 지도자 양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청년 해외봉사단 파견 사업은 우리 청년들에게 세계 공민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개발국 지원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 100명을 시작으로 매년 500명 규모의 자원봉사단을 아프리카, 동남아 등의 저개발국에 파견하여 현지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지난 1월 4일부터 시작된 봉사단원 모집에 총 3,495명이 지원을 하였고, 이중 서류심사를 통해 선별된 200명이 1월 19일 실시된 면접에 참가하여, 최종적으로 100명의 제 1기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원이 선발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부터 2박 3일간 도봉숲속마을에서 실시된 합숙 교육을 무사히 마친 단원들은 발대식 후에 2주동안 파견국가별로 팀별 준비활동을 가지고, 2월 13일 케냐, 에티오피아, 네팔, 중국 등 5개국에 파견되어 2주일간의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습니다.

3월 17일 서울에서 해단식을 가지고 전체적인 봉사단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제1기 봉사단의 활동평가 및 보상을 거쳐 여름방학기간인 7~8월 중에 집중적으로 해외봉사단을 추가로 파견할 계획입니다.

또한, UN과 협력하여 UN 자원봉사 프로그램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파견하게 될 청년 해외봉사단은 '아산나눔재단 자원봉사단'에서 시행하는 국내 자원봉사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봉사단원을 중심으로 선발하여 국내에서의 봉사활동과 해외봉사단 파견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Nepal



Ethiopia



China



Cambodia



Kenya

1 JAN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서류합격발표



면접 전형

합격자 발표

합숙교육

발대식

2 FEBRUARY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봉사단 파견



3 MARCH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해단식



● 청년들에게 설렘으로..

청년이란 말이 너무나 어울리는 푸르름을 닮은 청년들이 마음을 졸이며 대기실에서 자신의 면접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5:1 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모인 그들의 목과 가슴에는 개성이 툭툭 튀는 명찰들이 하나씩 걸려있습니다. 명찰에 모조 마이크를 달고 온 청년, 종이로 천사의 날개를 붙이고 온 청년, 씨앗 하나를 붙이고 온 청년 등등 그 모두가 자신의 개성과 혼을 담아 면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초반, 대기실 분위기는 공기마저 엄숙했는데 차차 시간이 갈수록 청년들은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의지를 한껏 표현하겠다는 마음을 모아 구호와 율동을 포함한 인사를 준비하며 활력이 넘치는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숙함에서 생동감으로, 無에서 有로, 다채로운 면모들을 청년들에게 조금씩 발견하는 순간! “아, 이것이 청년이요, 청춘이구나!” 하고 웃음짓게 되었습니다.

영광된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 ‘아자봉’ 단원에 대한 설렘과 의구심은 하나의 또 다른 기대감을 선사할 것이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 청년이 두근거림으로..

서류합격의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면접에 대한 걱정과 기대로 밤새 뒤척였던 기억이 납니다. 면접 당일이 되어 면접장소인 정주영 창업센터로 가는 내내 “떨지 말고 잘해야지, 잘해야지” 수없이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도착하니 지방 곳곳에서 올라온 분들과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해외봉사를 위해 전주, 부산 등 먼 곳에서 이곳까지 열정을 가지고 올라왔다는데 예비단원들을 보며 감명 받았습니다. 면접순서를 기다리며 어떤 질문을 하실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면접장은 적막이 흘렀고 막상 질문이 시작되었을 때에는 어떻게 답변하는지도 모른 채 대답을 했습니다. 나중에야 정신을 차려보니 이미 막바지 질문이었습니다. 다행이도 기회가 주어져 해외단기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 속 말들을 모두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엔 같은 조 친구들이 너무 잘한 탓에 떨어졌다 생각하며 더 잘 볼걸 하며 후회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의 기대는 있었기에 며칠이 지나 합격 메일을 받았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망을 나누기 위한 출발

● 2012년 1월 24일

도봉 숲속마을에서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모두 함께 높은 경쟁률의 서류심사와 면접을 뚫고, 이틀간의 합숙 끝에 나라를 배정 받았습니다. 그동안 준비해 온 우리 100명은 각각 배정받은 나라에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에는 춤을 잘 추는 사람도,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도,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도 그리고 체력에 기대감과 성실함을 더해 가지고 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는 각 나라에서 펼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네팔, 케냐,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중국 이렇게 각각의 나라로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천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나라 배정 후 하루만이라도 색함이 들었지만 앞으로의 함께할 시간을 생각하며 같이 섰습니다. 모두 같은 푸른색 조끼를 입고 아산나눔재단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함께 자리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몽준 명예이사장님을 비롯한 정진홍 이사장님 등, 프로그램을 진행시켜 주신 많은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공직자 부모님들도 함께 참석하셔서 손수 노란 손수건을 메어 주시며 좋은 활동을 빌어 주셨습니다.

발대식을 마치고,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 100명은 봉사프로그램 계획을 위해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준비는 파견국 실정에 맞춘 교육프로그램, 노력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에 따른 물품과 자료를 준비하고 때로는 늦은 시간까지 회의와 토론을 거듭하며 서로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내며 같은 배를 탄 동료로 점점 더 성숙해져 감을 느꼈습니다.

봉사단의
뜨거운
마음을
공유하여
사람을
향할
것임을!

이제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는 우연이
아닌 노력을 통해
만들어지는 우리를
보여주고자 합니다.
단순한 봉사활동이
아닌 마음의 나눔을
펼쳐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Nepal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일정표

0213 1일차	출국 / 네팔도착
0214 2일차	활동학교 소개 / 기관 오리엔테이션 / 텃초지역 이동 / 학교도착 / 환영식 교육봉사 · 선생님 소개 및 학생 자기소개 · 명찰만들기
0215 3일차	노력봉사 · 화장실 청소 · 화장실 주위 외벽정리 · 학교내 방충망설치 · 화장실 문 수리 · 화장실 화단정리
0216 4일차	노력봉사 · 화장실 벽화 · 화장실 문 수리 · 화장실 화단정리 · 놀이터 정돈 교육봉사 · 비즈만들기 · 공책만들기 및 표지 꾸미기
0217 5일차	노력봉사 · 화장실 벽화 · 화장실 문 수리 · 화장실 화단정리 · 학교 청소 문화봉사 · 등교 전 학교 앞 쓰레기 줍기 · 행사 준비 · 쓰레기 줍기 캠페인 교육봉사 · 체육수업 · 과학수업(볼룬로켓, 에어로켓 등) · 철교수업(class1~5) · 지점토수업(유치부)
0218 6일차	문화봉사 · 행사(연극참여 및 공연) · 한국음식(떡볶이, 잡채) 대접
0219 7일차	노력봉사 · 화장실 화단정리 · 화장실 문 수리 · 화장실 벽화 · 학교 내외벽 정리 및 페인트칠 · 유치부 교실 개선
0220 8일차	노력봉사 · 화장실 화단정리 · 화장실 문 수리 · 화장실 벽화 · 학교 내외벽 페인트칠 · 유치부 교실 개선 · 학교 철문 페인트칠 문화봉사 · 양초 만들기
0221 9일차	문화봉사 · 양초 만들기 노력봉사 · 화장실 벽화 · 화장실 화단정리 · 화장실 문 수리 교육봉사 · 만국기 그리기 · 선생님 얼굴 그리고 편지쓰기 수업 · 고학년 수업(교실꾸미기, 한국과 네팔소개)
0222 10일차	교육봉사 · 미니올림픽 · 위생교육 Farewell 진행
0223 11일차	문화탐방 / 네팔출국
0224 12일차	한국도착

사전모임 및 봉사활동 내용



네팔꿈치들의 첫 만남 + 1월 26일 오후. 도봉숲속마을에서 발대식을 시작으로 합숙교육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저녁시간. 처음으로 인솔자 선생님, 팀원들과 조금은 어색한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바로 있을 상황을 준비하면서 우리는 급속도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회의, 회의 그리고 회의 + 합숙교육이 끝나고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태원 카페에서의 오프라인 회의, 집에 돌아와서는 온라인 회의. 아이디어를 짜내고, 비용을 조사해보고, 시물레이션을 해보고 그리고 다시 뒤엎고를 수십 번 반복했습니다. 현지 사정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출국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네팔 아이들에게 좀 더 나은 것을 해주기 위해 회의는 줄곧 새벽까지 이어지곤 하였습니다.

술 한잔 먹지 않은 MT + 2월 3일부터 4일까지 홍대부근 게스트하우스에서 MT를 가졌습니다. 2시에 만나 약 10시간에 가깝게 최종 회의를 진행한 결과 철교수업, 울동수업, 'Oh Happy Day' 노래수업, 명찰 만들기, 위생교육, 합창수업, 색종이 접기, 공책 만들기, 팔찌 만들기, 짝꿍얼굴그리기, 양초 만들기, 만국기 만들기, 체육수업, 미니올림픽, 쓰레기줍기 캠페인, 미술공연, 페인트작업, 벽화 작업, 화장실 문 만들기가 결정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바로 현지에서 공연 할 "바위처럼", "더위 먹은 갈매기"의 안무연습, 그리고 무술팀의 무술공연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공연 연습을 하다 보니 어느새 새벽 6시가 다 되었고 모두 결국 같이 술 한잔 먹지 못한 채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잊지 못할 MT였습니다.

물품구매와 물품패킹 + 각 팀 별로 인터넷,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을 돌며 필요한 물품들을 구매하였고 개인적으로 친구, 지인들로부터 조금씩 후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물품들을 1차적으로 2월 8일 패킹하였습니다. 출국까지는 5일 남았지만 혹시 모를 추가 물품에 대비해 미리 실시한 것입니다. 또한 현지에서의 시간을 최대한 벌기 위해 만들어 놓아야 할 것들은 미리미리 만들어서 패킹하였습니다.

2월 10일 최종 모임 + 2월 10일 면접을 실시했던 '정주영 창업캠퍼스'에서 최종 팀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위처럼', '더위먹은 갈매기', '무술공연을 연습하고 리허설 한 후 미비된 물품들을 구매하여 패킹을 최종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팔팀 대표 프로그램

화장실 개보수, 환경정리



꿈과 희망이 넘치는 화장실

학교의 화장실을 처음 마주했을 때 든 생각은 “나 같아도 화장실 안 가겠다.”였습니다. 학교의 제일 구석진 곳, 입구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강렬한 향기, 아이들의 무관심에 버려진 화장실은 엄청난 숙제를 받은 듯 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장실 치우기부터 시작한 작업. 첫 날 만은 오랜 시간 치우지 않은 ‘변’들 최하의 카스트 계급 이 한다는 일을 외국인이 한다는 사실이 신기한지 아이들이 계속 와서 고개를 빼꼼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벽화를 통해서 산뜻하고, 가고 싶은 화장실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싶은 그림은 많았는데,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색상과 양이 한정적이어서 조금 아까웠습니다. 전체 벽면을 하얗게 칠하고 나서야 큰 도화지를 받아든 느낌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들은 뭘까. 어떤 배경으로 해야 더 밝아질까 고민을 하는 것. 이 자체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벽화 작업이 시작되면서 더 많은 아이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고, “요게호?(이게 뭐예요?)”를 연발하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 무엇보다 바뀌어가는 화장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에 더욱 더 작업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팀원 모두가 달라붙어 내가 그린 스케치에 색을 넣고 그림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명이 할 때와 스무 명과 인솔자 선생님까지 스물한 명이 모두 함께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은 ‘웃음’이었습니다. 웃음과 노래가 곁들여진 작업현장은 팀원들 간의 **결속도 강하게 만들었고 피곤함도 사라지게 해주었습니다.** 작업이 마무리된 후 ‘베스트 벽화’라는 최고의 칭찬을 들어 만족감은 배가 되었습니다. ‘제일 예쁜’ 화장실에서 farewell을 해야 한다는 팀원들의 말이 나올 정도로 가장 많이 보이는 벽화를 만들어 낼 수 있어 행복하고 즐거웠던 벽화작업이었습니다.



낮선 ‘네’팔이 ‘내’팔이 되기까지

정미정

“ **낮선 곳으로의 첫발걸음** 늦은 밤, नेपाल공항에 떨어졌을 때 어리바리하게 가방을 짊어진 채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불빛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길거리. 숙소 인근에 자리한 낮선 모습의 신전들.

아, 이곳이 नेपाल이구나.

설레는 첫만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가슴 따뜻해지는 환영을 받았습니다. 첫수업. 준비했던 नेपाल어와 수업내용들은 긴장한 탓인지 도무지 기억도 나질 않았습니다. 온통 긴장속에 수업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하루하루 지날수록 아이들과의 수업도 점점 능숙해지고, 전전공공하던 नेपाल어에 대한 부담도 픽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नेपाल어 실력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어느 샌가 눈만 마주쳐도 배시시 웃음을 피우던 아이들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마음으로 이별하기 오지 않길 바라던 이별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선물해준 머리핀을 꼭고 멍하게 서 있는데, 낯익은 아이가 어설픈 발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와 품에 매달렸습니다. **겨우 일주일 남짓 본 저를 위해 울어줍니다.** 어느덧 주변에는 익숙한 얼굴의 아이들이 서성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몰라 어색하게 웃고만 있는데, 가슴 속에서 무언가 피어오르는 기분입니다.

”





마음 속 울림의 시작. 네팔

오지은

“ **10일간의 감동** 네팔에서의 많은 활동들중에서도 아이들과 함께했던 시간은 지금도 코끝을 찡하게 만들어 줍니다. 외국인을 신기하게 보는 아이들. 아이들은 쉬는시간마다 우리가 있는 장소의 창문틈으로, 문틈새로 빼꼼히 쳐다보며 우리와 인사하고 눈을 마주치고 웃어주었습니다. 점차 아이들과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됨을 느꼈습니다.

아이가 점심시간에 자기가 먹던 빵을 입안에 넣어주고, 예쁜 꽃과 그림을 만들고 그러서 언제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함박웃음을 지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제 손을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고 손이 두 개라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처음엔 웃고 즐기면서 보았지만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다가온다는 마음에 맘껏 웃지 못했습니다. 버스에 올라타려는 순간 아이들이 한명씩 안아주며 불에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받았던 네팔에서의 가장 크고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훗날 한국에서 봉사하러 온 대학생들을 기억할는지 모르겠지만, **그 맑고 순수하던 아이들의 눈동자는 제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에 점점 더 무뎠지고 벽을 쌓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네팔에서의 10일 동안 아이들에게 준 사랑보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것이 사랑이구나, 사랑을 주고 받으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팔꿈치의 활동은 이제 끝난 것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소중한 인연과 소중한 깨달음, 이 감정의 여운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간직하고 기억하려 합니다. 제 마음속 울림의 시작인 네팔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



네팔 이야기

신민수

진정한 행복에 대해 가르쳐 준 나라 네팔

정주랑

“ **사람과 함께하는 것, 사랑을 배우다** 봉사활동이 끝났을 때는 뿌듯함보다는 섭섭함이 더 컸습니다. 활동지역에서 마지막 날 네팔꿈치 단원들이 활동했던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와 같은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이 처음이기에, 헤어진다는 것을 몰라서 우리가 헤어질 때 슬프게 울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인술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울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준 사랑이 생각나서, **그 사랑이 정말 고마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너무 없어서 눈물이 절로 났습니다.**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봉사활동이라는 목적이래,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환경 등 물질적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정말 사람자체만을 바라보며 소통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사람과 사람사이의 교류를 할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난하다고 해서 재능과 삶의 수준이 낮은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드러나는 마음씀씀이나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부하지 않더라도 사람을 향해 마음으로 소통하는 그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행복을 알게 해준 버그마티**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진행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우연한 기회로 네팔의 버그마티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버그마티는 카트만두 시내 중심을 흐르는 강인데, 빈민들이 모여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가는 중에 들은 바로는 그곳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열악한 환경을 보게 될 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금 내가 봉사활동을 하는 곳 또한 열악한데 그곳보다 열악해 봤자 얼마나 열악할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며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쓰레기가 뒤덮인 강과 쓰레기로 만든 집을 보면서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탕 하나에도 행복한 미소를 짓는 아이들의 모습과 업어주고 포옹해 주는 것에도 행복해하던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한국에서 항상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나의 태도를 반성하며 행복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닌 내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을 감사히 하는 마음에서부터 행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



네팔, 너의 눈동자를 기억하며

한준구



“ 세상에서 가장 슬픈 see you 내가 맡았던 Class 3의 아이들 얼굴이 한 명씩 스칩니다. 아데스, 수바스, 수라, 샤로즈, 데비까..... 그 중에서도 렉스먼이란 아이와 마지막에 주고받은 대화는 가슴이 찡했던 만큼 아직도 생생합니다. 활발하고 에너지가 넘쳤던 렉스먼은 학교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자 표정이 다른 날과는 다르게 어두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이 학교에 오지 못한다고 작별을 고하면서 ‘goodbye’ 인사를 전하자, 큰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며 나중에 꼭 네팔에 다시 와달라고 했습니다. 네팔에 다시 올지 말지 확언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옅은 미소로 답변을 대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물어보는 렉스먼. 저는 머리를 굴려서, ‘네가 나중에 커서 한국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아이는 한숨을 푹 내쉬 뒤 웃으며, ‘나에게는 엄마와 누나, 형 그리고 동생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어려운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이로 고작 열 살, 가족이나 타인보다는 자신이 내키는 대로 자유분방하게 즐기고, 웃고, 티 없이 맑아야 할 그 나이에 렉스먼은 가족이라는 무게를 등에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는 그 순간, ‘알겠어. 내가 꼭 나중에 네팔에 다시 올게’라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 렉스먼은 학교 문밖을 나서는 순간까지, 숙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설 때까지 큰 목소리로 ‘see you’를 외쳐왔습니다. 나는 렉스먼에게 see you를 할 수 없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다시 볼 수 있을까? 그랬으면 좋겠지만, 앞으로 사회인이 되어 한국에서 치열한 생활을 하다보면 과연 네팔에 다시 갈 수 있을까? 렉스먼이 나에게 준 마지막 말 see you, 세상에서 가장 슬픈 see you였습니다. 눈물이 왈칵 나는 것을 꼭 참다 숙소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네팔을 보며 한참 동안 울어야 했습니다. 눈물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

단합 최고의 네팔꿈치

김경욱

“

도봉산 합숙에서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 네팔꿈치의 최고의 자랑은 단합!
짧은 기간이라는 점이 있지만 각기 다른 성격의 21명이 함께하여 서로 만나고 대화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다툼이라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에게 전혀 문제란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론 네팔에서도 성별, 나이 상관없이 서로서로 힘든 일을 도우며 즐거운 봉사활동이 되었습니다. 나는 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 협동, 단합이 우리 팀에게 최고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로 인한 득과 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나는 하나를 잃고 수 없이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먼저 잃은 것은 나의 장. 현지에서 현지에 계신 초록간사님의 가족분들과 카트만두 최고의 요리사님 덕분에 즐거운 식사를 가질 수 있었지만 한국에 돌아와 장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나는 네팔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얻은 것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수많은 얻은 것들 중에서 가장 감사하고 소중히 간직하고 싶은 것은 사람으로부터 얻은 감동입니다. 네팔에서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순수하고 정이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접어주는 꽃, **떨어진 우리 팀의 물건을 주워주는 아이의 작은 손, 너머스페~하고 인사하는 해맑은 아이들의 표정**, 네팔음식을 맛있게 먹는 우리들을 바라봐주시는 초록간사님의 어머니, 학교에서의 활동에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떠나는 우리를 위해 눈물을 보인 아이들과 같이 네팔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감동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네팔꿈치 21명으로부터 얻은 감동이었습니다. 더 의미있고 즐거운 네팔봉사활동이 되도록 인솔해주신 박세라 선생님부터 어리지만 항상 모든 일에 열심히 한 막내들(주미, 혜윤, 소영, 은정)까지 이 사람들에게 받은 감동과 즐거움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지 항상 옆에서 도와주고 즐겁게 해주는 이러한 팀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삼질을 하고 돌을 나르고 해도 힘들어하고 무기력해 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고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 이번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보물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봉사라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가 이 만큼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들이 나의 노력을 알아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내가 네팔아이들의 눈물 한방울에서 많은 것을 느꼈던 것처럼 네팔아이들도 우리의 땀 한방울에서 조금이라도 무엇인가를 느꼈으면 합니다. 즉, 네팔꿈치와 네팔아이들 모두에게 보여주시기식 봉사활동이 아닌 서로가 무언가를 느끼고 배울 수 있었던 봉사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너머스페~

”



“

10박 12일간의 그 마지막... 한국음식도, 가족도 그리워지기도 했지만 시간이 흘러가는게 눈에 보였습니다.

밤에 옥상하늘에서 보던 별을 몇 번 더 보면 네팔에서의 생활이 끝나는지 알아가고 느끼게 됨에 따라 아쉬움이 점점 커졌습니다.

학교 교문을 열자마자 달려와주던 아이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는 버스안에 있을때도 마지막까지 손을 주던 아이들을 최대한 잊지않으려 머릿속에 이 순간을 영원히 남기려고 많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흘러간 마지막날 아침부터 버스안은 울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farewell 축제라는 이름하에 한국에서부터 열심히 준비한 우리의 공연도 보여주고 네팔의 문화도 몸으로 직접 겪으며, 운동회로의 스킨십을 기억하며 마음속으로 이 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손으로는 아이들의 손을 꼭 잡으면 보냈던 일곱시간 남짓이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원하는대로 일이 풀리지 않았을때도 많고 지쳐있을때도 많았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글을 쓰며 그 때를 기억하면 정말 내생에 제일 행복했고 조건없이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던 10일이었습니다. 이 순간이 쉽게 찾아온 기회도 아니고 쉽게 찾아올 기회도 아님을 잘 알기에 잊지 않고 매순간 기억하며 봉사하는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갈 것을 다짐해보는 밤입니다.

”



몸보다 마음이 아프지 않기를

길은정



“Don't Forget Me”

이현재



“ **꿈꿔오던 네팔** 스무살 적 내 꿈은 네팔의 히말라야에 내 발자국을 찍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작은 대학 입학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를 보고부터입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시한부 인생을 살던 두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다 소원리스트를 적어 하나씩 하지만 끝내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시고 그의 비서가 유골을 들고 히말라야에 올라 묻어드립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저런 꿈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네팔과 히말라야는 내 꿈이되었습니다.

신의 나라 네팔을 밖에서 보면 이국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있는 집에서 힌두신을 모셔놓은 사원의 종소리를 들으며 일어나 내가 틀렸음을 알았습니다. 네팔은 신과 함께하는 나라이고 이른 새벽부터 들리는 종소리와 아침까지 계속되는 불교와 힌두교 사원을 돌며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경외심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기독교도 함께 평화롭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이 곳에 올 수 있는 우연은 여기의 신들이 만들어 주신 기회라 생각했습니다. 행복한 우연이 나에게 겹치는 이유를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는 없지만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사랑할 것을 항상 후회는 남는 것 같습니다. 사실 처음엔 이제 끝났다는 후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마지막 순간에 데비카라는 항상 수업에 관심은 별로 없던 아이가 내 손을 잡고 안겨 울었습니다. 그때서 후회가 얼마나 밀려오던지 모르겠습니다. **더 사랑해 줄 걸. 그리고 라따카라는 아이의 마지막 말은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Don't forget me!** 아직 내 꿈을 못이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에 한 번 더 네팔에 가야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보러 그리고 히말라야에 내 발자국을 남기러 말입니다. ”



꿈만 같던 12일이 내게 심어준 꿈

최혜윤

“ **12일간의 램수면상태** 네팔에 있었을 땐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채로 정신 없이 웃고, 떠들고, 울고 하며 한국에 돌아가는 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어느새 나는 한국에 도착해 원래의 내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네팔에서의 순간들만큼은 내가 열심히 숨쉬고 살아있다는 느낌으로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 생각했는데 한국으로 돌아와 지난 12일을 생각해보면 그저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나보다 더 많이 웃고 행복해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12일이란 시간 동안 조건 없는 사랑을 주고 받으며 내가 숨쉬며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나이에선가부터 황금만능주의에 젖어버려 꿈꾸는 직업도, 매사에 임하는 자세도 모두 물질적인 것에 맞추어 달려오던 내게 진정으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가르쳐준 순간들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과는 말도 통하지 않고 그저 안고 바라보고 손잡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지만 그저 그렇게 바라만 보며 눈빛으로 사랑을 느꼈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은 없을 거라고 믿고 살아왔던 내게 얻을 것도, 줄 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진심을 다해 사랑을 나누었던 그 12일은 몽롱하게 꿈만 같은 순간들로 남아있습니다.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며 일분일초라도 더 남을 사랑하는데 쓰기로 결심하며 내 '꿈'을 완성해 갈 것입니다!

”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네팔을 가다

김성훈

“ 네팔에서의 10박 12일, 한국에 돌아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순간에도 네팔이란 단어를 생각하면 가슴이 뛰고 그리움이 가득합니다.

던네팔 _ 고맙습니다 분명 우리는 그들에게 베풀고 봉사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더 많이 얻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인연을 얻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멋진 석양을 감싸 안았던 히말라야를 포기하고 미소가 아름다운 네팔 아이들과 함께하기를 원했던 우리 '네팔꿈치' 팀원들 정말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늘 함께하기를 바라며 언젠가 다시 우리 모두가 네팔에 갈 날을 꿈꿔봅니다.

”





Nepal,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유상유

“

너무나 소중한 그들과의 첫 만남 한 지역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고, 한 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만나는 사람은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네팔사람들의 환영은 태어나서 가장 뜨거우면서도 가장 순수한 환영이었습니다. 교문에서 우리가 활동기간 중 사용할 건물까지 들어가는 데 불과 10여 초 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을 저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 전 설레이기만 했던 마음에 걱정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준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주고 싶어졌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강, 버그머티... 활동 중 잠시 시간을 내어 도심 가운데를 흐르는 버그머티 강 바로 옆 빈민촌에 들렀습니다. 마을은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혹했습니다. 전기는 물론 깨끗한 물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이었으며 집은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저희를 따라다니던 아이들 중에는 잘 씻지 못해 눈병에 걸려 눈을 찡그리고 있는 아이들이 몇몇 보였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제가 한없이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마을을 돌면서 이상하게 이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행복하게 보였습니다. 부족한 것에 대해 실망하지 않는 그런 그들을 보며 **한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많은 것을 누렸던 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행복의 기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네팔 여러분 모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겨줘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들

김태헌

“ 봉사 활동 전에 제가 가장 강하게 느끼던 감정은 부족함이었습니다. 대학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더 높은 세상을 바라보니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하고, 이것저것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에 아쉬워했습니다. 네팔이란 나라도 곁에서 보면 한국보다 부족함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민소득, 국토의 효율성, 심지어 물과 전기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제가 네팔에서 활동하는 순간순간, 저는 부족함을 단 한번도 느낀 적이 없습니다. 10일간 샤워를 한번밖에 못하고, 입을 옷도 없어서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은 옷을 입고 다녔지만 정말 즐거웠습니다. 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19명의 팀원들과 함께했고, 우리 팀원들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때로는 큰누나 같이 챙겨주신 인솔자님이 계셔서 든든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저희들을 친 자식처럼 챙겨주시고, 옆에서 든든하게 버텨주신 현지 분들께서 계셔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00명의 아이들, **때묻지 않았다는 표현이 조금 식상할 수는 있지만 정말 순수하고 장난기 많은 아이들. 그들이 제 부족함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네팔에서 돌아온 지금, 저는 그들이 만들어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활동을 다 마친 마지막 날에 학교 분들이나 현지 센터장님께서 노력 봉사의 결과에 만족하셨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될 것이라고 해주셨던 말씀을 듣고서야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제서야 한국에 돌아와서 진정으로 바랍니다. 제가 했던 일들, 우리가 네팔에서 했던 행동들, 또 이야기들이 그 아이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영향이고, 그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사건이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나를 공주로 만들어준 네팔 천사들

김명진

“ **내팔꿈치는 42개** 아이들이 정성스럽게 접어주는 종이꽃, 편지, 그림에서부터 네팔 전통 의상까지, 정말 내가 사랑받고 있음을, 그리고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아이들을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 크게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어 인솔자 선생님의 지도 아래 우리 내팔꿈치 팀원들은 각자 맡은 일을 일사불란하게 잘 해냈습니다.

우리의 손이 닿기 전의 화장실 모습, 학교의 내·외부 벽, 학교 주변의 모습 등은 정말로 열악했습니다. 노력 봉사하기 전에는 '과연 여기를 우리가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까지 들었었습니다. 그러한 곳을 우리의 손으로 변화 시켰다는 것이 참 뿌듯합니다. 팀원들과 협동하지 않았다면 단연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내 신체에는 두 개의 팔꿈치가 있지만 내 마음 속에는 42개의 팔꿈치가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동정이 아닌 사랑으로 아직도 내가 봉사했던 학교의 아이들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전화가 옵니다. 2주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노력 봉사가 주었던 우리에게 교육봉사나 아이들과 교감할 수 있었던 시간은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이들과 나는 분명 보이지 않는 고리로 연결된 듯합니다. 원활한 의사소통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대했기 때문에 눈빛만 봐도 마음이 통하고 진심이 통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네팔을 접했을 땐 '우리와 동시대에 이렇게 살고 있는 나라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었지만 더 이상 가난한 나라에 사는 그들을 그저 동정만 하지 않습니다. 내 손을 잡아 주었던 그들을 사랑하며 영원히 그들에게 선생님이자, 그리고 인생의 친구로 남을 것입니다. ”

‘던내뱃~’ 추억 이상의 선물, 네팔에서의 기억

정소영



“ **두손 모아 너머스떼~** 두손을 모아 ‘너머스떼~’ 하던 10박 12일간의 네팔에서의 시간들이 지금은 지나간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리움 가득합니다. 해외봉사단으로 합격하고 2박 3일의 합숙교육 때 처음 알게 된 파견국가 네팔과 인솔자 선생님 그리고 팀원들이 봉사활동을 마무리한 뒤 돌아온 지금은 너무도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잊을 수 없는 아이들과의 시간
아이들에게 받은 것이 준 것 보다 많은 것 같아 아쉬움이 가득하고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이 가득하여 네팔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의 모습을 기억 속에서 지우지 않으려 자꾸 떠올려보고 네팔에서의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보면 어느새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리워집니다. **네팔에서의 봉사활동은 저에게 추억이상의 선물을 주었습니다.** 내 작은 도움이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의 진정한 행복.. 지금의 내 삶에 소중한..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인간적인 따뜻한 사랑.. 이 모든 감정을 한가득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다시 방문할 날을 기다리며 **네팔의 따뜻한 기억을 행복한 추억으로, 삶의 소중한 배움으로 간직하며** 지금도 마음 가득히 행복한 그리움을 느낍니다.

내가 받은 사랑

신동휘

“ **네팔에서** 활동하면서 문득문득 네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 생각해보았습니다. 버스에 타서 학교에 갈때나 학교에서 숙소로 돌아올 때면 항상 저 아이들은 나중에 어떠한 일을 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살지 궁금했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참 안타까운 삶. 불쌍한 삶일 지라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나중에 하고자 하는 일들과 생활들이 평범한 삶 그리고 원했던 삶이길 바랐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의 삶에 무언가 획기적인 변화를 주고 그들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오였던것 같습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들을 배웠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잘 살고 그들이 못사니 내가 여태까지 풍족하게 살아왔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소중히하라? 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긍정적인 태도 삶을 바라보는 정직한 시선, 남을 대하는 마음 그리고 배려를 배웠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너무나도 소중한 배움이었습니다.

사진은 행복을 나눈다

김평화

“ **사진은 행복을 나눈다** 네팔에서 맞는 첫 새벽, 발끝을 시리는 추위에 잠에서 깬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분주해진 거리 의 모습. 신에게 기도를 드리기 위해 모이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맑은 눈을 가진 순수해 보이는 아이들까지. 어느 하나 놓칠 수 없이 포토제닉했습니다. 아침거리를 돌아보며 흐뭇하고 기대되고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과 친해지기에 나는 카메라라는 좋은 연결고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카메라에 물려드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웃음은 절대로 꾸며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간의 방문으로 익숙해진 아이들은 나를 볼 때마다 '원포토플리츠'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저 **찍히는 순간에 행복해 하는 아이들. 욕심이 없는 아이들. 쉽게 행복해지는 법을 알고 있는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통해 더 다가갈 수 있고, 행복을 줄 수 있고, 내가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새롭게 발견한 이유 한 아이의 초대로 방문한 한 집은 네팔의 평균적인 경제 수준의 집이었습니다. 전기, 난방, 수도 시설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동이 트면 일어나, 해가 지면 잠에 들고, 추울 땐 많이 덮고 자고, 물은 길어다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불편과 행



복은 서로 상충하는 말이 아닙니다. 충분히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더 가진 사람과 비교해 욕심을 냅니다. 욕심을 버리면 쉽게 행복해 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워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즐기더라도, 행복을 얻고 싶습니다.

”



내 생애 최고의 감동, 네팔

오예원



“ **‘처음’이라는 떨림의 그 순간** 네팔이라는 나라가 아직은 어색하던 우리들은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봉사의 길로 떠났습니다. 처음이라는 단어가 참 설레고 기분 좋은 말인 것처럼 네팔도 그랬습니다. 처음 보는 외국인인 우리들을 반갑게 맞아주던 그 해맑던 웃음들. 약간은 신기한 듯한 표정 하나하나 놓치기 싫어 최대한 모든 아이들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종이에 적어놓은 네팔어로 “너머스떼, 남게호?” 서툰 몇 마디를 건네자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의 떨림이 아닌 편안함으로 바뀔 때 쯤 아이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그 작고 예쁜 손으로 손수 짚은 종이 틀립이며 그림이며 꽃까지 주며 수줍게 건네는 인사로 매일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수업하고 안아줄 때는 내가 살아있음을 실감하고 감사하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웃음을 지어보일 수 있을까요.

어쩌면 그렇게 착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이들은 저에게 존재 자체만으로 감동이었습니다.

“I'll miss you so much. I love you, I'll try to come back here again.”



처음 그 마음으로~

김주미

“ 처음 그 마음으로 네팔로 떠나기 전 내가 냈던 지원서를 읽어 보았습니다. 당시의 간절했던 마음이 떠오르면서 네팔에 간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던것 같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하며 도착한 네팔. 그곳에서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네팔과는 다른 네팔을 보았습니다. 히말라야의 장엄한 풍경이 떠오르는 네팔은 이제 정이 들었던 학교아이들과 누구보다도 행복해보였던 마을 주민들로 채워졌습니다. 반면 네팔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도 두눈과 귀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수도인데도 물과 전기가 끊기는 상황.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그 상황에 맞닥들이면서 내가 누리고 있던 것에 대해감사하고 평소에 얼마나 낭비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나는 네팔에 다녀오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습니다.

“**“힘들다.”보다는 신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며 일했던 기억이 돌아온 지금까지도 나를 즐겁게 합니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복덩이 네팔꿈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I hope
to
see you.”**

이지인

“ 10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한밤중에 도착한 네팔. 네팔에서의 첫 날밤이 아직도 또렷합니다. 생김새가 다른 네팔인들,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해할 수 없는 네팔어, 물씬 풍겨지는 네팔의 향기, 네팔에 도착했다는 설레임과 함께 찾아오는 10일간의 봉사활동에 대한 두려움까지... 잠자리에 누웠지만 수많은 생각이 뒤엉켜 잠이 쉽게 오지 않았고, 가볍게 보았던 네팔의 새벽추위에 금방 눈이 떠졌습니다.

내가 속해있던 생활에서 벗어나 아침부터 자는 순간까지 아이들만 생각하고 팀원들과 선생님을 의지하고 믿으며 10일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다시 만나고 싶고, 가기 싫다 말하고 싶지만 아이들에게 못 지킬 약속을 만들까봐 두려움이 생겼고 이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까봐, **“See you”라는 말 대신 “I hope to see you.”라는 말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눈물 또한, 아이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가에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힌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못해준 것만 가득한 것 같아 터져 나오는 눈물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23일 밤, 네팔의 상공에서 본 네팔의 밤하늘은 10일 전과 똑같았지만, 활동을 하고 돌아가는 마음은 벌써부터 시작된 네팔의 모든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함, 그리움과 아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I hope to see you”가 “See you!”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의 활동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감사 합니다 네팔 더욱 사랑 하겠습니다 네팔꿈치.



한국을 사랑하는 네팔사람들

조용찬

“ 한국을 사랑하는 네팔사람들 네팔청소년들이 한국문화에 대해 너무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곳 또한 한류열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고 길거리에는 삼성, 엘지 그리고 한국 연예인들의사진등이 있어 놀라웠습니다. 그곳청소년들의 공연을 보고 우리의 공연도 하고 한국음식을 선보이며 한국에 대해 멋진나라로 기억해줬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생겼습니다.

솔직히 난 네팔에서 살것게 너무 많이 미안했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풍족한 생활을 즐기지 못하는데 나는 마치 “난 한국에서 잘먹고 잘산다”라는 표현을 몸으로 하는거 같아 많이 창피하기도 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farewell을 하고 네팔친구들의 멋진 공연도 보고 이별의 순간.

열심히 하고 건강하라는 말과 언젠가 한국에 오라는 말은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쉬는시간에 친구들에게 핸드폰으로 옮긴 사진 등을 보여주며 네팔에서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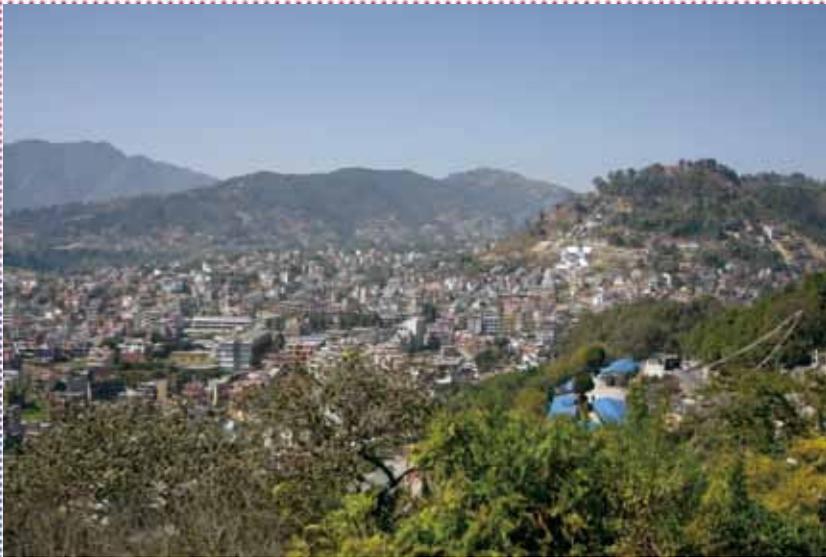
21명 각자의 위치에서 모두 열심히 하고있지만 네팔에서의 마음은 잊지않고 국내에서도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Nepal 문화탐방

정미정



자연과 사람 모두에게서 순수함이 느껴지는 사랑스런 그곳. 네팔

출기 만하던 네팔의 날씨는 힌두축제 '쉬바 라뜨리'를 기점으로 여름으로 들어섰습니다. 그 때문인지 파탄(PATAN)까지 걸어가는 과정에서 제법 덥다고 느낄 정도로 따가운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래도 우리네와 다른 네팔의 거리를 구경하느라, 금방이라도 달려들 듯 시끄러운 소리를 내지르는 차를 피하느라, 더위를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파탄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 거대함에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네팔의 거리 곳곳에서도 아주 쉽게 사원을 볼 수 있었고 개중에는 상당히 정교한 것들도 많아서 비슷한 수준이려니 하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섬세하면서도 거대한 황토빛갈 건축물에 놀랐습니다. 이게 궁이라는 걸까요? 도대체 어떤 왕이 이곳에서 어떻게 정치했는지. 지금은 없는 고대의 네팔 왕조가 어떤 모습일지, 네팔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간 곳은 수엠부. 산꼭대기에 위

치한 그곳은 멀리서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꼬불꼬불 휘어진 산을 타고 오른 저희를 가장 먼저 반긴 것은 원숭이. 어디 동물원에서나 볼 것 같은 그의 등장에 모두들 즐거운 마음으로 수염부를 향할 수 있었습니다. 네팔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그곳에서는 하늘을 나는 새들의 모습조차 하나의 작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염부 탑의 몸통에 그려진 사면을 향하는 눈들, 손바닥으로 돌리면 읽은 것이 되어버리는 범문들, 허리춤까지 오는 수많은 탑들의 모습은 우리의 불교와는 또 다른 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는 터멜 거리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명동정도로 큰 그 거리는 네팔의 대표적인 쇼핑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오후 시간 전체를 보냈습니다. 사실 일정을 통지받았을 때, 오랫동안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는구나하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이 오판임을 깨달았습니다. 직접 환전을 하고, 어디에서 점심을 먹을지, 이 가게에서 가방을 살지 아니면 다른 가게에서 흥정을 다시 해볼지 등 여러 가지를 직접 판단하고 참여하다보니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흘렀습니다. 촉박한 시간에 발을 동동 굴리고, 정신없이 달렸었지요.

네팔의 관광지 세 곳을 돌아보면서 네팔에 대해 더욱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파탄에서 네팔의 역사를, 수염부에서 네팔의 정신을, 그리고 터멜거리에서 네팔의 오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통해 아이들과 만나며 네팔의 미래를 접했으므로, 우리는 네팔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전부 돌아볼 수 있었던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화탐방은 네팔을 새로운 각도로 보며, 네팔 전체를 더욱 친근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어주었습니다.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박세라(인솔자) - 천상여자, 원하우스 주인, 공대파워, 트리플에이형

시원시원한 성격에 반전의 세심함과 감수성까지 갖추어 버린
무한한 매력의 세라 쌤.
오성급 호텔 주방장 이상의 요리 실력까지 갖춘 일등 신부감.
네팔꿈치의 구심점으로 팀원들 단합의 일등공신!



신민수 - 네와리 족, 마술, 한방씩 터지는 개그 감

네팔사람들도 헛갈려 한 네와리 족, 알고 보니 고국으로의 귀환?
조용한 듯 한 방 날려주는 무서운 책임감의 소유자지만 벽화에는
소질이 영 없는 우리의 애정남. 버리는 카드였던 마술을 메인이벤트로 등극시킨
무대 위의 황태자.



한준구 - 물광 피부, 남다른 몸짓, 사진의 정석, 매력의 친화력

미스트로 하루를 시작하는 물광 피부의 소유자.
여자보다 아름다운 몸짓과 웨이브로 봉사의 피로를 푸는 마력
의 남자. 춤을 추며 숨겨져 있던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희열을 느낀다며...
말끔한 첫인상과는 다르게 아줌마 파워로 수다 왕에 등극한
우리들의 준구 언니 최고!



조용찬 - 비트박스, 연애부 기자, 주식 왕

팀원 중 첫 번째 눈물을 보여주며 수업도중 눈물을 흘린
마음여린 부팀장. '하하하하' 호탕한 웃음소리로
팀 내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



김경욱 - 성실함의 표상, 장 트러블, 발은 현지인, 화장실의 남자

화장실에 대한 남다른 애착으로 네팔에서의 10일 중
무려 9일을 화장실에서 보낸 노력팀장님.
몸에 배어 버린 이타적임으로 항상 팀원들을 세세하게 챙겨주는 팀 내의 우렁충장.



김성훈 - 황소연기, 스마일 맨, 재치만점

2012년 네팔의 남우조연상에 빛나는 '아이고 꼬리에 불이 붙었네'를
유행시킨 황소 김성훈. 25%의 개그 성공률을 보이며
질보다 양으로 밀어붙이는 허무개그의 장인으로, 팀원들에게
스마일을 전파해주던 눈웃음의 정본인.



유상유 - 페인트 장인 수제자, 게임 매니아, 음흉한 웃음, 듬직한 팀장님,

네팔 전문가가 인정한 good 페인터.
네팔에서 만큼은 F4 구준표로 통하며 네팔의 소녀들을
여심을 흔들어버렸다. 그러나 카메라와는 별로 친하지 않았던 팀장님은 수많은
개인업시의 소유자.



이현재 - 이비서, 눈웃음, 쌤의 남자, 눈 화장, 선생님의 가방

선생님의 사랑을 독차지한 문서작성의 달인, 선생님의 오른팔 이비서,
활동현장 곳곳에 켜~ 나타나는 네팔꿈치의 슈퍼 롤모델로서,
노력·문화·교육봉사 어느 프로그램에서든 팀원들에게 도움을 주던 수석여가
필요 없는 남자.



김평화 - 베스트포토, 눈물, 현지인 폴세트 패션, 구도의 달인, 망치의 신(망신)

어디로 뭘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 사진이면 사진 드림이면 드림,
노동이면 노동, 진정한 만능 엔터테이너 김 피스. 사진을 찍는 예술성은
남다른 감수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네팔에서의 마지막 밤에 결국 눈물 폭발로
팀원들을 감동시켜버린 당신은, 알고 보면 여인 남자.



신동휘 - 메디입니다람쥐, 알고 보니 근육 남, 특공무술, 미국 춤

"아프신데 없으신가요?" 누군가 아프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달려오는 우리의 메디. 팀원들의 건강에 신경 쓰고 항상 챙겨주는
최고의 공을 세웠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뒷전이었던 미안했던 메디.
여자보다 섬세하고 고운 손길로 벽화왕에게 선택받은 벽화계의 라인버스누스!



김태현 - 술댕이 눈썹, 미필, 터진 영어, 문짜과 혼연일체

방과 공명하는 네팔꿈치에서 단연 감미로운 목소리의 소유자. 차가운 첫인상과 딱딱한 말투로 인해 친해지기 어려울 거란 생각을 뒤집은 눈썹 움직이기가 특기인 장난기 가득한 볼매. 특실한 장편지로 쉬는 시간 없이 묵묵히 일하는 무한체력의 김태현



정미정 - 맘언니, FM의 1인자, 창백한 얼굴

냉철한 판단력과 이성적인 잦대로 차기움이 물씬 풍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제일 HOT한 그녀. 네팔아이들에게 자신의 솔직한 얘기를 통해 진솔한 눈물을 나누던 정 많고 친절한 우리 모두의 언니. 벗겨도 벗겨도 속을 알 수 없는 양파 같은 그녀는 매력덩어리



정소영 - Dance, 저~ 사투리씨\요/? , 집에 언제내려가?

홍대 클러버를 꾸꾸는 김해여자. 언니들의 메이크업에 눈을 반짝이다가 귀국 후 결국.. 메이크업에 눈을 뜬 상큼발랄 소영이. 기본 3그릇의 데레이데레이 람로쳐 식성을 자랑하던 그녀는 도발적인 feel로 가득한 춤사위로 에너지를 펼쳤다.



오지은 - 과묵함의 대명사, 네팔꿈치인형녀

네팔꿈치의 마음을 뒤흔든 여자 1호. 새초롬한 미모에 털털한 성격과 '끄끄끄끄' 저음의 웃음을 가지고 있는 외모, 성격 모두 람로쳐인 그녀. 아이라이너를 그리던 손으로 페인트를 칠하던 굿 페인터



오예원 - 헤어롤, 아침체조, 언니, 4차원 귀요미

기름칠할 딱진 머리 간지남의 1호팬인 영동발랄 4차원 매력이 풀풀 풍기는 윈어팬 놀이터의 기구를 칠하던 신나와 페인트로 자신의 운동화를 페인팅하던 노력봉사에 폭 빠진 열정 넘치는 그녀



김명진 - 네팔공주. No.3의 여자, 네팔 전통 옷

네팔에 도착하자마자 남심을 뒤흔든 진정한 네팔공주. 터프한 듯 하지만 누구보다 사랑이 넘치고 마음이 여린 눈물 많고 부끄러움 많은 천상여자. 네팔의 모든 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기에... 한국에서 네팔계를 시작한 그녀.



길은정 - 빼악이, 아기피부, 라면 언제 먹어요?, 지은이 절친, 아는데!

네팔의 먼지도 침범하지 못한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던 아기 피부의 소유자. 시크한 말투 뒤에 숨겨진 해맑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당찬 막내 은정이. 운동회를 알록달록 빛냈던 색종이 깃발을 묵묵히 만들던 숨은 공신.



최혜윤 - 아기, 삽질, 울보, 애교만점

여러여리한 미모와 몸매를 가졌지만 알고 보니 삽질계의 떠오르는 샛별이었던 식스센스를 뛰어넘는 반전의 그녀. 아이들만 보면 지쳐있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며 '해해'표정으로 웃으며 달려가던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사랑할 줄 알고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울보.



정주랑 - 구름 족, 매력적인 코 점, 아미의 뚜이 초리, 여자 김성훈 주랑주랑~!

네팔인들이 인정한 네팔인, 네팔미녀. 태평양보다 넓고 깊은 오지랖으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던 그녀. 네팔꿈치의 교육도, 인기도, 씬쌌기도, 식성도, 유머도, 노력봉사도, 단연코 최고! 설번다 람로쳐 주랑



김주미 - 벽화 왕, 사과머리, 유쾌한 유머, 느낌 있는 패션

노력팀의 홍일점으로 여러 남자팀원들 사이에서도 반짝반짝 빛이 나던 막내. 벽화 앞에서는 선생님이 가차 없이 혼내는 강한 카리스마의 절대강자로서 Farewell 날 울지 않았다 했지만 목 놓아 엉엉 울어버린 한없이 사랑스러운 주미.



이지인 - 금잔디, 이에 기차길, 네팔꿈치 MVP, 일당백

팀원들의 건강부터 자잘한 일까지 항상 챙기고 다니는 우리들의 3초 구혜선.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지치지 않는 무한에너지의 소유자로 치아에 반짝이는 교정기는 삼관없이 치아보이도룩 웃는 것이 트레이드마크인 우리의 부팀장!

벌써부터 그리운 얼굴들,
“보고 싶다 애들아!”





1	2
3	4
5	6

- 1 우리 처음 만났어요
- 2 꿀벌친구와 함께
- 3 헤어지기 싫어요
- 4 아이 집으로 초대받았어요
- 5 람보처럼!
- 6 자~신비한 마술의 세계로 고고!



Ethiopia



너희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이
크레파스와 색종이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알록달록해지기를...

일정표

0213	1일차	출국
0214	2일차	아디스아바바 도착 / FGAE Youth Center 방문 및 현지활동 보고 / Nazareth으로 이동
0215	3일차	델라사라사 유치원 첫 방문 교육 프로그램 · 동물가면 만들기 · 국기 모자이크 · 종이접기 노력 프로그램 · 페인트 구입 및 벽화그리기 준비
0216	4일차	교육 프로그램 · 왕관 만들기 · 알파벳 배우기 · 나뭇잎 그리기 노력 프로그램 · 교실 내벽 초벌 페인트칠
0217	5일차	교육 프로그램 · 나무 만들기 · 색종이목걸이 만들기 노력 프로그램 · 교실 내벽 덧 페인트칠 · 건물 외벽 페인트칠
0218	6일차	교류 프로그램 · 한국소개 · 레크리에이션 게임 문화 프로그램 · 부채춤 공연 · 태권도 · K-pop댄스 공연
0219	7일차	문화 프로그램 · 부채춤 공연 · 태권도 · K-pop댄스 공연
0220	8일차	교육 프로그램 · 요구르트 병 약기 만들기 · 국기 그리기 노력 프로그램 · 양초 만들기 건물 외벽 덧칠하기 · 교실 내벽 벽화 · 게시판 만들기
0221	9일차	교육 프로그램 · 손 씻기 교육 · 접시 목걸이 만들기 노력 프로그램 · 외벽 벽화그리기 · 게시판 만들기
0222	10일차	교육 프로그램 · 손 씻기 교육 노력 프로그램 · 건물외벽 벽화작업마무리 문화 프로그램 · 태권도, 부채춤-바자회 (플라로이드 촬영, 페이스페인팅, 풍선 선물)
0223	11일차	문화탐방 · TROPICANA ECHO RESORT로 이동 · 카약 체험
0224	12일차	문화탐방 · 아디스아바바로 이동 · ENTOTO ST · MARY MMUSEUM탐방 · FGAE 수료증 수여식 및 선물 증정식, 커피 체험
0225	13일차	입국

사전모임 및 봉사활동 내용



홍대 게스트 하우스에서 두근두근 우리의 첫 MT + '제 이름은 ***, 나이는 22살이고, 여자친구는 없습니다.'로 어색한 자기소개로 애틀타가 시작되었습니다. 팀장님 주도하에 진행되었던 전체회의, 짐 튀겨가며 열성적으로 진행했던 A,B 교육팀 회의, 동물 가면 만들기, 요구르트 병으로 약기 만들기 등의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완성한 후에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하며 봉사할 기대로 우리들은 잔뜩 기대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부채춤, K-POP 댄스, 태권무로 나누어 팀별로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간단한 안무로 30분 안에 끝나버린 부채춤 팀, 그 좁은 공간에서 손동작에서부터 발차기까지 하나하나 연습했던 태권무팀, T.O.P팀 내에서 춤에 대한 열정이 강한 사람들로 모인 위기의 K-POP 댄스팀, 다행히도 댄스 동아리 출신인 K-POP 팀장의 리더십으로 각 팀원들의 댄스 본능을 이끌어 내어 안무동작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T.O.P MT의 하이라이트는 저녁 친목 모임이었습니다. 팀내 막내인 이규빈팀원의 부모님께서 팀원들을 위해 사다주신 야식은 봉사 가기 전 저의 멤버들이 몸보신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처음에 어색했던 분위기가 무색할 만큼 게임을 하면서 각 팀원들은 서로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전 부푼 기대를 갖은 팀원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유쾌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동안 + 아산 나눔 재단 카페의 게시글과 우수 활동 회원 리스트는 모두 에티오피아 팀원들이 훑어갈 정도로 봉사준비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간단한 재료를 사는 것부터 팀원들의 아이디어를 존중하여 그 의견을 반영해준 배려심있는 팀장님. 교육팀의 수업내용에 대한 아이디어 수집에서부터 구체적인 수업 내용 방안까지 꼼꼼히 챙긴 교육 A,B팀 팀장들과 팀원들. 완벽한 문화공연을 위하여 팀원들을 연습시키느라 고생한 각 문화교류의 팀장들, 추운 겨울날 남대문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물품 구입에 힘써준 물품 담당팀원들, 떠나기 직전에 빠진 물건 없이 꼼꼼히 챙겨준 나머지팀원들, 떠나기 직전까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팀원들이 있었기에 봉사활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팀 대표 프로그램

태권도로 하나 된 우리와 그들



순탄치만은 않았던 준비 과정

에티오피아로 떠나기 일주일 전, 예비 공무원, 예비 의사, 공대생, 경상대생, 인문대생.. 공통 점이 없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를 하여 T.O.P 태권도팀. 에티오피아에서 현지인들에게 우리나라의 전통 무술인 태권도를 보여주기 위한 마음가짐 하나로 팀원들이 자신해서 구성한 팀이었습니다. 공연을 보고 기뻐할 현지인들의 얼굴을 생각하며 자신해서 지원한 것이었지만, 팀원 모두가 태권도를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에 동작 하나를 익히는 데에도 많은 시간이 걸렸고, 진도가 쉽게 나가지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지방에 거주하는 팀원들이 많았기에 출국하기 전까지 전체모임을 많이 갖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연습을 하였습니다.

다른 문화교류팀에 비해 연습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현지에 가서도 낮에는 아이들과의 교육봉사와 노력봉사를, 밤에는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문화교류 연습을 하였습니다. 일정이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팀원 중 어느 누구도 지친기색을 보이지 않았고, 서로 격려하며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늦은 시간까지 함께 연습했습니다. 이렇게 주경야독 하는 심정으로 문화교류 전날 새벽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열심히 연습 했습니다. 이러한 준비 과정 속에서 우리 태권도 팀원들이 하나가 되어간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기합소리

현지 청소년 센터(FGAE)에서의 문화교류 당일, 문화교류 일정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준비한 프로그램 일정은 모르고 있었기에 그들이 태권도 공연을 준비한 사실이 놀랍기만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이 먼 곳까지 알려져 있다는 놀라움, 그들이 보여줄 공연에 대한 기대감, 우리 무대에 대한 걱정, 공연이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되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고, 현지 청소년들이 준비한 공연을 보면서 그들이 우리를 위해 참 많이 연습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와 같은 프로그램이었던 현지 태권도 시범 팀은 한국인들에게 한국 고유의 무술을 보여준다는 부담감 때문인지 더 많은 준비를 한 듯 했습니다. 현지 청소년들이 준비한 태권도 공연을 본 뒤 우리 팀이 준비한 태권도 공연을 선보였을 때, 설렘과 긴장 속에서 진행한 공연이었기에 실수도 있었고 미숙하기도 했지만, 현지 청소년들은 우리가 선보인 공연에 대해 아낌없이 칭찬과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우리도 더불어 그들에게 멋진 무대를 선보여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많은 칭찬과 환호를 아끼지 않았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과 단지 문화를 교류하는 것만이 아닌 마음을 교류하며 하나가 된 듯 했습니다. FGAE에서의 공연 이후에 광장에서의 시민들과의 공연, Dellasa 학교에서의 아이들과의 공연 등 두 차례의 공연이 더 있었고, 이러한 세 번의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팀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공연을 통해서 우리 팀과 에티오피아의 청소년, 어른과 아이 모두와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그윽한 커피향기가 날 설레게 했던 곳, 에티오피아

김채영



“ 처음 봉사를 하게 될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보았을 때의 순간을 잊지 못합니다. 조그만 운동장에서 조그만 아이들이 줄을 맞춰 간단히 조화를 고 있는 모습이 저에게는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이런 아이들과 함께 할 생각에 너무나 기대가 되었고 무척 설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리팀원들을 잘 반겨주었고 너무나 잘 따랐습니다. 항상 우리의 손을 잡고 발걸음을 쫓아 다니며 관심을 받으려하는 모습이 정말 귀여웠습니다. 애정표현을 잘하여 항상 뽀뽀도 해주고 학교주변에 있는 꽃을 꺾어 선물해주고 자신들이 그린 그림들을 선물이라며 작은 두 손으로 건넬 때 이 아이들의 큰 눈망울이 너무나 예뻐 보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정말 친절하시고 우리의 봉사활동을 하나하나 잘 도와주셨습니다. 특히, 점심식사를 마치고 우리팀원들을 위해 에티오피아의 커피를 정성들여 맛있게 타주시는 모습에 늘 감동하였고 아직도 그 커피의 향과 맛을 잊지 못합니다.

미술교육 위주로 진행된 교육봉사는 거의 수월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미술교육 후 아이들 한명 한명에게 결과물이 생겼고 그것을 보고 해맑게 웃으며 좋아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너무나 뿌듯하였습니다. 노력봉사에서는 색깔이 없어 다소 삭막했던 학교의 교실벽과 외부벽을 페인트칠을 함으로써 색깔이 예쁘고 아이들의 순수한 눈과 어울리는 학교의 모습으로 재탄생하였습니다. 우리팀원들의 손이 하나하나 담긴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더 예쁘게 자라고 꿈을 키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지 사람들과 함께 했던 문화교류행사도 정말 즐거웠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우리들을 신기하게 바라보고 웃으며 관심을 가져줬던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정을 계속해서 느꼈

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에티오피아 사람들의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하였던 것이 저에게는 아주 신선하였고 좋았습니다. **홍겨운 음악과 그에 맞춰 추는 격렬하고 열정적인 에티오피아의 전통춤을 보는 순간 바로 그 것에 빠져버렸고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와 사람들이 더욱 멋있었고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달콤하고 커피향처럼 그윽했던 에티오피아 봉사활동을 제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좋습니다. 앞으로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더 부지런히, 더 열심히, 더 바르게 살아가겠습니다.

”



“

에티오피아에 도착한 후, 봉사활동 장소에 도착한 첫 날, 까만 피부에서 유독 하얀 그들의 눈망울과 잘 먹지 못하여 살집이 잘 잡히지 않는 그들의 외형을 직접 보고나니, 두근거림, 의지, 기대감과 같은 감정을 느낀 제 자신이 부끄러웠고 그들에게 미안했습니다.

봉사활동 일수가 하루하루 늘어감에 따라 체력적으로 지쳐갔지만, 아이들의 순진한 모습과 뛰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에 매번 감동받아 그 점을 잊고 활동했던 것 같습니다. 뿌듯함이나 무엇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보다 그들에게서 느껴지는 정과 행복한 기운으로 인해, 매일 잠자리에 들 때면 지나가는 시간이 아쉽고 한편으로 다음 날이 기대되었습니다.

주중에 아이들과 함께 지냈다면, 주말에는 현지 봉사활동 사람들과 서로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항상 웃으며 공연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사회적 위치에 대한 차이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그들, 그리고 주중에 만나 함께 지내는 아이들의 모습이 천사처럼 행복하고 예쁘게 보였습니다.

part3. 귀로

‘나에게 주어진 며칠간, 나는 누구를 만났고 무엇을 했으며 어떤 것을 느꼈을까...’

저에게 맘을 열어준 우리 팀원들과 에티오피아 현지인들, 그리고 제 안에 있던 새로운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던 며칠간의 시간, 잠시 현실을 떠난 그 시간 속에서 희로애락을 느끼며 꿈을 꿀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억의 습작으로 인해 다른 사건이 생기고 그것이 이번 기억을 덮을 수도 있지만, 현재 누군가가 가장 기억하고 싶은 순간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까만 천사를 만난 이천십이년 어느 날...”

”

천사들의 공간 속에서 숨을 쉬다

홍선필



가슴 속에 새기고 온 에티오피아

팀장 김민수

“ **블랙홀과 같은 아이들의 눈망울** 나자렛에 도착한 다음날, 6일간 봉사활동을 할 델라사학교의 아이들을 처음 본 순간 자연스럽게 아빠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존재에 가치를 인정받고 사랑받아야 하는 이 아이들에게 다가가 마음을 나누고 또 채워지는 과정은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행복을 주었습니다. 특히 먼저 다가와 저의 손을 잡고 인사를 하고, 손등에 입술을 맞추며 저의 어깨를 낮춰 손으로 목을 감고 볼에 뽀뽀를 해주는 이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숨결을 느낄 때는 그 어느 순간보다도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맑고 순수한 이 아이들이 가난이라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이 누려야 할 소중한 권리를 잃은 상황이 안타까웠습니다.

정든 에티오피아 차우차우.. 에티오피아로 떠나기 전, '아주 잠시동안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오리라.'라고 생각했던 제 삶에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친 그들 때문에 글을 쓰고 있는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추억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만나는 내내 얼굴에서 사라지지 않던 아이들의 환한 미소와 밝은 얼굴, 그리고 **에티오피아의 따뜻한 정과 친절함을 보여준 사람들과의 추억들은 이제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아쉬움을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에티오피아 현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 팀원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봉사의 삶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 **타인을 위한 오아시스** 바쁘게 돌아가는 이 세상, '내가 내 자신 말고 다른 누군가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시원함을 준 적이 있었나?'란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 익숙하고, 정신없는 일상에 그 생각들은 저 밑 깊은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만 했습니다. 잠시만이라도 온전히 타인만을 위한 삶을 그리워하던 중에 에티오피아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놓였습니다.

열정의 팀원들 이번 아산 나눔 재단 해외 봉사활동을 준비하면서 깜짝 놀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팀원들의 열정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제 일신을 위한 일이나 가족, 친구, 연인 등 가까운 주위 사람들을 위한일, 돈 되는 일이 아니면 이처럼 열정을 발휘한 적이 없었기에 그들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느꼈던 감정들을 더 솔직히 표현 하면,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부끄럽기 보단, **'세상에는 참 착한 사람들이 많구나... 이래서 사회가 지탱하는구나'** 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 새겨질 아직도 눈을 감으면 사랑한다고 손으로 몸으로 입술로 표현하며 뛰어오던 아이들이 눈에 그려집니다. 내일이 마지막이라고 투덜대던 저에게 활짝 웃으며 다가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내 뺨에 뽀뽀를 해주었던 그 순간들.

이렇게 인상 깊었던 에티오피아 봉사활동에 대한 기억은 생각보다 그리 오래 가지 못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들은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게 새겨져 있고 믿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김대범



아이들의 맑고 순수한 눈망울에 빠지다...

유연규

“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봉사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T.O.P팀이 봉사활동을 하게 될 곳은 Adama 지역에 위치한 Nazareth 마을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우리가 처음 학교에 도착하였을 때 그곳의 어린 아이들은 운동장에 모여 조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흙먼지와 모래바람이 심한 열악한 환경에 헐벗고 찢어진 옷을 입은, 밑창이 닳은 신발을 신은 아이들과 우린 보이지 않은 작은 벽을 두고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아이들은 반짝반짝 빛나는 눈동자로 저희를 쳐다보며 서슴없이 악수를 청하였고, 먼저 마음을 연 아이들을 통해 보이지 않은 작은 벽은 허물어졌습니다. 그렇게 티 없이 맑고 순수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해 온 교육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진행하였고, 노력봉사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한 날은 비록 6번에 불과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 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교 외벽 및 내벽은 페인트를 칠해 깨끗해졌고, 잘 보이는 곳에 De la salle 라는 학교 이름을 새겨주었습니다.** 또한 교실에 게시판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육을 받은 아이들의 표정 또한 더욱 밝아졌습니다. 모든 활동을 마치고 끝으로 우리를 초대해 준 따뜻하고 정이 많은 에티오피아 현지 학교의 선생님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우리 팀원들은 헤어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며... 봉사활동을 마치며, 어쩌면 그곳 아이들은 꿈과 희망이 없어 보였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몸은 조금 지저분하지만, 깨끗한 마음과 순수한 눈동자를 가진 아이들과 가난하고 배고픈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즐겁고 행복하게 뛰어노는 아이들을 보면서 오히려 제 자신을 뒤돌아 볼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13박 14일이란 기간은 제게 있어 절대 느껴보지 못할 정말 너무 소중한 귀한 경험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라는 갈증

이선율

“

마음 속에 박힌 그 순간순간. 아이들은 카메라를 너무 신기해했고, 프레임에 담긴 자신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싶어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들이댈 때마다, 예상했던 구도는 커녕, 아이들이 카메라를 향해 삼삼오오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프레임 한가득 아이들의 얼굴이 담겨버려, 좋은 장면을 찍기 힘들었습니다. 제 임무는 좋은 장면을 메모리에 담아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버리니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멀쩡이 떨어져, 아이들을 관찰하다 자연스러운 장면을 기다리며 찍었습니다. 첫날 찍은 사진을 리뷰하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장면을 기다리기보단 먼저 명장면이 되도록 함께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결국 저 역시도 이 텔라사르 학교에 아이들과 소통하러 온 것인데, 먼저 손을 내민 아이들을 외면한 것 같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카메라에 포즈를 취하면 취하는 대로, 웃고 즐기면 즐기는 대로, 그런 아이들 자체의 모습들이 오히려 명장면이었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쥐다가도 아이들이 다가오면, 먼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고, 놀아주는 일 자체를 즐겼습니다. 사진을 찍는 순간순간, 오히려 아이들은 저보다도 먼저 손을 내밀고 저의 지친 영혼을 토닥여주었습니다.

“아마세끼 날로”란 말 한마디의 힘 아이들과의 마지막 수업일. 저희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어느 방송국에서 이 모습을 취재하러 왔고, 몇몇 아이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많아봤자 7살 안팎의 꼬맹이들이 소리높여 하나같이 “아마세끼날로”를 외칩니다. ‘이 꼬맹이들도 정말 우리에게 진심을 느끼고 있구나.’란 생각에 가슴에서 무언가가 복받쳐올라, 온몸이 저릿저릿했습니다. 겨우 ‘고맙습니다’란 한마디일 뿐인데, 그 말이 참 달콤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갈증. 에티오피아. 이 다섯단어를 상기시키면 문득 갈증이 납니다. 그곳에서 받은 따뜻함이 너무 달콤해, 몸이 나른해지며 긴장이 풀립니다. 우리가 해준 게, 고작해야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 학교 시설 보수하고, 벽화 그려준 일이 다입니다. 그리고 전 고작 그런 일을 담았을 뿐입니다. 그 ‘고작’으로 인해, 현지 사람들은 너무 행복해했고, 그러한 모습을 본 우리 티오피 단원들은 힘이 났습니다. 이러한 ‘고작’이 작은 변화를 만들었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주변 이웃에게 작은 ‘고작’을 실천하겠노라 다짐합니다.

”



“

아름다운 눈동자를 가진 그곳, 에티오피아 처음 텔라사르 학교에 가서 아이들과 처음 대면했던 그 순간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모두 나와 한 줄로 나란히 서서 큰소리로 노래하던 목소리, 우리를 처음 보고도 낯선 기색 없이 매일 아침 꽃 한 다발씩 건내주던 아이들의 맑은 눈동자는 영원히 잊지 못 할 것입니다. 흠뻑 땀 흘리던 운동장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미끄러져 엉덩방아라도 찢는 순간엔 아이들이 떠나 할 것 없이 모두 달려와 제 바지의 흠을 털어주던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씨, 손을 씻으러 수도가로 가면 먼저 씻으라며 수도꼭지를 돌려주며 눈짓을 보내던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 아직도 아른거립니다. **나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심어주러 간 제가 오히려 그 아이들에게 더 큰 것을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에게도 맑은 눈망울 속에 분명 꿈과 희망이 존재했고 제가 한동안 방황하던 미래에 대한 불안감도 이들로부터 치료받는 듯 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에게 무언가 배풀고자 하는데 집중할 나머지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제가 더 행복해지고 더 많이 배우고 온 것 같습니다.

희자정리 거자필반: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헤어지게 되고, 떠난 사람은 반드시 돌아온다. 텔라사르 학교에서 마지막 날, 바자회 및 공연이 끝나고 학교 관계자분들과 한 자리에 모여 수료증을 받고 사진도 찍으며 이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누구 하나 먼저라 할 것 없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는데 에티오피아에 더 있을 수 없다는 시간의 야속함과 함께 내일이면 다시 못 볼 사람들에 대한 서운함이 공존하던 순간이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신 목걸이와 팔찌를 선물로 받았는데, 그들에게 뭐 하나 준 것 없이 받기만 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먼저 다가갔어야 하는데 그들이 먼저 제게 벽을 허물고 다가왔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배운 따뜻한 마음, 그들의 아름다운 눈망울을 마음속에 이로써 제 인생에 있어 큰 사람이 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민은별



나를 한층 더 자라나게 만든 순수한 사람들

이규빈



“

천사들을 만나다. 에티오피아에서 아이들을 처음으로 만난 아침. 아이들은 아침조회를 하기 위해 운동장에 모여 씩씩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기한 듯 올려다보는 아이들을 본 순간 아이들을 꼭 껴안고 싶을 만큼 사랑스러웠습니다.

햇빛 돌로 쌓아 올린 학교 건물은, 안에서 보나 바깥에서 보나 이토록 사랑스러운 아이들이 공부하고 놀기에는 어울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어두운 교실 안에서도 아이들은 밝고 씩씩하게 노래 부르며 춤추고, 또랑또랑한 눈빛으로 숫자와 영어, 암하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참으로 대견스러우면서 한편으로는 가슴이 죄어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구나.’** ‘그동안 나는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냈는가.’하는 생각이 들면서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과분한 것들을 누리며 살면서 불평을 했다는 것이 미안해서, 나만 편하게 살아온 것이 미안해서 더 학교 보수에 힘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운 색으로 페인트칠된 학교를 보고 아이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며, 보람을 느끼면서도 더 많은 것을 해주지 못해 안타깝고 미안했습니다. 한국의 유치원보다는 아직도 많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꿈을 잃지 않고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생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려 왔다가 받고 오다. 우리는 분명히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에티오피아에 왔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잘 웃지 않던 저에게 크게 웃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주변의 작은 것들에도 감사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옆 친구와 함께 협동하는 법과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마음씨, 사랑받는 방법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 작은 것도 옆 사람과 나누는 마음씨를 가르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정(情)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특히 주변사람들에게 무관심했던 저에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

잊지 못할 11박 13일, 살람노 에티오피아!

조현아

“ 봉사 첫 날, 운동장에 모여 있는 아이들을 처음 보았을 때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흙먼지로 뒤덮인 옷과 다 낡아빠진 신발들, 제대로 된 책상과 칠판도 없고 망가진 의자들뿐인 교실... 하지만 누구보다도 환하게 웃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돌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중에 하나는 교육봉사의 첫 시간인 ‘동물가면 만들기’였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던 중에 교실 맨 구석에서 부끄럼도 많고 수줍은 미소만 짓던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제가 다가가서 색칠하는 것도 도와주고 고무줄을 달아서 귀에 연결해주니 정말로 해맑게 웃으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동물가면을 쓰고 운동장으로 나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신발도 없이 다 벗겨진 발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비록 저는 학교에서의 그 아이의 모습만 보는 것이었지만 그 아이가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열악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니 너무나 안쓰럽고 슬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육봉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아이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달에 우리 돈 3만원 남짓한 돈을 받아가면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주신 텔라사라사의 현지 선생님들, 아이들을 사랑하는 눈빛과 교육에 대한 열망은 정말 감탄을 자아내게 했고 저에게 있어서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아쉬움...하지만 영원히 기억될 T.O.P. 우리 T.O.P. 대원 20명이 6일 동안 빠듯한 일정과 제한된 예산으로 인해 생각보다 만족스러운 봉사가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짧았던 기간이지만 분명 에티오피아에서의 활동은 저를 한층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의 될 것인지 결정해주는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또 울타리에만 갇혀있었던 저를 울타리 밖으로 꺼내 준 되었습니다. 쉽게 만나지 못할 20명의 인연들이 모여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었던 순간은 저에게 있어서 영원히 잊지 못할 시간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T.O.P. 파이팅!



잊혀지지 않을 우리의 뜨거운 열정

김상은



“ De la salle는 나자렛 마을에 위치한 저희가 봉사활동을 한 유치원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미취학 유아들을 돌보는 곳인데, 존경스럽게도 자원봉사 선생님들이 한달에 약 3만원의 월급만 받고 하루 종일 성실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흡사 가족 축사와 같은 열악한 환경과 거지꼴을 한 수백명의 아이들이 바글거리는 모습에 할 말을 잊었습니다. 측은한 마음으로 지켜보는 저희에게 먼저 밝은 웃음을 건네준 텔라사라사 어린이들을 보고 기운을 내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교육봉사는 주로 미술 수업 위주였는데 크레파스, 색종이, 가위 같은 흔한 도구도 그곳 아이들에게는 흔치 않은 것이어서 미술 수업은 열렬한 호응을 얻었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진창이던 색종이 모자이크 실력도 봉사활동이 진행되면서 늘어서 나중에는 큰 나무를 형상화 한 작품까지 완성하였습니다. 참 뿌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육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크게 깨달았습니다.

FGAE는 Family Guidance Association of Ethiopia의 약자인데, 한국의 NPO와 함께 에이즈예방사업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주중엔 텔라사라사 유치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주말 토요일엔 FGAE 유쓰센터에서 에티오피아 청년들과 문화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알리는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함께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밝고 열의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며 에티오피아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에티오피아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경제적 사회적으로 발전하길 바란다며 응원해주자 몹시 반기며 페이스북 친구를 하자고 하여 흔쾌히 친구를 맺었습니다. 오후에 문화교류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한 단소, 태권도, 부채춤, K-pop댄스를 선보였습니다. 문화교류 프로그램은 일요일에 나자렛 마을 현지 주민들과도 함께 했는데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Quick(빠른)은 한국인을 표현하는 말 중에 이보다 딱 들어맞는 말을 찾기 쉽지 않을 정도로 한국인을 잘 표현한 말 같습니다. 저 또한 자신을 뒤돌아 보고 주변을 챙길 여유조차 없이 시간에 쫓겨 사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시 한국을 떠나 에티오피아에서 봉사활동을 하면서 조금중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고 자신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 개인적으로 의미있었습니다.

Zeal(열정)없는 청년의 삶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서 봉사와 나눔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기고, 이를 위해 저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강한 삶의 열정이 되살아난 것 같아 의미있고 보람있었던 기간이었습니다.

”



진정한 행복을 찾아 떠난 봉사활동

임진희

“ 6월 간의 텔라사라사에서의 봉사는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주었습니다. 크고 반짝거리는 눈에서는 사랑을 갈망하는 듯한 묘한 빛이 느껴졌고 먼저 내미는 손에서는 거칠지만 따스한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살람노’ 하고 인사하면 그 누구 하나 쩡그리는 아이나 무시하는 아이 없이 손을 흔들여주고 웃어주며, ‘차오’하고 인사하면 달려와서 볼에 입을 가져다 대며 안아주는 아이들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었는가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제가 그 아이들에게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자렛에서의 생활은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기회와 꿈을 심어준 것 같습니다. 진정한 봉사과 사랑, 감사, 배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었고 내가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나자렛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며 한국에서 더 열심히 살아가야 할 것임을 다짐해봅니다.
모두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우달루!

”

“ 꿈만 같던 에티오피아에서의 13일이 끝났습니다. 처음엔 우선 기대보단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과연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인데 위험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되면서 부담도 됐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기대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된 텔라사에서 아이들과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현지 선생님들이 저희를 너무나 반겨줬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큰 환영에 저는 어쩔 줄을 몰랐고 더 준비를 많이 해오지 못한 것이 후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그 아이들과 생활을 하면서, **이 아이들도 우리와 많이 다르지 않구나.** 단지 교육의 기회가 훨씬 적게 주어질 뿐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이 아이들이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의 아이만이 아니고 그냥 ‘우리의 아이들’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단지 이 나라가 못 살아가서 아니고 잘사는 나라들의 뒤처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생각과, 사회구조적으로 못 살 수 밖에 없는 아이들이 존재한다는 생각에 슬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누리는 모든 것이, 단지 우리가 잘나서 아니고,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 졌다는 사실을 깨닫고, 또 느꼈습니다. 정치외교학과로서, 정치를 하고 싶은 저로서는 이러한 사실이 좀 더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진심으로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고, 단기적인 봉사가 아니라, 나아가서 더 많은 도움을 이 아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주고 싶다고 생각 했습니다. 다행히도 저와 같은 생각을 저희 팀 대부분이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나 이들을 도와 줄 활동들을 계속 하자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번 봉사에서 같은 팀원들에게 너무나도 많이 배웠습니다. 한 팀원에게는 존중과 예의를, 다른 팀원에게는 열정을, 신념을, 또 다른 팀원에게는 인내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인생을 배웠습니다.

저는 훗날 제 인생에서 이 경험이 가장 큰 터닝 포인트 중 하나 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꿈만 같던 13일을 주신 모두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책임

조아인



”

에티오피아가 자꾸만 나를 부른다 먼 미래에 언젠가 에티오피아에서 무슨 일인가 하게 될 것 같은 강한 예감이 든다

정태웅



“ 열악한 초등학교, 아이들 한 명 한 명 옹기종기 모여 앉기에도 부족한 교실. 아이들은 흠바닥을 책상이자 의자 삼아 햇볕도 잘 들어오지 않는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올망졸망한 아이들이 그 큰 눈으로 신기한 외국인들을 올려다 볼 때면, 문득 스스로에게 이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지를 묻고 또 되물었지만 그 답은 언제나 미약한 것들이었고 그것이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그 아이들과 총 육일간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은, 제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해 주었다기 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에 대한 반성과, 이 아이들을 위해서 앞으로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과, 먼 미래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꼭 다시 이곳을 찾으리라는 결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종이의 다채로운 색깔에 신기하게 반응할 나이, 허얀 종이가 크레파스를 만나 알록달록한 색지로 바뀌는 것에 흥미를 느끼는 나이, 가위가 스쳐지나간 자리가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에 놀랄만한 나이, 그러나 아이들은 처음 만져보는 이런 신기한 문구용품들을 어떻게 사용해

야 하는지 몰라 어리둥절해 했고 우리 한국인 선생님들 역시 한 아이 한 아이 직접 그 사용법을 알려주며 문득 가슴 한 구석이 지리하게 저러움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문구 용품을 하나하나 닦아 가지런히 정리하면서, 손잡이가 벗겨진 크레파스를 일일이 골라내 종이로 손잡이를 다시 덮어 만들면서, 집에서 가지고 온 안 쓰는 문구용품, 아이들 놀이용품들을 한 상자 가득 모아 현지 학교에 전달하면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내내 바랐습니다. 비록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이런 미약한 것들에 불과하지만, 이것들로 인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꿈을 잃지 않고 어린 시절의 그 동심을 그대로 간직한 채 자라날 수 있다면 우리의 노력은 본디 제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이들이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일에, 색종이의 다채로운 색깔을 보고 생동감 넘치게 반응하는 일에, 가위를 자르고 풀로 붙이는 일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자기들이 보고 듣고 느끼는 세상 모두가 것처럼 아름다운 색깔로 알록달록해지기를, 밤마다 꾸는 꿈과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상상의 나래가 이십 사색 크레파스의 빨주노초파남보처럼 다채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커다란 눈망울로 **짜오, 짜오!(다시 만나요)**를 외치는 **아이들을 남겨놓고 돌아오는 그 길**, 왜 그렇게 자꾸만 눈시울이 시름해졌는지는 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영원히 내 기억 속에 자리 할 에티오피아

연혜진

“ 에티오피아에 있는 내내 저는 해외봉사를 하고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가 아이들에게 사랑을 더 많이 배워왔다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에 가기 전에 썼던 지원동기를 해외봉사기간 내내 잊지 말아야 겠다고 계속해서 생각했었습니다. 해외봉사 경험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번 봉사로 일차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진심이 느껴지고 사랑을 전해주고, 또 배워오고 싶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이번 해외봉사 경험은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쓰는 ‘암하리어’와 우리말이 달라 말은 잘 통하지 않아 대화를 하기는 힘들었지만, **우리는 눈빛으로 말하고 많은 말을 하는 대신 서로를 안아주고 뽀뽀해주는 것으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는 시간이 계속될수록, 저는 간단한 암하리어를 조금씩 외워갔고, 아이들에게 이름, 나이도 물어보면서 더 유쾌하기도 하고 말이 통한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암하리어를 하는 외국인이 어색한지 웃으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까르르 웃으면서 저를 더 안아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도, 대학생 자원봉사단원들도 모두가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서로 말은 잘 통하지 않아도, 몸으로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서로의 마음과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겪고나니, 감동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에 오면서 가슴이 벅차도록 에티오피아를 한가득 담은 것 같습니다. 에티오피아를 가슴에 품고 오면서, 저 자신이 한뼘 더 자란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저에게 에티오피아는 세상에서 가장 밝은 미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미소를 가진 사람들. 우리가 그들과 교환했던 눈빛,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살아간다면 더욱 삶이 깊어지리라 생각해 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전한 사랑

김민수



“ 저는 **Dellasa 학교를 잊을 수 없습니다.** 이곳 아이들은 우리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우리의 지위와 성별을 떠나, 나 자신, 우리팀원들 개개인의 존재 자체를 원하고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존재 자체만으로 이렇게 기뻐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기뻐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Dellasa 학교는 집안 사정이 좋지 않거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아이들을 보았다면 전혀 그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이들의 행동과 얼굴에서는 그 나이에 걸맞은 천진난만함과 순진무구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학교 수업이 끝나면 구굴하고 동냥하러 다시 거리로 돌아간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직 너무나도 어린 아이들이었기에, 한창 뛰어 놀 나이의 아이들이었기에, 한창 부모님께 칭얼댈 나이의 아이들이었기에 더욱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 그 아이들의 꿈과 희망을 되찾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 나이에 해야 할 생각과 꾀야 할 꿈들.. 그 때가 아니면 다시는 하지 못할 것들을 하게 해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그 아이들을 향해 웃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일뿐이었습니다. 비록 현재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아이들을 향해 웃어주고, 기도해주는 일들밖엔 없지만, 미래에 그곳에 다시 갈 때는 그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이번 봉사 활동을 통해 나의 삶의 목표를 다시 세울 수 있었고, 그 아이들을 통해 삶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서 받은 이 희망을 미래에 그 아이들에게 다시 돌려주고 싶습니다.

“

드디어 본격적으로 봉사를 시작하는 날 텔라사라사 학교 운동장을 꽉 채운 커다란 눈망울의 아이들과 만났습니다. 하얀가운을 입은 선생님의 지휘에 따라 크게 노래를 부르는 아이들. 조그맣고 앙상한 몸에서 어떻게 저렇게 큰 노랫소리가 나올 수 있는지 신기하고, 그 모습이 대견했는지 안쓰러웠는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에는 아이들 가정형편이 어렵고 고아인 아이들도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까워지기 힘들 지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내 손을 서로 잡겠다고 싸우는 아이, 뽀뽀세례를 퍼붓는 아이, 내가 알아듣지 못해도 암하리어로 끊임없이 말하는 아이, 인상 찌푸리고 있다가도 '살람노'하고 인사를 하면 활짝 웃으면서 화답하는 아이.. 참 순수하고 적극적인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6일을 보냈습니다. 정말 부족한 교육봉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고마워해주시고 환영해주셨던 선생님과 솔로몬의 순수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마지막날 눈물을 보이시면서 직접 만든 팔찌와 목걸이를 선물해주신 선생님들을 정말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준비를 잘해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하고 아쉬움이 남네요. 이번 해외봉사를 통해 만난 에티오피아, 텔라사라사와의 인연이 단발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만 보다가 FGAE에서 또래친구들을 보니까 외모가 조금 무서워 보이기도 했지만 먼저 말도 걸면서 친해지니까 아이들만큼이나 순수하고 착한 친구들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친해지고 싶었지만 함께 한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고, 문화교류행사도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에티오피아와 에티오피아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춤을 잘 추는 것도 신기했고, 길가에 있는 조그만 커피숍에서도 엄청나게 맛있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우리의 짧았던 봉사활동이 현지에선 어떤 인상을 남겼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내가 준 것보다 받아온 것이 더 많아서 미안하면서도 고마움을 느끼게 되네요. 알록달록하게 바뀐 텔라사라사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니까 다시 에티오피아에 너무 가고 싶어집니다.

”

그림고 그리운 에티오피아

윤예숙



내 가슴 속의 찬란한 에티오피아

정경아

“ 제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한 감사함, 편안한 환경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준 아산재단에 대한 감사함, 낯선 상황에서도 아프지 않고 씩씩하게 잘 활동해 주는 팀원들에 대한 감사함. 에티오피아에 있는 동안 모든 일에 감사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봉사하면서 이렇게 호화스럽게 지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숙소에는 따뜻한 물도 잘 나왔고 잠자리도 편안했습니다.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매 순간마다 제대로 먹지 못해 굶고 있는 아이들에게,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흙바닥을 거니는 아이들에게, 옷이 다 터져 너털너털해진 누더기 옷을 입고 있는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크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 해외 봉사는 제가 이제껏 해외여행을 하며 얻었던 견문, 미국에서 외국 학생들과 공부하며 얻었던 경험과는 차원이 다른, 현재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회가 닿는 한 앞으로도 꾸준히 해외봉사를 할 생각이요, 굳이 해외봉사가 아니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웃어주고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고통 받고 있을 다른 누군가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작이 되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전과 다르게 훨씬 폭넓어 질 수 있도록 도와준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활동은 제게 소중한 경험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가슴으로 얻었던 교훈,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 아이들의 선한 눈망울. 죽을 때까지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살아갈 것 입니다. 델라사 학교의 선생님들처럼 저 또한 세상에 조금이나마 변화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끊임없이 각성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살람노!

오유미

“ 면접을 보면서 백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대외활동 경험은 처음이지만 제가 생각해왔던 봉사와 현실에 주어진 봉사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팀원들과도 제가 아닌 꾸며지거나 가식적인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함께 생활하고 활동을 해나가면서 본 팀원들의 모습은 제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서로에게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그동안의 저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팀원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도 나만의 벽을 세워놓고 절대 그 벽을 넘지 않으려 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에 있어서 좋은 사람, 싫은 사람의 구분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성격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좋은 일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2주간의 봉사기간에 한 마디도 말해보지 않은 팀원 또한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만의 한계이고 문제였습니다. 쉽게 변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야 아쉬움을 느꼈고, 제가 가지고 있던 그 한계를 뛰어 넘고 싶습니다.

일상으로 돌아 온 지금 서로 바쁘고, 자신의 일이 먼 저이기에 한 번의 만나기조차도 어렵지만 팀원들과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느꼈던 소중한 교훈들을 오랫동안 간직하고 싶습니다. 봉사란 남을 위한 그 시간 속에서 더 큰 배움과 사랑이 내게로 돌아오는 일임을 잊지 않고 앞으로도 제 삶에서 봉사를 계속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에티오피아, 그 아름다운 이름

김은비

“ **에티오피아, 인연** 무엇보다도 인연이라는 말에 가장 어울리는 이는 바로 우리 에티오피아 해외봉사 티오피 단원들입니다. 각자 다른 학교 다른 지역에 살던 우리가 모여 교육봉사를 계획하고 문화봉사를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나이를 뛰어넘어 가족처럼 어울릴 수 있었던 것은 봉사를 통해 만났다는 것이 큰 몫을 차지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는 우리. 하지만 우리는 봉사를 통해 만났고 서로에게 큰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억. 에티오피아는 저에게 많은 추억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커피를 마실 때면 에티오피아 커피가 생각이 나고, 지나다니는 많은 어린아이들을 볼 때마다 델라사 초등학교의 눈이 커다란 그 아이들이 생각 나겠지요. 우리 모두가 입을 모아 말했듯 우리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그 아이들에게 큰 가르침을 전해주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그 아이들이 큰 뒤에도 우리를 생각할 때는 따뜻함으로 남아있기를 그래서 우리를 또, 한국을 추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아이들을 통해 직접 배울 수 있었고, 그곳의 아이들은 나의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렇게나 환대를 받는다는 것, 나에게는 다시 오지 않을 경험 중에 하나로 남을 정도로 아이들은 나에게 무조건적인 신뢰와 사랑을 보내왔고, 국가와 나이 언어 인종을 다 떠나 나는 그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친구가 된 경험을 했습니다. 살면서 분명 그리울 것 같습니다. 헤어질 때 우리 모두가 흘린 눈물처럼 슬프지만 아름답고, 아쉽지만 소중한 경험으로 남겠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또 헤어질 때 그 때의 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짧은 에티오피아의 추억도 절대로 짧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듀, 에티오피아 잊지 않을게. 언젠가 또 보자 꼭.

”

에티오피아에서 꿈을 마시다

정혜미



“ 그런 다짐은 실패할 수 밖에 없어. 이 종이 한 장으로 저의 모든 느낌과 마음을 적어 낼 수 있을까요? 출발하는 비행기 안에서 내내 딱 두 가지를 다짐했습니다. 정들면 너무 아프고 떼기 힘들니.. 정들지 않을 것이라고...

너무 많은 것을 느껴보고 싶은 욕심부터 내는 저라서, (봉사의 목적에 맞게) 받는 것보다 주고 오는 것이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그들의 큰 눈망울에서 한줄기가 흐르던 모습이, 꼭 안아주던 따뜻한 가슴이 일주일이 흐른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저 “행복”했습니다.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값진 것을 주심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하지 못함에 정말 “죄송”합니다. 저의 다짐은 실패했습니다. 헤어짐에 대한 슬픔을 이기지도, 주고 오는 것이 더 많은 사람도 되지 못했습니다. 헤어짐이 너무 슬펐고 너무 많은 것을 받아오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오만과편견. 저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던 것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었고 그저 함께 뛰어 노는 것이 그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으로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진정 부끄러운 것이 무엇인지, 당당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고 이 곳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작은 색종이 한 장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 눈만 마주쳐도 웃을 줄 아는 아이들.** 그곳은 패배한 곳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다시금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일어서는 에티오피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선가능해. 우주만큼 큰 꿈을 꾀봐. 밤 하늘에 박힌 별 율끔, 어느 하늘보다도 푸르고 따뜻해 보였던 에티오피아의 낮 하늘, 더 큰 꿈을 꾸게 해 주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하늘을 보며 새로이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회인으로서, 한 일원으로서 나아가야 할 시간이라고. 지금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한 컷의 사진처럼 지나가는 에티오피아의 진품 풍경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랑합니다. 에티오피아에서 배운 것들과 사랑을 꼭 돌려주는 날이 있을 거라고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꿈을 꾸라고 값진 경험을 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금 수고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드리고 행복한 추억을 함께한 팀원들과 에티오피아의 하늘, 땅, 아이들.. 모든 것에 감사 드립니다.

Ethiopia

문화탐방

시끌벅적하고 많은 사람으로
붐볐던 도심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



에티오피아에서 여유를 만끽하다, Bobogaya lake

2012년 2월 23일, 열흘 동안 묵었던 Nazareth 타운의 Ras호텔을 떠나 1시간여를 달려 도착한곳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크고! 가장 깨끗한! Bobogaya 호수였습니다. 시끌벅적하고 많은 사람으로 붐볐던 도심지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르게 여유를 느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짧은 기간 동안의 봉사활동으로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일정을 잘 마무리하기 위한 최고의 휴양지였습니다.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레스토랑에서 근사한 점심식사도 하고, 화창한 날씨에 딱 어울리는 리조트에서 추억으로 남을 사진도 찍고, 호수에서 카약을 타기도 하며, 그 동안 느끼기 힘들었던 여유로운 분위기를 느끼다보니 마음 한 켠이 따스해지는 것 같아 참 좋았습니다.





아디스아바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 Entoto Mountain

2012년 2월 24일. 에티오피아에서의 마지막 아침. 팀원 모두는 마지막 추억을 만들기 위해 분주히 움직여 아디스아바바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다는 Entoto언덕을 올랐습니다. 오르던 중 땀감을 등에 매고 나르는 여성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언덕 정상에서 본 풍경은 고원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 교회와 왕이 머물렀던 궁전도 있었고, 에티오피아 국립박물관도 있어 왕이 입었던 옷과 직접 사용했던 물건들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을 끝내고 조용해진 주변을 둘러보니 교회 밖에서까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TOMOCA, 에티오피아 커피 이야기

에티오피아를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들른 곳은 토모카 커피집.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우리는 매 끼니 후 커피를 마셨고, 그 독특한 향과 맛을 잊지 않기 위해 모든 팀원은 한 아름씩 커피를 담아왔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틀 간 티오피 팀의 문화탐방은 끝남과 동시에 에티오피아 티오피 팀의 공식 활동도 종료되었습니다. 문화탐방은 봉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각하고 정리 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고 팀원들과의 정이 더 끈끈해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에티오피아에서 2주간의 봉사과 문화탐방의 추억은 팀원 모두 인생을 살아 가는데 있어서 마음 속 에 영원히 기억될 정말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최진경(인솔자) - 일진출발, 까방 최진경

항상 편안한 미소로 팀원들을 인도해주는 인솔자님. 일부 단원은 인솔자님의 고매한 인품 뒤에 숨은 결점을 찾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도저히 낄 것이 없다는 것이 결론. 팀원들을 하나하나 다스리기보단 팀원들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주는 바람에 팀원 스스로 잘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신개념 리더십을 선보이심. 틈날 때 마다 깨알 개그로 즐거움 또한 선사해주신 티오피아의 선장님!



연혜진 - 남자킬러, 여자 김대범, 덧니귀요미

순진무구한 얼굴을 지닌 그녀. 그 얼굴로 그녀는 팀 내 모든 남자단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게다가 씩씩하게 잘 웃고, 술선수범하는 태도로 언니, 동생들의 사랑마저 휩쓸어가 버렸다. 남자 단원들을 마음을 싱숭생숭 흔들어 놓은 그녀는 팜파르탈!



민은별 - 네이티브 스피커, 스무쉬만노?! 스페셜밀리터리 의 여자

미친 존재감의 '막내'. 그녀가 보여준 봉사활동지로 향하는 붐고 차안에서의 열정의 댄스는 한동안 잊지 못할 듯하다. 항상 적극적이고 활발한 그녀는 따스한 성격 또한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힘든 일 앞에서 웃음을 보이고, 다른 팀원들을 격려할 줄 아는 그녀는 진정 우리 팀의 박카스.



오유미 - 나는 셀카다, 셀카여신, 사진은 셀프입니다, 국민언니

미대생으로 벽화 봉사에도 현학한 공로를 세운 그녀 때론 엉뚱하지만 그것조차 매력으로 만들어 버리는 신비한 능력자. 사진 실력도 수준급. 그러나 완벽해 보이는 그에게도 치명적 단점이 있었으니, 바로 폭풍 셀카 덕분에 셀카 기법을 전수 받은 팀원들이 생겼다능.



김은비 - 분위기 메이커, 은비효과, 쓸라씨

팀 내의 명실상부한 분위기 메이커! 깔깔 웃는 모습으로 보는 이들에게 모두 웃게 만들어 버리는 활력소이다. 활발하고 적극적인 그녀가 날리는 유머 중 대표는 '콩트'. 그녀는 각종 콩트로 넘치는 재치와 유머뿐 아니라 교육스팀 책임자로서 각종 돌발 상황에도 의연하게 잘 대응 할 줄 아는 일꾼.



조현아 - 조티브 잡스 현아 미쓰 조

에티오피아 현지 봉사자들을 상대로 'KOREA'를 소개 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하였다. 그녀는 스티브 잡스를 연상 시킬 만큼 팬타스틱한 프리젠테이션 덕분에 현지인들이 '언빌리버블'을 연발하게 만들 정도로 호평을 받았다. 처음엔 시끄러지만 불수목 매력 넘치는 불매 조현아!



정혜미 - 신들린 골반, 댄싱머신, 부산여자

강한 부산사투리 덕분에(?) 다가가기 힘든 그녀. 그러나 알면 알수록 거부할 수 없는 새로운 매력이 통통 튀다. 자신에게 분담된 일은 완벽하게 처리해버리는 능력자이며, 한류 댄스 출 때는 '골반에 신이 스틸너. 평을 받을 정도로, '신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 남자단원의 마음을 훔친



임진희 - 지니지니 걸걸한 보이스

막내답지 않은 의젓함과 속 깊음으로 다양한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냈다. 항상 밝은 표정으로 현지 자원 봉사자들과 아이들을 생각하며 하나라도 더 전해주고자 고심하고 또 고심하는 그녀. 거기에 위트와 재치도 겸비한 그녀는 티오피아의 대표 귀요미 막내!



윤예숙 - 예숙아씨, 단아예숙, 공대예숙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봉사활동에 임한 그녀. 예쁜 미모를 가진 그녀의 눈웃음은 에티오피아의 땀별에 지친 남자 단원들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또한 입술이 튼 단원에게 립밤을 챙겨 주는 등 얼굴만큼 마음씨도 고운 그녀. 늘 웃고 다니는 그녀의 미소는 가히 '에티오피아의 미소'로 명명 될 만하다.



정경아 - 해외파, 정통역, MC정

미국 해외파 출신으로 영어 통역 역할 등을 잘 수행 해낸 그녀. 무리에 끼지 못하고 길도는 아이들을 모아 같이 춤을 추며 웃는 모습을 보여준 그녀의 모습에선 소외된 친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이 느껴졌다. 익살스런 사진으로 팀의 사기를 충전시키기도 한 매력력



우리의 열정과 너희들의 희망이 만난 시간
“잊지 못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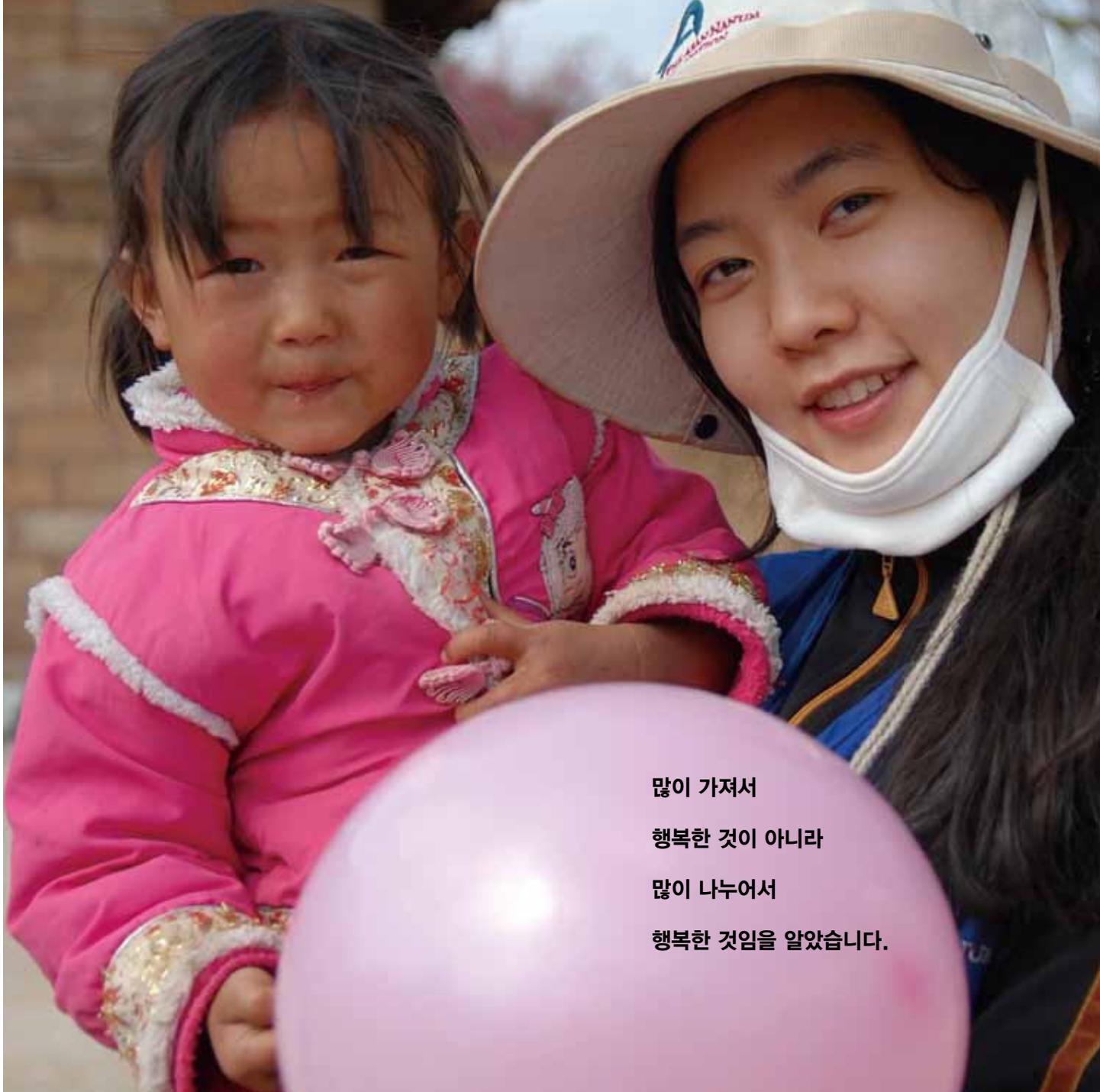
1	2
3	4
5	6

- 1 누가누가 예쁘가~
- 2 손 안 씻으면 우리가 잡아간다!
- 3 우리 우아하죠~
- 4 신나게 비누방울 놀이
- 5 우리 왕관 썼어요~
- 6 한국 땅을 다시 봤다



지존
 여섯사람
 크라운과 함께하는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1기
 ETHIOPIA KOREA

China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나누어서
행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일정표

0213 1일차	출국 / 중국 곤명 도착 / 현지 코디네이터분과 만남, 간단한 회의 후 취침
0214 2일차	묘족마을로 출발 / 묘족마을 도착 후 노력봉사 시작 /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15 3일차	교육 프로그램 · 한글교육-이름표 만들기 · 종이접기 노력봉사 · 샤워실 신축 · 벽돌 나르기 의료봉사 · 마을 사람들 진료 후 약 전달 · 부인과 교육 실시 문화교류 · 현지 환영식 및 답가 (합창공연)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16 4일차	교육 프로그램 · 위생교육 실시 노력봉사 · 샤워실 신축 · 언덕길 평탄화 작업 문화교류 · 민속놀이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17 5일차	교육 프로그램 · 그림그리기 (도화지, 사포) 노력봉사 · 샤워실 신축 · 벽돌 나르기 문화교류 · 각 가정 방문 (고구마와 감자 구워먹기, 담소)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18 6일차	교육 프로그램 · 과학교육(미니 화산모형 만들기, 풍선 헬리콥터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노력봉사 · 언덕길 평탄화 작업 · 샤워실 신축 문화교류 · 미니 운동회 · 쿠폰 바자회 성황리 개최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19 7일차	교육 프로그램 · 수학교육 (칠교놀이) 노력봉사 · 샤워실 신축 마무리 공사 문화교류 · 페이스페인팅 놀이 · 한국음식 대접 · K-POP공연, 태권도 공연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20 8일차	송별회 및 사진촬영 후 이동 / 안닝 온천 / 용수골 숙소 도착 /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21 9일차	텐츠 갈매기 관람 후 / 운남성 민속촌으로 이동 / 민속촌 관람 후 Metro 마트 방문 /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22 10일차	대리로 이동 출발 / 고성 내 시장 및 문화체험 / 자유시간 /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23 11일차	고성 2일째 / 열하이, 유람선, 진사도, 천경각 관람 / 곤명으로 출발 / 용수골 숙소 도착 후 개인정비 시간 취침 전 결과 보고 회의
0224 12일차	최종 정리 후 Kunming공항으로 이동 박선생님과 작별 / 입국

사전모임 및 봉사활동 내용

문화공연을 준비하다 + 짧은 준비기간이었지만 저희는 최고의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사전모임을 가졌습니다. 제일먼저 태권도 공연팀의 사전 준비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게 품새를 익히고 연습했지만, 어느새 서로 신이 나서 노래를 틀어놓고 태권도 댄스를 추었습니다. 태권도 댄스를 익히고 난 후에는 격과 시범을 준비하였습니다. 태권도 공연 팀원 다섯 명 중 누구도 제대로 태권도를 배워 본 적은 없지만 중국에 가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하겠다는 일념을 가지도 열심히 격과 시범 스토리를 짜고, 송관을 깨보며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인 팀은 K-Pop 공연팀입니다. 우리 K-Pop 공연팀은 팀장인 막내 꽃잎이의 주도로 일사천리로 연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시크릿의 '사이보이' 공연입니다. 시크릿보다 더 감쪽한 우리 7명의 팀원들은 계속 반복해서 영상을 보고, 더 잘 출 수 있게 춤을 변형하기도 하면서 열심히 연습하였습니다. 비록 처음 시작은 힘들었지만, 다 같이 연습한 덕에 금세 몸에 익었습니다. 나중에는 서로 즐기면서 준비하는 저희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화공연 팀은 엄정화의 '페스티벌'에 맞춰서 추는 멋진 우리 팀원 세명입니다. 홍일점 꽃잎이를 선두로 최원식 팀원, 김재경 팀원의 상큼한 댄스는 저희를 열광시키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비록 준비기간은 짧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였고, 설레는 마음으로 출국을 준비하였습니다.

드디어 모두 모이다 + 저희는 총 두 번의 사전 준비 애틀을 가졌습니다. 첫 번째 애틀은 서대문구의 바비엔 스위트 호텔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다 함께 장소 보고, 한데 모여서 장장 세 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략적인 계획표를 완성하고, 팀별로 세부적인 내용을 완성하였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드디어 출국 전날이 되었습니다. 모바일 메신저로 울망졸망 이야기만 하던 저희들은 한껏 들떠서 몸보다 더 큰 기쁨을 메고 정주영 창업 캠퍼스에 모였습니다. 지치지 않는 폭풍 에너지로 가기 전날까지 회의와 연습을 반복하고 저희는 드디어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중국팀 대표 프로그램

알록달록 풍선을 만들어보자!

풍선교육 진행

묘족마을에 처음 들어간 날, 아이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한글교육을 진행 한 뒤에 풍선놀이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랑 어른들이 많이 오셨기 때문에 풍선을 일일이 부는 건 어렵다고 판단하여 한글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저를 포함한 몇 명의 팀원들과 함께 요술풍선을 미리 불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서 꽃을 단 왕관을 미리 만들어서 수업에 들어가면서 아이들과 어르신들께 하나씩 씌워드렸습니다. 그러자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인 칼을 만들기 위해 각각 풍선을 하나씩 나누어주고 제가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차례차례 따라했는데 생각보다 다들 너무 잘 따라 해서 놀랐습니다. 아이들은 칼을 만들어 주자 신이 나서 팀원들과 함께 칼싸움을 하러 밖으로 나가고 나서 남은 교육을 어른들 위주로 진행하였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 꼬마까지 교육을 잘 따라 주었고 풍선놀이에 크게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나 아주머니들이 너무 잘하셔서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준비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풍선교육의 핵심인 강아지를 만들었는데 중간 중간 풍선을 터뜨리는 분들도 있어서 까르르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풍선 하나 터지는 거에도 해맑게 웃으시는 모습에 살짝 긴장했던 저도 긴장을 풀고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강아지를 만들어 주자 명명 소리를 내면서 잘 가지고 노는 것 같아 흐뭇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도 풍선교육에 참가하셨는데 부끄러워하시면서 하나씩 따라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셨습니다. 계속해서 꽃 왕관을 다시 함께 만들고 달팽이 만들기를 마지막으로 풍선교육을 완료했습니다.

느낀점

사실 풍선 교육을 준비하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좋아해 주실지 걱정했는데 걱정과는 달리 너무 좋아해 주셔서 묘족 마을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교육 진행시에도 팀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여 교육 시간 내내 옆에서 도와주고, 아이들과 풍선으로 함께 놀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묘족마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팀원들도 동심으로 돌아간 것처럼 머리에는 왕관을 쓰고, 손에는 풍선 칼을 들고 아이들과 하나 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팀원들도 풍선 만들기의 달인이 되어 너나나 할 거 없이 아이들이 원할 때 만들어 줄 수 있어서 팀원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아니었나 하고 생각해 봅니다. 풍선교육이 끝나고 우리가 묘족마을을 나갈 때까지 마을 어디에서나 풍선을 볼 수 있었는데, 마을 분들 집에 놀러 가면 천장에 강아지며 왕관들이 줄줄이 매달려 있는 걸 보고나니 기쁘기도 했지만 좀 더 다양한 풍선아트를 배워서 알려드렸더라면 훨씬 더 즐거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아쉬움도 컸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에게 작은 풍선이지만 우리들과 함께한 즐거운 추억을 선물해 줄 수 있어서 행복했고, 우리 팀원들과도 풍선 하나로 더 가까워지고 우리들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봉사를 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낍니다.



중국팀 대표 프로그램

이름표 만들기, 동요 부르기



준비

교육 프로그램을 짤 때, 우리나라에 대한 문화교육의 일환으로 한글교육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 높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하게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아이들이 대부분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생활하고, 아주 어린 아이들만 남기 때문에 이론적인 수업보다는 활동 위주의 수업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이름표 만들기, 두 번째 활동은 동요 부르기로 기획하였습니다. 한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준비하였고, 이름표 만들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울동과 함께 따라 부를 수 있는 동요 '머리어깨무릎'을 선정하였습니다.

열정이 가득했던 수업시간

2012년 2월 14일 화요일, 묘족 마을에 도착한 날, 맨 처음으로 한글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실로 쓸 공간이 생각보다 좁았고 책상도 없어서 처음에는 우왕좌왕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교육을 준비하는 팀원들 빼고는 모두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어서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우리 활동에 대해 설명을 하고, 기자재를 나눠주었더니 모두들 열심히 참여해 주었습니다. 직접 써보면서 한글을 접하게 하려 했는데, 한자로도 자신의 이름을 쓰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도 있어서 어른들이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크레파스, 색종이로 꾸미는 시간에는 많이 접해 보지 못해서인지 가위나 풀을 서툴게 다루었지만, 열정만큼은 대단했습니다. 이때 팀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거의 일대일로 열심히 지도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머리어깨무릎' 동요 부르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동요에 나오는 단어를 중국어와 비교하여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울동과 함께 앞에서 시범을 보이고 따라하게 했더니 매우 즐거워했습니다. 금방 우리말 단어도 습득하는 것 같았습니다. 팀원들이 점점 노래 속도를 높이니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재밌어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습니다.

한글교육이 우리에게 준 것

이 짧은 교육으로 한글에 대한 지식을 많이 전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기획했던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봉사단에 대한 관심을 많이 높인 것 같고, 목에 건 한글 이름표를 보고 우리가 묘족마을 사람들의 이름을 자주 불러줄 수 있게 되어 친근감 형성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조금은 어색했던 분위기가 동요를 함께 부르며 자연스럽게 깨진 것 같아 좋았습니다. 한글교육은 묘족마을 사람들과 우리 사이의 벽을 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책상도 없는 불편한 자리에서 열심히 도와주고 열심히 참여해준 팀원들과 묘족마을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배움이 있는 봉사

박꽃잎



“ **곤명, 봉사활동 시작!** 우리 팀 20명은 중국 곤명지방의 묘족마을에 다녀왔다. 우리의 활동은 크게 교육봉사, 노력봉사, 문화교류로 구분되어 있다. 교육봉사는 현지 사람들과 함께 과학실험, 풍선놀이, 위생교육, 수학놀이, 종이접기 등을 함께하는 활동이었다. 주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활동이었는데 한국의 아이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활발하고 진지하게 참여해 준 아이들이 아직도 고맙다. 노력봉사는 마을에 화장실과 샤워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돕는 활동이었다.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부분은 현지 기술자 분들이 해 주시고 우리는 옆에서 열심히 거들었다. 남자대원들이 주로 고생을 했지만 모두의 힘을 보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준 부분인 것 같아 뿌듯했다. 문화교류는 식문화체험, 문화공연을 준비해갔다. 우리의 음식과 음악, 태권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바다 건너 나라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마을과 함께한 하루 24시간, 1주일 자체가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었던 시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우리가 물건을 준비해 갔던 바자회와 현지 의사선생님을 섭외해서 이루어졌던 의료봉사도 현지 주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으로 신나게 마칠 수 있었다.

봉사 그리고 배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기 위해 여러 고민들을 했었다. 과연 우리가 하는 이런 활동들이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진정 이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의 경제적 수준이나 위생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럼 과연 그것들을 모두 가진 우리는 행복한가? 이 외에도 많은 고민을 했지만 당연히 그 어떤 것의 정답도 찾지 못했다. 아마 앞으로도 찾지 못할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해 진 것은 인생은 수많은 질문들의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고민의 시간들이 우리 자신과 세상을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13일간의 짧은 시간을 통해 평생 잊지 못할 깨달음을 얻은 기분이다.



2012년, 7일간의 기적

문하영

“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가장 큰 의미가 있었던 것은 중국에 대한 제 생각의 변화였습니다. 저는 중국을 제2의 고향으로 생활할 정도로 친근하고 익숙합니다. 그만큼 중국인들의 사상, 문화에 대해 잘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봉사하러 갔던 곤명지역의 묘족마을. 현지 사람들의 거처, 화장실, 사람들의 위생상태 등 모든 것이 그야말로 원시적이었습니다.** 이제껏 저는 그것은 소수민족의 문화이기 에 보존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들과 같이 생활하고 봉사하면서 그것은 문화가 아닌 무지로 비롯된 것이며, 그로 인해 그들은 극한의 불편을 겪고 있으면서도 계몽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과연 무엇을 해줄 수 있을지, 무엇을 해주어야 할지 고민하며, 저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공유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길 바라며 화장실과 샤워장을 만들어주고, 여러가지 교육들을 하며 현지인들이 접하지 못해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려주어 현대인들의 생활방식과 사상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통역을 통해 얻은 것 또한, 이번 활동을 통해 제가 부팀장으로써의 활동뿐만 아니라, 통역으로써의 역할을 했다는 점이 제게는 뜻 깊은 경험이었습니다. 처음 중국이라는 국가로 결정이 났던 날부터 끊임없이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준비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중국어를 할 수 있는 학생이 저밖에 없었던 것만큼 부담도 많이 느꼈던게 사실이었고, 현지에서 통역으로 일하면서, '통역'이라는 것이 쉽지만은 아니라는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해외봉사의 모든 일정을 끝마칠 수 있도록, 팀원 전체와 현지 모든 사람과의 연결 다리로 일했다는 점이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추억이 되었고, 가슴 따뜻한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터닝포인트

“ **오지로 가다** 내가 할 수 있는 언어가 통하지 않는 나라에 가는 것, 또 그 나라에서 나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나를 기대감으로 차오르게 했다. 사실 내가 가진 많은 계획이자 꿈들 중 하나는 세계 곳곳을 도보 여행자의 마음으로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여러 나라를 가는 것이 나의 목표였고, 그 중 **중국**은 내 인생에서 **마지막으로 받을 디딜 나라라고 혼자서 정해놓곤 했었다.**

중국에 대한 선입견 타파 중국에 대해 내가 가진 선입견과 편견은 내가 봉사활동 파견지에 가는 순간까지도 나를 의심하게 만들었으나, 분명 무슨 뜻이 있어서 내가 이곳으로 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색안경을 집어 던진 순간, 나는 이 곳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나처럼 가진 것 없는 사람도 찾아 나서기만 한다면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걸어볼 수 있구나 하는 기쁨, 아직 나는 어떤 것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에 늦지 않았구나 하는 깨달음, 그리고 그것을 바꾸는 데 가장 큰 도움을 준 아산재단과 코피온, 중국의 묘족마을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이 나에게 더 도전하라고 격려를 해 주는 것 같아 앞으로도 열정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묘족과 공감(共感)하다

박진

“ **첫만남의 떨림을 느끼다** 처음으로 해외로 가는 비행기를 타는 기대감이 커서 마냥 신나는 마음으로 묘족마을에 도착하였는데, 생선 처음보는 흙집, 전통 옷, 쑥스러운 웃음에 홀려 저도 모르게 '니하오'를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우리보다 작지만 그분들께서 가지고 있는 따뜻함만은 이 세상보다 더 클 것 같습니다. 노을이 지면 대문이 있는 아무집이든 들어가서 고구마, 감자를 얻어 먹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있을까요. 자신들이 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이기만 하면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집으로 들이시던 그 따뜻함이 아직도 마음속에 머무는 듯 합니다.

성취의 보람을 느끼다 준비를 하는 과정부터 협동심, 친화력 하나로 뭉쳤던 저희 팀원들의 팀워크는 중국가서도 빛을 발하였습니다. 열악한 환경 때문에 준비한 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을때도 그 누구도 반발하거나 힘빠져 하지 않고, 같이 힘을 북돋아 주고 짜요짜요를 외쳤습니다. 그 격려와 긍정적인 사고 덕분에 저희는 다행히 준비했던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교육봉사 할 때, 그 누구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서로 도와주겠다고 나서던 모습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 좋아했던 위생교육, 신기해서 환호성을 외쳤던 과학교육, 숨겨진 재능을 발견 할 수 있었던 그리기 교육 등 정말 모든 교육봉사들이 너무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을 느끼다 이렇게 저희는 벅찬 마음을 안고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중국 묘족마을에 있는 것 같은 기분에 잠이 깨곤합니다. '내일 눈 뜨면 묘족마을 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잘 때마다 하고 있는 제 모습에 저도 놀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기회를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싶은 찡사우부, 똥강아지 아기들에게도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팀원들, 솔자님 사랑해요.

”





잊지 못할 기억, 묘족마을에서의 시간들

조송이

“ **함께 배우고 느끼면서** 저희는 다방면의 지식을 함께 나누며 더 흥미롭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자 여러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갔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지에 도착해서 마을주민들의 활동시간, 교육장소여건, 참여인원 수 등의 정확한 현지상황을 이해하고 보니 그날 그날의 일정을 다시 짜야할 만큼 유동적이었습니다. 이 같은 예상치 못했던 상황으로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에 마을 주민들이 참 열심히 참여해주셨습니다. 어린 자녀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며 진지하게 한글교육 수업을 받으시던 어른들의 모습들... 정성을 다해 색종이로 한글 이름표를 꾸미시던 아름다운 그 모습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제가 맡은 프로그램이었던 위생교육 때는 생각보다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는데, 물어보는 질문에 손을 높게 뻗어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하던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동자와,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제 손을 꼭 붙잡고 고맙다고 하시던 할머니의 그 웃음과 손길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번은 아이들이 수돗가에 모여서 위생교육 때 가르쳐준 대로 손을 씻고 있었는데, 그 예쁘고 순수한 마음에 감동으로 벅차오르던 기분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항상 웃으며 모든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 해 주시던 모습은 오히려 저희가 더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교육봉사 외에 저희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주민 분들과 함께했습니다. 하늘이 참 예뻐던 운동회 날,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져 서로 각자의 팀을 응원하고 매 경기 이길 때 마다 기뻐하던 아이들과 어른들의 그 동심어린 웃음을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져옵니다. 옷을 골라 입어보시고, 가방을 직접 매보며 좋아하던 어른들의 모습들, 우리가 해 준 한국음식을 옹기종기 한데 모여 맛있게 잘 먹던 아이들의 모습들, 우리를 환영하신다며 아름다운 전통의상을 입고 멋진 춤을 보여주시는 마을 분들, 그리고 페이스페인팅 때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직접 붓을 들고 팔에 꽃 그림을 그려주던 아이들의 그 예쁜 마음까지도 모두 잊지 않고 소중한 기억하겠습니다.

”

나눔의 동의어

- 희망

이세종

“ **순수한 미소** 중국 북경공항에서 8시간가량 하늘을 날고 땅을 달려 도착한 묘족마을은 아름다움 그 자체였습니다. 하늘과 맞닿아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고산지대에 위치한 묘족마을의 풍경은 한 폭의 그림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아름다움보다 우리 중국팀의 시선을 사로잡은 아름다움은 묘족마을 주민들의 순수한 미소였습니다. 처음 본 우리를 따스한 미소와 포용으로 반갑게 맞이 해주신 묘족주민들의 사랑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각박하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의 냄새는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깨를 조금이라도 부딪히면 인상을 찌푸리는 제가 묘족사람들의 삶과 삶을 맞대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반성의 기회이자 2주 동안 더욱더 성숙해지고 성장할 저의 모습을 기대하게 하였습니다.

소소한 나눔 우리는 샤워실의 신축을 도와주었고 부족하지만 직접 준비한 교육봉사와 문화교류를 통해 우리는 묘족주민들 조금 더 가까워 질 수 있었고 나아가 친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문명화된 우리가 그들의 삶에 해가 되었을까 걱정이 되었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조금마한 희망의 변화의 불씨를 줄 수 있다고 믿고 최선을 다해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헤어지면서 우리가 받았던 따뜻한 미소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선물한 소중한 사랑 그리고 타인대한 배려와 믿음은 우리가 준 물질적인 도움보다 값진 것**이며, 이 세상의 무엇보다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잊지 못할

‘아싸라비아!’

이진경

“ **할아버지의 종이접기** 묘족마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프로그램의 ‘종이접기교육’이었습니다. 종이접기 교육 때에는 마을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팀원 한 명당 마을 주민들을 2-3명씩을 옆에서 가르쳐 주어야 했습니다. 프로그램대상이 유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습니다. 제가 담당할 할아버지께서는 돛단배, 비행기, 개구리 등 하나하나 작품을 완성해 가실 때마다 기뻐하시며 손가락으로 ‘V’자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뻐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생업에만 몰두하여 살아오신 할아버지께서 사소한 종이접기에 놀라고 기뻐하시는 모습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씨에씨에 중국팀 우리의 계획대로 현지에서의 활동을 다 수행하진 못했지만, 한국에서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팀원 각자가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준 결과 성공적으로 봉사활동으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화기에애했던 중국팀! 늘 웃음을 잃지 않는 묘족마을 사람들 덕분에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게 되어 기쁘고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묘족마을 사람들을 떠올리면 어떤 일이든 인내하고 헤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사소한 것에도 감사함을 표현하는 묘족마을 사람들을 본받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를 갖게 되었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묘족마을 사람들과 함께 외치던 아싸라비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따뜻하게 기억될 중국 봉사활동

이새미

“

행복은 어디에 있나요? 실제로 묘족 마을에는 없는 것이 매우 많았습니다. 제대로 된 화장실도, 샤워실도 없고,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고, 시계도 없고, 먹을 것이 충분치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묘족 마을 사람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은 점점 지워져갔습니다. 처음에는 준비해 간 교육을 할 장소도 마땅치 않고, 모일 시간을 알려줘도 마을 분들이 어림짐작으로 아무 때나 오셔서 당황스러웠지만, 조금씩 그런 생활에 동화되어 간 것 같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시간과 장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불안했을 텐데 그곳에서는 그럴 이유가 없었습니다. **조급할 것 없이 순간순간을 즐기면 되고, 별을 구경할 여유도 있으니 오히려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연민 No, 친구 Yes 가진 것 없고, 비위생적으로 살 수 밖에 없는 그들을 처음에는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간 같이 지내다 보니, 그들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찾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묘족 마을 사람들은 늘 작은 것에도 웃고, 기쁨을 크게 느끼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주고 가는데 줄 것이 없다고 미안해 하셨고, 아무 집이나 들어가도 반갑게 맞아주시며 옥수수, 떡, 마 등 먹을 것을 건네주시기도 했습니다. 가장 예쁘고 좋은 선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들은 자꾸만 꽃을 꺾어 우리 머리에 꽂아 주었습니다.

Money = 행복? 많은 것이 주어졌다고 행복이 보장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묘족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마음 깊이 간직하고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또 이 경험을 계기로 좋은 인연을 맺게 된 사람들과 함께 계속해서 나눔을 실천하고 싶습니다. 중국으로 떠난 이번 해외봉사활동은 쿤밍의 봄 날씨처럼 언제나 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

때 묻지 않은 웃음과 별이 쏟아지던 묘족 마을

손윤태



“ 어린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저에게 5-6살 정도 되는 아이들이 먼저 다가와서 머리에 예쁜 꽃도 꽂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먼저 방긋 웃어주었고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 저도 차츰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글교육, 풍선놀이, 위생교육, 그리기교육, 과학교육, 칠교놀이, 민속놀이, 운동회, 바자회, 문화공연 등 우리가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마을주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고 덕분에 주민들과 더 많이 친해질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을 준비한 보람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간 수업들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준비한 것인데 막상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5-6살의 어린아이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다소 따라오기 힘들고 집중이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누구하나 지루해하거나 교실 밖을 나가지 않았습니 다. 또 휴식 시간에 색종이나 크레파스를 가지고 놀다가도 집에 돌아갈 때면 가지고 놀던 것을 모두 정리하고 제자리에 가지런히 놔두고 가는 모습이 너무 예뻐했습니다.

마을을 돌아다니다가 집 앞 마당에 계셨던 아주머니에게 “니하오~”라고 인사를 건네면 “니하오~”라고 답하시면서 내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는 찬장을 열어 이것저것 음식을 꺼내주시고 괜찮다는 손사래에 매우 아쉬워하시면서 끝까지 고구마 하나라도 손에 쥐어주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한 분들에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무리 봉사를 왔다고 해도 외부인이고 말까지 통하지 않는데도 먼저 이렇게 거리감 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모습이 아직도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값진 한 달의 반

최원식

“

봉사라는 이름이 아닌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한국을 나서며 봉사라는 이름으로 짧은 기간 무언가 물질적인 것을 만들어준다는 의미의 활동보다 현지인들에게 에너지 넘치고 활기찬 우리봉사단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넓히고 의식의 전환 및 열린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었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동화되는 소통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하고 싶었습니다.

피폐한 주거환경과 물이 부족하고 음식이 부족한 현지상황을 염두에 두고 묘족 마을을 방문하였는데 실제 현지의 모습은 가구당 TV를 한 대씩은 갖추고 있었으며 경운기라든가 소형트럭 등의 농기구들을 구비한 가구들 또한 심심찮게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번 봉사기간동안 우리와는 다소 다른 사고방식과 문화적 차이가 있는 현지주민들과 어울려 생활하면서 저 또한 많은 생각을 하였으며 다양한 것들을 보고 느끼고 또 배웠습니다. 저희 중국팀은 노력봉사 간 주민들과 함께 사위장 공사를 하였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기위해 빨리빨리 움직이고 서둘러 행동하는 우리 봉사단과는 다르게 여유롭게 일하시는 현지 주민들을 보면서** 바쁜 현대일상을 살아가는 제 스스로에 대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공사는 일정에 맞게 완공이 되었습니다.

탐방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던 문화탐방 비록 운남성에 국한되지만 문화탐방을 통해 제가 중국현지에서 몸소 피부로 느낀 중국이라는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으며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막연히 무시하던 견해가 있었는데 이번 봉사활동을 계기로 해서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 후에 대한민국의 엔지니어로서 중국을 반드시 다시 방문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국외에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맘을 흘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아산나눔재단에 감사 드리며 언제나 항상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



시작의 발걸음

김재경

“ **생각의 변화** 중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정말 다른 교통 문화가 조금 충격이었습니다. 기회만 되면 앞지르기를 행하고 조금만 방해된다고 싶으면 경적을 울리고 도로에서 후진에 역주행하는 차까지 상상초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들을 버리고 자세히 살펴보니 그들만의 규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그들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니 서서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중국에서 봉사활동을 하게 되니 좀 더 이해를 하면서 즐겁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를 따뜻하게 만든 묘족마을 처음에 묘족마을에 들어설 때는 이런 곳에서 살면 정말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 갈수록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점 때문에 빠르게 적응하고 편안함을 느끼게 했는지 궁금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묘족사람들의 여유로움을 몸으로 느끼면서였습니다. **말이 잘 통하지도 않는 우리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음식을 나눠주던 모습에 무척이나 따뜻한 정을 느꼈습니다.**

앞으로의 각오 처음으로 해외봉사활동을 하다 보니 많은 준비를 하지 못하였고 능숙하지 못한 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로 다음에는 더 많이 준비를 해서 더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언어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2주라는 시간이 정말 길 줄 알았지만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다음에는 중장기로 활동해서 현지주민들과 좀 더 많은 소통으로 그들에게 필요한 점들을 우리 기준에서가 아니라 그들 기준에 맞춰서 활동해보고 싶습니다.

배움의 또 다른 길, 해외봉사

송설화

“ 처음 묘족마을로 들어가던 날, 저는 그 전날 밤의 극심한 복통 때문에 덜컹거리는 차 안에서 그저 불편하고 울퉁불퉁한 중국 도로에 대한 불평만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고음으로 노래를 부르며 묘족마을 풍습대로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시는 모습을 보고는 불평이 한 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더군다나 부끄러움을 한껏 뽐낸 얼굴로 엄마 뒤에 숨어서 우리를 쳐다보고 있던 아이들의 눈빛은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만들어주며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게 되자 뭔가 아이들과 더 친근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고, 우리가 이름을 불러주자 아이들도 더 잘 따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위실 신축을 위해 노력봉사를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우리를 돕기 위해 같이 벽돌을 날라주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와 사랑기득한 중국팀! 처음 묘족마을에 들어가면서부터 현지 상황에 따라 변경되던 스케줄 때문에 혼란스럽고 복잡했을 법도 한데 팀원들끼리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더 뽐뽐뽐하며 너무 즐거운 봉사활동을 한 것 같아 뿌듯합니다. 저는 지금껏, 봉사는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활동을 통해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이 훨씬 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곳에서 느꼈던 가슴 따뜻한 정이나 우정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오히려 줄 게 없어서 미안하시다면 그분들의 고마운 마음과 아직까지도 여운이 가시지 않는 우리 중국팀원들과의 끈끈하고도 즐거웠던 기억은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생 간직할 감사한 추억이 될 것입니다. **12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함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던 잊지 못할 파스한 겨울이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이현수

“ **중국, 묘족과의 첫 만남** kuning공항에서 울퉁불퉁한 산 길을 세 시간 가량 달려 도착한 이곳은 한라산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한 묘족마을이었습니다. 묘족마을 사람들은 늘 약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수시로 약탈당했고, 핍박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손님이 오면 큰 사발의 술을 한잔씩 먹여 그들이 술에 취해 힘을 쓸 수 없도록 했다. 전통대로 우리 봉사단에게 사발에 음료를 한잔씩 주며 반겨주었습니다. 연고도 없는 우리를 이토록 성대하게 환영해 주는 마음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보답하여 더 많은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묘족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적 도움이 아니라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재능, 그러나 피울 수 없는 그리기 교육봉사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한 어머니께서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크레파스와 도화지를 이용한 그리기였을 뿐인데, 누가보아도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무에 표현된 잎사귀와 전등을 비춘 모습 등을 몽환적인 방법으로 묘사하였습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녀가 그리는 그림에 몰두하였습니다. 너무 궁금한 나머지 미술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기는 좋아 하는지 다시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정식 미술교육을 받았으면 지금쯤 유명한 화가가 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자신의 꿈과 재능은 고이 접어두고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것이 행복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주제 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좋아하는 것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레파스와 남은 도화지 몇 장을 건네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재능을 피우고,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현실이 묘족 마을에 찾아오길 희망합니다.

”



그들이 준 선물

이규영



“

설렘을 안고 찾아간 따뜻한 마을 우리가 찾은 그 곳은 곧명 시내에서도 한참 떨어져 있는 고산지대에 위치한 묘족마을이었습니다. 마을로 들어가는 우리를 환한 웃음으로 맞아주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때 묻지 않은 그들의 환한 미소가 저의 마음을 녹여주었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 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나눔을 실천하다 이번 봉사활동으로 봉사는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달았습니다. 봉사활동을 계획하는 것은 우리 팀원들이었지만, 하나되어 서로 마음을 나눌 때야 비로소 봉사라는 것도 아름답게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계기였습니다.

교육봉사는 변수가 많아 그 때 그 때 수정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나 어렵지는 않을까 혹시나 흥미를 잃지는 않을까 조마조마 했지만, 이끄는 대로 열심히 따라와 주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속에 짙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동봉사는 이름처럼 우리의 땀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완성된 샤워실과 화장실에서 편리하게 생활할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내가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지곤 했습니다.

문화공연은 그들과 우리가 더 깊게 나누고, 어우러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음악 속에서 하나되어 손에 손잡고, 어깨동무하고 춤을 추다 보니 언어는 다르지만 마음으로, 몸으로 함께 나누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내게 준 선물 그들과 함께 한 시간을 일주일밖에 안되지만, 그들과 함께 나누는 추억은 영원할 것입니다. 봉사를 통해 내가 준 것보다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인연, 때묻지 않은 웃음과 따뜻한 마음, 함께 나누는 정, 봉사를 통해 느낀 뿌듯함과 감동. 이 모든 것들이 그들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훗날 제 인생을 되돌아 볼 때 22살 겨울, 이 봉사활동은 제게 많은 것을 알려준, 의미있고 뜻 깊은 추억으로 기억 될 것입니다.

”

나눔으로 그리는 사랑

조성혜

“ 4계절 내내 봄이라 해서 지어진 곤명, 쿤밍이라는 곳에서 느꼈던 봄 기운이 근래 한국에서도 만연하네요. 너무나 고마운 경험이었고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무엇이 그 시간을 이렇게 마음 속에 자리잡게 했을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이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각박하고 초조한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질리고 상처받는 시점에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떠났지만 다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티비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제일 힘든 민족. 그래서 그 흠뻑이 부는 고원지대에 도망쳐 와서 사는 사람들. 아이들 무덤이 유독 많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일주일 방문을 한 우리 팀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여주고, 진행하면서 마음을 교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바자회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이 단정하고 깔끔한 물품으로 세탁을 하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고, 또는 물품을 사서 기부하기도 해서 아주 질 좋고 재미있는 바자회가 구성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바자회가 끝나고 남은 머리핀을 할머니들 머리에서 하나씩 꽃아 드리는데, 그 작은 머리핀으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그걸 좋아해 주신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 저는 제가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묘족마을분들과 우리 팀원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고, 그걸 넘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일상에서 지내다 보면 고장 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엑셀에 윤활제를 가득 칠해놓았으니 당분간 멘탈 걱정은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2주의 추억과 감정으로 20년을 풍족히 보낼 수 있고, 평생을 가지고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다시한번 이런 경험 할 수 있게 도움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중국에 다녀와서

박유정

“ **느낀 점** 평소 해외 아동 결연에 관심이 많아 신중하게 된 해외 봉사에서 그들이 사는 환경, 처해 있는 현실 등을 눈으로 직접 보고 겪으며 ‘현실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 자신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봉사 중국 묘족마을에서 지내며 느끼고 보는 여러 가지(위생 등..)들을 보며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600만원이 없어 백혈병을 치료하지 못하고 동네에서 뛰어 놀고 있던 어린 아이, 한 달에 4만원이란 돈이 없으면 학교를 가지 못하는 아이들 등의 현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소수민족의 전통성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이미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세계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것들은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화 탐방 경제, 군사 등에서 중국이란 나라를 빼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중국에 방문하여 조금이나마 중국 사람들과 부대끼고 그들의 음식을 먹고 그들의 문화를 체험하면서 **‘왜 중국이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는가’** **‘중국 시장은 이렇구나’**와 같은 질문들과 여러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또한 문화탐방의 기간 동안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면서..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시작된 스케줄 변동에서부터 거의 대부분이 계획대로 돌아가지 않았던 시간이었지만, 저희 20명의 팀원이 합심하여 준비해간 모든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문화탐방을 맡으면서 힘들고 자책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팀 그리고 이전의 봉사 팀들의 방문이 묘족마을에서 어떠한 것이라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면 정말 뿌듯할 것입니다.

”

”



세상 최고의 명품을 알다... 자신감!

노현종

“

아자봉 1기 아싸라비아~! 아자봉을 준비할 때 자기소개서부터 면접 최종발표까지의 설렘은 지금도 잊을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들과 무사히 2주 일정을 잘 소화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최고의 인성을 가진 중국팀 긴 시간도 필요 없었다. 또한 쿤밍에 도착해서 만나게 된 박 선생님은 자신감 넘치는 말투와 강력한 기를 지닌 분이셨다.

순수함의 얼굴들 마을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긴 줄로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마을 풍습이 외부인이 마을 출입 시 술을 한 사발 먹여 마을에 나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예방 차원이라고 말씀해주셨다. 숙소 주위로 한 명 두 명씩 모이기 시작하는 주민분들 “니 하오~”인사로 시작하는 아이들과 주민, **그 어떤 욕심도 없어 보이는, 순수하고 맑았던 그들의 미소를 어찌 잊을 수 있을까?** 돈으로도, 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순수 미소들 그립고 또 그리울 것 같다.

날이 갈수록 커지는 협력의 힘 샤워실 및 화장실 신축을 맡게 된 우리 팀. 노력봉사에 참여한 시간이 나를 비롯한 모두에게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몸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우리의 작은 노력 때문에 지역주민과 어린아이들에게 앞으로의 씻을 수 있는 샤워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뿌듯해하며 모두 적극 도와 드렸습니다.

열정을 모아 우리는 출국 전부터 태권도팀, 댄스 2팀, 합창곡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짧은 준비시간이었지만 공연 하나마다 터져 나오는 함성들을 듣자 더 자신감이 생겨 줄 수 있었습니다. 많은 공연을 하지 못해 아쉬웠지만, 같이 준비하며 연습하던 우리의 모습들은 서로의 마음속에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언제나 아쉬움은 함께. 모든 일정을 끝내고 작별 인사를 하며 떠날 때 잊을 수 없는 추억을 선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치관, 생각, 문화가 달랐던 우리 팀과 마을주민은 어느새 이별 눈물을 흘리는 정까지 나는 2주간의 짧은 시간, 최고의 팀원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신 현대아산나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소중한 사람들이 내게 남겨준 것들

이원각

“ **희상** 11박 12일이라는 대장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회상에 잠겼습니다. 처음의 각오, 꿈만 같았던 봉사활동, 중국을 알 수 있었던 문화탐방, 그리고 우리 단원들 등등 수많은 생각들이 주마등과 같이 제 머릿속을 지나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제 추억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니하오미아오(안녕 묘족) 곤명에 있는 산 끝자락에 사는 소수민족중의 하나인 묘족마을에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우리는 묘족마을에서 크게 3가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기, 풍선놀이, 종이접기, 위생교육, 한글교육, 과학실험, 수학교육, 민속놀이로 이루어진 교육봉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장신축공사를 한 노력봉사(노동봉사), 바자회와 요리, 페이스페인팅, 문화교류, 운동회를 했던 문화교류(문화 봉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봉사 모두 다 한명의 낙오자와 큰 부상자 없이 잘 해냈고, 모든 봉사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성황리에 모두 다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묘족마을 특유의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느린 삶의 패턴, 순수함, 친절 등에 매료되어서 꿈만 같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국 해외봉사를 마치며 활동을 통해 일이나 환경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이라는 걸 이번에 몸소 깨달았습니다. 잠시 아플 때도 있었지만 중국팀의 진심어린 걱정과 간호로 금방 치유하고 또 교육조장으로서 맡은 임무를 끝까지 잘 해낼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 아산나눔재단에 감사의 말씀 올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



더불어 사는 삶

손유은



“

첫만남 비행기를 갈아타고 차로 몇시간을 굽이진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 유난히 태양이 뜨겁게 느껴지던 그날을 기억합니다. 163cm밖에 되지 않는 내 키보다도 훨씬 작은 묘족인들은 중국 내에서도 항상 침략과 약탈을 당해온 약소민족입니다. 그들은 그래서인지 외부인들의 방문시 백주를 대접가득 따라주고 그것을 다 마셔야 마을에 들어오는것을 허용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 경계심 묘족마을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인사해도 반갑게 웃어줍니다. 길가던 아이는 우리를 보면 자기의 간식을 건넵니다. 이곳에는 우리가 가진 “경계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타인에 대한 의심을 배울 때 이곳에서는 타인에 대한 신뢰를 가르칩니다. 신뢰. 그것은 이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더불어 사는 삶”을 가능케 합니다.

의료봉사 : 나의 변화 저는 사실 이런 소수민족사회에 문명이 들어와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환경에 잘 적응하여 전통을 지키며 행복하게 살고 있다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 생각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의료봉사 보조를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다수가 온갖 질병에 노출되어 고통 받고 있었습니다. 순간 그것을 전통이라 생각하고 지켜야 한다고 여긴 제가 황당하게 느껴졌습니다.

백혈병에 걸린 아이의 엄마는 한화 1800만원이 없어서 아이가 하루종일 피를 쏟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이곳에서 1800만원이라는 돈은 평생을 일해도 모으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녀의 도와달라는 눈물에도 연락처를 남기고 가라는 말이 우리가 그녀와 그녀의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으면서 이들은 참는 것이 풍습이라고 여겨질수 있는것인가? 나는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려 노력하면서 이들에겐 그 노력조차 허용되지 않는 것이 이들의 전통이라 이름붙일 수 있는 걸까?”

사람들은 우리사회의 약자들은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여기면서, 다른 사회의 약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그들의 전통 운운하며 고민하곤 합니다. **지구촌 사회에서 우리 모두 더불어 살기 위해 그들을 생각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오늘 모든 문명을 누리고 사는 우리들의 의무가 아닐까요...**

”

China

문화탐방

각양각색의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

운남성 민속촌

운남성 민속촌은 각양각색의 소수민족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이곳에서 여러 소수민족들의 전통 춤도 배우고 놀이문화도 함께 즐기며 잊지 못할 추억들을 만들었습니다.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머리카락이 길었던 공연단원들, 당근을 좋아하는 코끼리, 거리낌 없이 모든 소수민족들과도 잘 어울리던 우리 팀원들 모두 아싸라비아!!

텐츠 갈매기

넓은 텐츠 호수에 겨울이면 때를 지어 몰려오는 갈매기들의 모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 머리위로 끼룩끼룩 날아다니는 수많은 텐츠 갈매기 떼들. 흰둥이, 점박이, 깜맹이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먹이를 보면 정신없이 달려드는 모습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준 갈매기들에게 다음 번 먹이로 새우깡을 기약하며...



아름다운 고성의 밤

성각 위에 올라가 내려다보면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는 고성에서의 밤은 흥미진진했습니다. 손짓, 발짓 다 해가며 기념품을 사는 우리 팀원들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고성의 야경도 눈부시게 멋있었고 고성에서의 음식도 놀라울 만큼 맛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선물을 안겨준 고성에서의 시간들을 그리며...



대리 얼하이 강 위에서의 유람선, 진사도 그리고 거울 성 천경각

대리에서 고성 문화체험을 마친 후 유람선을 타고 진사도 관광 후 천경각에 들렀습니다. 화장실 가는 길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천경각은 탑 위에 올라가 거울을 통해 주변 경치를 바라보는 것이 특징인 곳입니다. 거울을 바라보면 아름다운 풍경들 사이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이 곳. 넓은 얼하이 강과 이쁘게 가꾸어진 천경각 주변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을 돌아다니는 내내 눈이 즐거웠습니다.

에피소드

유람선 관광 중 한 관광객을 위해 뱃머리에서 펼쳐진 우리의 샤이보이 무대..이 모든 것이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며 최선을 다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중국팀 최고!!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윤창환(인솔자)

아주 쫌-끔 소심?하지만 그 소심함이 굉장히 세심한 배려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중국팀의 엄마 창환씨. 훈남 오브 훈남인데 애인이 없다는 특징이 있다. 애인 생기세요 창환씨.



문하영

그렇-게 유행어를 미는 그렇-게 동생들이 잘 따르는 그렇-게 정이 많은 하영씨. 그렇-게 술을 잘 먹고 그렇-게 놀 줄 아시죠



팀장 이현수

가끔 말도 안되는 개그와 느끼한 발언 남발하시지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니하오 미아오 호를 리딩해준 100m 앞 김강우, 스타보이 현수씨.



최원식

구준표 원식씨는 준표같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왁스와 옷을 처려입는다. 해외봉사에서도 그의 프로패션함은 빛을바람!! 짱 짜이 리 마이 보고싶다.



노현종

훈내 필렐 나시는 중국와서 더 현저인 되버린 중국팀 만인의 연인 현종씨. 솔직히 태권도 할때 멋있었다!!



이원각

서울대생에 대한 편견을 바꿔준 허리띠 춤의 대가!! 춤이면 춤, 노래면 노래, 운동이면 운동 못 하는게 없는 만능 재주꾼 원각씨. 도봉산 합숙때부터 시작된 당신의 썸글라스 Sense란..



손유은

현지 NGO 박용규 선생님을 존경하다 못해 사랑해버린 지닌 유은씨. 예리한 촉을 지니고 있고 눈치가 빠르긴 한데 동생들이 눈치를 본다 무섭..



이세종

너 없는 중국팀은 없다!! 센스쟁이!! 중국팀 마스크트!! 어떤수식도 가능한 잘생긴 세종씨. 다만 쫌-끔 짱다 but 비울을 나이스 바디!! 하나만 물어볼게 니 덩치만한 개 두 마리가 송곳니 드러내고 달려 나온다 세종씨 선택은??



박유정

정색 하나도 안하는데 정색 걱정하시던, 일부러 사진 찍는게 좋다고 우릴 배려해주신 유정씨. 웃어요!!



박진

한참 짱 시우 부 얹이 중이신 우리 진씨!! 있을때 잘하시지 그러셨어요!!! 모쪽마을에선 상거지라 불렸지만 문화탐방 때 말끔하게 상거지 타이틀을 반납하셨다. 살이 쫌 빠지셨는데 한국에선 다시 찌서야죠?!!



손윤태

발렌타인 데이라고 한국서 중국까지 초콜렛을 직접 제작하셔서
공수해 오신 신발 사이즈 220mm 초딩 발!!윤태씨, 속이 깊고
꼼꼼하며 유독 내 동강아지 짱 리 마이랑 친했다.



조성혜

톡톡 튀는 목소리와 언제나 해맑게 웃어주는 중국팀 엔돌핀
성혜씨. 특유의 발랄함과 유쾌함으로 모두를 즐겁게 해주는
묘한 매력 넘쳐 흐른다.



송설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긍정적이고 애교로 똘똘 뭉친 애교당어리
설화씨. 그 애교를 오빠들한테 보여주는지 그러셨어요?!!



이규영

세수는 안해도 머리는 말아야하는 중국팀에서 엉뚱함을 맡고
계시는 규영씨.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 규송이 라인인
눈 뜨자마자 셀카를 찍고 계신다.



이새미

모두의 말을 잘 들어주고 상담도 잘 해주시는 중국팀의 오지람을
맡고 계신 새미씨. 90라인 반지는 잘 끼고 계실랑가??



조송이

프로그램 준비가 완전 깔끔하고 완벽했던 웃는게 너~무 이쁜 송이씨.
규송이 라인이라는 이름으로 규영이를 언니같이 잘 챙기고 다녔다
너 때문에 우리는 무거운 짐 하나를 덜었다고 생각해^^



명성울

문화공연 당시 묘족 여심을 흔드는 댄스본능을 보여주신, 호피
폴더 하나로 모두를 보내버린 짐승남 성울씨. 그냥 뭐 말이 필요
하나요.. 여기 팬 하나 추가요



이진경

이긴 뒤 소는 키워도 너는 못키우겠다!! 진경씨.
아침 점심 저녁 삼시 세끼라는 개념을 무너뜨린 진경씨.
but 그렇게 먹고도 살은 안 찌는거..



김재경

따개들을 많이 좋아했던 어른들이 좋아할 한쪽 눈만 생겨풀 있는
재경씨. 노력봉사 중 '이 길로 나가라'라는 말을 들 정도로
곡괭이면 곡괭이 삽질이면 삽질 만능 작업맨!!



박꽃잎

고산병으로 힘들었지만 언니 오빠들 걱정할까봐 티 한번
안 내던~ 속 깊은 우리 꽃잎씨.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곳곳하게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를 맛깔나게 구사하신다.

은근히 중국어를 잘하시던..하영씨가 없었다면 나가 에이스였는데...

우리가 더 많은 것을 배운 봉사활동
“소중한 추억 영원히 간직할게”





1	2
3	4
5	6

- 1 경운기 라이더
- 2 고양이 네마리
- 3 내이름은 팡하이평
- 4 사랑해요 묘족~
- 5 안무가운척하기
- 6 힘줘!!!!



Cambodia



맞잡은 두 손에
따스함이 흐르듯
서로의 마음속엔
희망이 자라겠지...

일정표

0213	1일차	출국 / 캄보디아 프놈펜 도착
0214	2일차	코캄센터 및 기관소개, 기관 오리엔테이션, Takeo지역으로 이동, 마을 도착
0215	3일차	노력봉사·화장실팀: 건축에 필요한 흙 운반·집1팀, 집2팀: 건축 교육봉사·교육팀: 명찰만들기
0216	4일차	노력봉사·화장실팀: 자재 미도착으로 휴식·집1팀, 집2팀: 건축 교육봉사·미술팀: 지점토만들기·체육팀: 위생교육, 태권도·음악팀: 영어노래
0217	5일차	노력봉사·화장실팀: 건축에 필요한 흙,시멘트 운반·집1팀, 집2팀: 건축 교육봉사·미술팀: 물감놀이, 데칼코마니·음악팀: 곱세마리노래
0218	6일차	노력봉사·화장실 팀, 집1팀, 집2팀 : 건축 교육봉사·미술팀: 부채색칠하기, 티셔츠만들기·체육팀: 물로켓발사, 위생교육
0219	7일차	노력봉사·화장실팀, 집1팀, 집2팀: 건축
0220	8일차	노력봉사·화장실팀, 집1팀, 집2팀: 건축 체육대회·투호놀이, 페이스페인팅, 제기차기, 줄다리기, 단체줄넘기, 런닝맨놀이
0221	9일차	노력봉사·화장실팀, 집1팀 : 건축, 마무리·집2팀: 건축 문화교류·바자회·태권도시범, 케이팝공연, 탈춤공연·현지 아이들 노래자랑
0222	10일차	노력봉사·집2팀: 집 마무리 활동종료 프놈펜도착, 두얼슬랭 박물관 관광, 씨엠립이동
0223	11일차	양코르와트 및 나이트마켓 관광, 출국
0224	12일차	한국도착

사전모임 및 봉사활동 내용

2012년 2월 12일~13일 문화교류프로그램 연습 + “고려 준비!” 힘찬 구령과 함께 우리들의 발차기가 허공을 가로질렀습니다. 출국 바로 직전일을 합숙훈련날로 잡은 우리들은 시간에 쫓기듯 맹연습에 돌입했습니다. 탈춤과 K-POP공연팀도 숙소 안팎에서 결전의 그 날을 고대하며 열심히 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날은 어느새 저물었지만 흐르는 땀방울만큼 연습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직 제자리를 찾지 못한 주먹과 한 없이 무디게 느껴지는 발차기에 힘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며 한숨처럼 되뇌었습니다. “캄보디아의 밤하늘도 이곳과 같을까? 정말 멋진 공연을 하고 싶다” 초저녁, 흐리게 빛나는 북극성이 마치 우리의 갈 길을 안내해 줄 것만 같았습니다.

연습이 모두 종료된 뒤, 팀원들이 함께 모여 피드백을 실시하였습니다. 아리랑을 배경음악으로 삼은 태권무와 탈춤의 경우 캄보디아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한국 고유의 멋스러움을 잘 전달해줄 수 있을 것 같아보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직접 만든 사자탈을 쓰고 하는 탈춤공연이 무척이나 기대가 되었습니다. K-POP공연 또한 최신유행곡을 바탕으로 아이들의 열렬한 환호를 꿈꾸며 열심히 연습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바람대로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코앞으로 다가온 우리들의 행복할 시간을 바라보며 우리는 지금 내일을 꿈꾸고 있습니다.



캄보디아팀 대표 프로그램

위생교육 보고서



위생교육의 목표는 올바른 손 씻기와 양치법을 캄보디아 현지 아이들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단편적인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이 스스로 즐거운 마음에서 위생습관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퀴즈나 동요, 실습을 넣어 아이들과 좀 더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동요에 맞추어 움직이는 것을 즐거워했고, 특히 우리 단원들이 손을 씻겨줄 때에는 무척 행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 역시 아이들과 눈을 마주치며 서로의 손을 씻겨주면서 진정으로 이 아이들과 교감을 나누고 있다고 느꼈고 무척 보람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보다,

이 아이들이 오늘의 수업을 통해 이를 닦고 손을 씻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랑을 떠올리기를 희망합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김성환

“ 6시간을 날아 마주한 캄보디아 처음에 아이들에게 느낀 거리감은 적극적인 단원들부터 아이들 틈으로 들어가면서부터 허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봉사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화장실과 집 재건축 등을 포함한 노력봉사와 동네 초등학교에서와 마을 공부방에서 진행된 교육봉사, 그리고 문화공연을 보여주고 우리도 구경을 하여 함께 즐겼던 문화봉사를 통해 만족감을 얻었습니다. 봉사가 끝이 나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꿈에서 그때를 떠올리곤 합니다.

공학을 전공하고 공부하는 학생으로 앞으로 착한기술을 개발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봉사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을 봉사단원들과 다짐하게 되었고, 그러한 다짐을 실천할 멋진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





‘저기서 우리가 살 거라고? 난 벌레라면 질색을 하는데...’

김소연

“ **미숙했던 첫 교육봉사** 벌레격정으로 가득차서 그런지 첫 날은 우리 모두 좀 얼떨떨해서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의 기대감도 컸을 텐데 변수를 예상하지 못해 허둥지둥했던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우리는 밤마다 회의를 하며 전반적인 피드백과 서로가 의견을 조율하면서 최고의 수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순수하고 아름다운 캄보디아와 사람들... 처음에는 캄보디아에서 삶이 부정적이었지만 봉사하면서 쌓은 추억은 모두 좋았던, 아름다웠던, 행복했던, 감동적이었던 것뿐입니다. 우리가 갔던 마을의 사람들도 처음에는 **우리를 멀뚱히 바라보다가 제가 웃으면 반드시 되웃어 주었습니다. 그 따뜻한 모습에 오히려 제가 더 감동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 캄보디아에서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항상 저에게 순수한 호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서 캄보디아는 영원히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아름다운 곳일 것입니다.

‘이 아이들 애정결핍은 아닐까?’ 그만큼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김수현

“ **사랑과 여유가 넘치는 타케오 지역의 사람들** 사실 부담스럽다 싶을 정도로 처음 따케오에 도착했을 때 현지 주민들과 아이들 모두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이 아이들은 결코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불쌍한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히려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마음과 여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주고 오려고 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오히려 그 순수한 마음들을 받아 온 것 같습니다.

희망의 씨앗! 사전 교육에서 우리는 캄보디아에 가서 희망의 씨앗을 심고 오자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되돌아보니 그 아이들 하나하나가 모두 희망의 씨앗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그저 그 씨앗이 잘 자라서 따케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주 조그마한 보탬을 한 것 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따케오의 예쁜 밤하늘과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을 평생 잊지 못 할것 같습니다.^^

내 마음 속 희망의 씨앗을 남겨준 캄보디아 봉사활동이었습니다.

김승재

“ **진심은 어디에서든 통한다** 봉사활동을 진행하면서 수많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모두 다른 표정에 각기 다른 생각이지만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우릴 환영해 주는 행동들과 얼굴에서 묻어나는 순수함. 그리고 배움에 대한 열정. 다양한 교육 봉사 활동을 진행 하면서 짧은 교육시간에서 아이들의 생각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마음을 열어주는 캄보디아 친구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캄보디아의 마지막 날 밤 캄은 가족들의 회의시간이 떠오릅니다. 10박 11일 동안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 지친 얼굴들, '진심을 담아, 최선을 다해 봉사하였기에 활동이 끝난 지금 이렇게 힘든 표정을 만들 수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단기 봉사활동을 하면서 우리의 목표대로 희망의 씨앗을 많이 뿌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건 저의 마음속에 희망의 씨앗을 심고 한국으로 돌아간다는 것 입니다.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힘들게 배움의 열정을 키워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스스로 나에게 심은 희망의 씨앗을 열매로 만들어 다시 봉사를 하겠다는 저의 결심. 너무나도 큰 것들을 짧은 기간 동안 배우고 돌아옵니다. ”





행복한 기억, 감사합니다

문혜준

“ 캄보디아에서의 수없이 많은 행복한 기억들 중에 무엇을 말해야 할까 무척 고민했지만, 역시 저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건 아이들입니다. 수많은 아이들을 만났지만 그 아이들을 다 말할 수 없기에 저의 가슴속에 크게 자리 잡은 카트리나라는 아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간 첫 수업에서 카트리나라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도 작은 체구에 무척 소극적인 아이였습니다. 이틀 동안 우리와 함께 수업하며 지냈지만 그 아이는 우리에게 마음을 쉽게 열지 않았습니다. 삼일째, 위생교육 시간에 아이들의 손을 직접 씻겨 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의 손과 카트리나의 손이 맞닿았을 때 저는 무척이나 따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는 웬일인지 제 손을 꼭 잡고는 아무데도 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에게 함께 찍은 폴라로이드 사진 뒤에 사랑한다는 편지를 써 주었습니다. **우리 캄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열흘 동안 만나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한 채로 캄보디아에 갔는데,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과분한 사랑과 신뢰를 보내주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돌아와서 다시 일상 속에서 지내지만, 캄보디아의 아름답던 풍경과 그 아이들이 저를 바라보던 눈빛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우리에게 선물해준 행복한 기억, 감사합니다!



써바이 엇?, 써바이!

박관우

“ 미술팀의 물감놀이 보조교사를 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이 손발로 신나게 물감을 찍고 아이들의 더러워진 발을 씻겨줄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수줍게 내민 발은 이미 굳은살이 박이고 여기저기가 까지고 상처나 있었습니다. 이제 10살 남짓한 아이의 발이 이 모습이라는 것이 놀라웠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프지는 않을까? 신발을 신고 싶지는 않을까? 그럼 더 행복할 텐데. 하지만 한편으론 그 아이들이 신발을 신지 못해서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는 저의 생각도 제가 생각한 행복의 기준에 맞춘, 어쩌면 전혀 다른 잣대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아 아이들과 아직은 고감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보다 객관적인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아이들만큼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가는자……. 어떻게 해야 나는 만족할지 행복해할지 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자…….

“ 캄보디아는 저에게 행복한 추억들과, 어디에서도 만날 수 없을 것 같은 너무나 좋은 인연들을 만들어주었고 또 저를 성장시켜줄 많은 화두를 던져주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캄보디아에 희망의 씨앗을 심은 것이 아닌 캄보디아가 저에게 성장의 씨앗을 심어 주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고이 간직하고 물을 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젠 항상 행복하다 느끼며 살아가려 합니다. 언젠가 캄보디아가 나에게 써바이 엇?(행복해요?) 이라고 물었을 때 자신 있게 써바이!(행복해요!)라고 말할 수 있도록…….





희망의 씨앗

유성우



“ 캄보디아에 가게 되고 음악 팀을 담당하면서 저는 음악을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 전부터 나름대로의 계획 하에 영어 동요와 곰 세 마리 등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지를 잘 알지 못했던 탓에 아이들이 수업을 조금 어렵게 느꼈고, 우리도 그것에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교류할까 고민한 끝에 우리가 현지의 동요를 배워 아이들과 즐겁게 부르며 소통하고자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작전은 대 성공이었고 우리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고자 했던 것이 우리의 것을 일방적으로 전해 주는 것이 아닌 서로의 것을 나누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 준비해간 활동들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을 만났고 많은 활동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했던 활동들을 통해 아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가슴에 꿈을 품고 희망이 생겼다면 우리의 봉사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씨앗을 뿌리기 위해 갔지만, 받아온 씨앗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불평하던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고 우리 삶에서 행복이 무엇인지 깊게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그곳에서 잘 지내며 꿈을 키우고 있을 아이들 생각에 가슴 한켠이 희망으로 차오름을 느낍니다. 11박 12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서로의 가슴에 주고받은 희망의 씨앗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길 소망합니다. ”

사랑해, 캄보디아!

이준학

“ 10일 동안 너무 아름다운 꿈을 꾸 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이와 만날지에 대해 하루하루 꿈을 꾸었습니다. 손에 쥘 사진 한 장 들여다보니 스치듯 아련한 그 날의 일상들이 저를 불러들입니다. 제 2의 고향과도 같은 곳에서 가족같이 즐거운 사람들과 함께 맞이했던 그 하루하루를 저는 평생 잊지 못 할 것입니다. 눈 감으면 보일 것 같고, 손 내밀면 잡힐 것 같은... 언제라도 달려가 포근히 안길 수 있는 그런 꿈결같은 곳이 있음을 떠올립니다. 요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과연 저는 그 곳에 무엇을 남기고 왔을까요? 따개오를 떠나던 날, 주인집 아주머니는 저희들을 따스히 안아주셨습니다. 분명 저희들이 그 곳에서 10일간 머물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놓고 온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두 번 다시 볼 수 없을 이방인들을 보내는 아주머니의 마음을 엿보았을 때, 그 빈자리 또한 매우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메꿀 수 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단원여러분 스스로 해답을 찾으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자봉 1기 아자아자 화이팅!



캄보디아, 그 중에서도 따개오.

이승빈

“ 봉사 초기부터 생각했던 물음이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는 단기해외봉사 활동이 그 기회비용으로 현지 시설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나은 것인가에 대한 물음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해외봉사를 하면서, 그리고 끝나서도 확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단순히 집을 고쳐주고, 알파벳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가져간 프로그램을 일방적으로 배설하고 온 게 아니라 돈으로 충족시켜줄 수 없는 교감을 하고 온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아줌으로써, 인간이 줄 수 있는 따뜻함을 나눔으로써 교감을 전해주고 오는 것이 단기 봉사의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우리의 목표였던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오자는 슬로건, 일단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온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씨앗에 물을 주고 잘 클 수 있도록 가꾸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번 봉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단원 한 명 한 명이 나뉘어가지가 되어 봉사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도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연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류예실



“ **캄보디아에 남기는 희망의 씨앗**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어 열심히 한 적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원은 물론 모든 활동을 함께해주신 아산나눔재단 대리님, 우리에게 항상 즐거움을 주신 MBC PD님, 중간에 합류했던 버팀목 같은 장기단원오빠 등등. 비록 홈스테이 내내 저는 밤마다 코피가 나서 별명이 코피온이 되는 웃지 못할 추억이 있지만, 사람들 덕분에 코피는 잇을 만큼 즐거운 봉사활동이 된 것 같습니다. 지식인 대량학살 사건으로 교육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거나 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캄보디아 사람들에게, 우리 같은 대학생들이 희망을 보여주고 가는 것이 대학생 해외봉사의 목적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하는 행동, 말, 표정, 즉 현지 사람들과의 마음의 교류가 얼마나 되었느냐에 따라 봉사의 성과가 갈린 것은 아닐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번 봉사활동은 성공적이었다고 전 생각합니다. **이번 봉사를 통해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는 감사함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쁜 대학 생활 속에서도, 꾸준한 봉사를 지원하며, CAM ON FOREVER !!;) ”



영어가 통하지 않는 곳, 그렇지만 마음으로 서로를 느끼며 소통할 수 있는 그곳

강윤경

“ **가장 좋은 수업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수업!** 초등교육과에 다니기 때문에 교육 봉사에 큰 욕심을 가졌습니다. 짧은 교육활동 시간 동안 우리가 준비한 것을 모두 전해주고 싶은 마음은 좋았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아쉽게 만들었고 회의를 통해 수업을 바꾸어 나가는 과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만들어가면서 저 스스로가 만족하는 수업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조금은 부족하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새로운 경험과 시간을 만들어간다는 사실만으로도 교육봉사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의 아이들은 제가 되고 싶은 교사의 모습에 대한 답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희망의 씨앗을 심어주고 오자던 우리 팀의 슬로건은 오히려 제게 한국과 캄보디아의 아이들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제 마음 속에 심어주었습니다. ”





“

다시 찾은 에덴동산, 그리고 진정한 문화교류 7년 전, 캄보디아에 관광을 갔다가 고아원에 잠시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찾은 캄보디아. 우리가 갔던 따께오의 현지 주민들은 선하디 선한 미소로 조금은 수줍어하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문화팀장으로서 문화교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준비해간 프로그램은 물론, 캄보디아에 오기 위해 준비했던 그 순간부터가 문화교류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의 문화에 대해 조사하고, 언어를 배우고, 아이들과 놀고, 어른들께 인사하고, 그들이 해주는 음식을 먹고, 그들의 집에서 자는 봉사기간 내내 까지가 모두 문화교류의 일환이었습니다.

지금도 캄보디아가 미치도록 그림습니다. '나리!'하고 불러주던 그 귀여운 목소리가,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던 미소가 눈물나게 보고 싶습니다. 저의 상사 병은 불치병인가 봅니다. 캄보디아,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너무 그림습니다.

”

여기가 에덴동산인가? 어쩌면 모두 이렇게 선하게 함께 살고 있을까?

문나리



가진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들

안순규



“

쌀 반가마니와 가족 & 가진 것에 고마워할 줄 아는 아이들 노력봉사를 위해 방문한 집들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열기설기 지은 집의 허술함뿐만 아니라 썩어서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집의 모습은 저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전 재산은 쌀 반가마니 뿐이었습니다. 집을 짓고 있는 땅조차도 자신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원이 없었더라면 똑같은 집에서 똑같이 살아갔을 가족모습을 생각하니 더욱더 열심히 집을 지어야겠다는 생각 뿐이었습니다. 완성된 후의 집은 세상 어느 집 보다는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봉사단의 노력봉사 참여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봉사단 모두가 최선을 다했고 우리의 진실한 마음이 따개오 지방 사람들에게 전해 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력봉사와 더불어서 이루어진 교육봉사. 예체능 위주로 편성된 수업에서 저는 음악교육을 맡았습니다. 아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따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크메르어로 열심히 노래를 번역해서 불러줬을 때,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당황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영성찬 설명에도 이해하려고 노력해 주었던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욕심내기 보다는, 웃으면서 지내는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습니다. 수줍게 손잡고 부끄럽게 악수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

캄보디아 봉사 소감문

장희선

“ **방과 후 공부방 수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에게 영어수업을 해주어야 했는데, 처음에는 아이들의 수준이 각양각색이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노래를 통해서 아이들이 즐거운 영어를 경험하게 하려고 노력했고, month song, weather song과 같이 노래와 율동으로 노래를 가르쳐주었습니다. 또한 역할극을 통한 기초회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교실 앞으로 나와 영어로 대화를 했는데, **자신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무척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저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부팀장이었지만 원래 뒤에서 묵묵히 리더를 도와주는 성격인 저는 처음에는 부담감이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팀장, 부팀장 오빠가 역할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또 굳이 제가 나서서 일을 하지 않아도 단원들이 알아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팀은 팀워크가 굉장히 뛰어나고 단합이 잘 되었던 팀인 것 같습니다. 열흘간의 봉사기간.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었던 시간동안 한국에서는 체험 할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하고 와서 기쁩니다. ”





우연에서 운명으로, 캄보디아 그리고 따개오

공경정

“ 새로운 경험을 주었던 미술 교육 제가 담당하였던 미술교육은 물감놀이 나 부채만들기 등등 아이들이 접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을 주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언어적으로 소통이 어려웠던 점은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이제껏 미술교육을 받지 못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워 했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봉사의 참의미를 깨닫고 가는 것 같아 매우 뿌듯합니다. 지속적인 봉사를 항상 염두에 두고 봉사를 할 것이며, 또한 봉사활동을 와서 좋은 사람들을 얻어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얻은 추억, 깨달음을 평생 마음속 깊은 곳에 간직하겠습니다. ”

무더운 날씨와 익숙지 않는 음식, 그렇지만 우리가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

강현구

“ 아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시간 노력봉사와 교육봉사 후 지속되었던 미니올림픽과 문화교류 활동. 우리가 준비한 활동을 아이들과 한 장소에서 함께 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각자 맡은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였고, 현지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나누려 노력했습니다. 줄넘기, 풍선터트리기에서 볼 수 있었던 아이들의 미소가 저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주는 아니었지만 손을 잡고 뛰었다는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무더위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눈빛이 빛나던 아이들, 그래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아이들

김고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강민지

“ **마음으로 웃는 아이들** 캄보디아 아이들을 만나고 돌아오며 느꼈던 희망과 기쁨은 한국의 아이들에게 알려 줄 것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캄보디아 아이들보다 너희가 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따뜻하고 햇살 같은 미소가 있다는 것. **그 어떤 역지의 미소가 아닌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웃는 미소를 선물할 수 있다는 점**을 이 아이들에게, 아니 그 이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습니다. “모두들 정말 사랑해요” 눈부시게 아름다운 별들과 밤의 어둠 속에 환하게 빛나던 우리의 얼굴이 무척 그롭습니다...”

“ **교육봉사에서 만난 친구들**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모든 수업을 준비하기란 벅찬 일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지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업을 진행했을 때 만난 따개오의 아이들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수업을 할 때에는 그 누구보다 총명한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설피 수업이었지만 아이들의 수업태도는 저희를 감동시켰습니다.** 아이들도 우리를 ‘선생님’이라기 보단 언니 오빠로 여겨서, 항상 머릿속을 맴도는 그 아이들의 이름, 그 이름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해 애들이!



러어나(좋아요) CAM-ONgoing

정예



“

행복의 기준이란 무엇일까?

처음에 해외봉사를 지원했을 때에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게 살고 있는지 가서 내 눈으로 확인하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돌아와야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런데 따개요 지방에 도착하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불행하기 보단 오히려 행복해보였습니다. 집안에는 그 흔한 가전제품 하나 없지만 크게 불편해보이지도 않았고 자연과 더불어, 자연 속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정말 평화롭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저는 행복이란 것이 물질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서 여유로운 상태가 전제되어야 찾아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따개요에서 진짜 행복의 모습을 어깨너머로나마 볼 수 있었던 것 같아 행복을 찾는 저의 발걸음의 방향을 조금은 바꿔 밟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AM-ON! 계속되는 희망

의 씨앗 프로젝트! “CAM-ON”, ‘캄보디아로 오라!’라는 단순한 팀명 같지만 우리의 봉사활동은 계속된다는 ongoing의 의미를 담은 팀명입니다. 우리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해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지만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노력봉사 집 수리를 완성하고 씨앗과 헤어지면서 ‘언니가 나중에 돈 벌어서 다시 올게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더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캄온팀 모두는 성공하기로, 성공해서 봉사의 아름다움을 사회에 알리는 귀감이 되기로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반짝거리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



따개오, 그곳에 있었던 희망의 씨앗

정준화

“

순수한 아이들의 눈망울 아이들의 눈빛, 초롱초롱한 호기심으로 가득한 아이들의 눈빛은 팀원들을 무장해제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모습은 순수함 그 자체였습니다. **개구쟁이 같은 모습도 가지고 있지만 수업시간에는 새로운 배움에 불타오르는 뜨거운 눈빛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주기만 위해 노력했지만 실행하는 동안 아이들의 모습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캄보디아의 희망이 되기에 충분한 존재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새로운 시작 봉사를 끝내고 이제는 마을을 떠나야만 하는 날의 아침은 지긋지긋하던 흙탕물 세수도, 은은하게 빛나던 형광등조차 그렇게 느껴지게 하였습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고 뒤돌아서던 순간까지도 아이들은 끝까지 뒷모습을 보이지 않고 손을 흔들며 우리를 배웅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사람은 어떻게든 떠나기 마련이죠. 많은 것을 남기고 가려던 우리는 과연 목적을 이루었을까요? 만약 조금이라도 목적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남기고간 흔적이 그들의 삶을 크게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이라도 희망적인 모습으로 변화를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가슴에도 지워지지 않는 소중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



Cambodia

문화탐방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교육이 희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줘야겠다고.



캄보디아는 킬링필드라고 하는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킬링필드는 폴포트의 주도아래 크메르루즈가 1975년부터 3년 7개월동안 자국민 200만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미국의 지원을 받던 론놀 정권의 세력이 약해지자 폴포트는 극단적인 농업적 공산주의사회를 주창하며 자신만의 농촌혁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 수도 프놈펜을 파괴하고 프놈펜에 거주하던 캄보디아인들을 시골로 강제 이동시켜 농사를 짓게 했습니다. 또한 농업적 공산주의 사회 건설에 방해가 될 것이라고 여긴 지식인들을 숙청하는데 열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안경을 쓴 사람, 피부가 하얀 사람, 배가 나온 사람까지도 지식인으로 분류해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폴포트는 프놈펜의 한 여자고등학교를 교문실로 개조하여 1만6천명의 사람들을 처참하게 고문했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뚜어슬랭이 바로 그 교문의 현장이었습니다. 뚜어슬랭에는 각종 고문도구들과 고문을 당한 사람들의 처참한 사진들, 처형

당하기 직전에 크메르루주군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른 뿐 아니라 우리가 봉사활동에서 만난 친구들 또래의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또 교실을 개조한 감옥이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꼭 찰 듯한 어두컴컴한 감옥 곳곳에는 아직도 그때의 혈흔이 남아있었습니다.

킬링필드가 벌어진지 30년, 여전히 캄보디아 곳곳에서는 그때의 아픔이 묻어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때 대부분의 지식인층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캄보디아는 나라 발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캄보디아의 정치상황을 불안해하는 많은 국민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발전해야 할 많은 어린이들이 뼈아픈 과거로 인해 교육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뚜어슬랭을 둘러본 후 우리가 탄 버스에 한동안 적막이 흘렀습니다. 인간의 잔인함에 대한 역겨움과 탐욕스런 권력에 대한 혐오감, 아프게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린 사람들에 대한 슬픔으로 뒤섞인 감정에 할 말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교육이 희망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어 안아줘야겠다고.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강민지 - 레이디 민지, 양가집규수

아이들을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고, 그리고 캄온을 사랑하는 진정한 lady!! 예술가 민지. 선한 외모만큼이나 어디서든 묵묵히 남들을 돌보이게 해주려고 노력하는 진정한 천사.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수를 놓는 양가집규수와 같아요.



김성환 - 순수발랄 청년, 우겔겔겔 식신순수의자왕

처음 자기소개할 때 공대남, 짜질이라고 자기를 둘러대던 이 아이는 잘나가는 개그맨처럼 한마디에 캄온팀을 지지러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언제나 성실하고 착한 동생 성환이.



강윤경
- 천상여자, 양파같은 여자, 감짜이소다

그녀의 패션은 뽀얗빛 내리찍는 따개오에서도 언제나 소매 끝이 살짝 보이는 레이어드룩을 입죠. 헤어날 수 없는 매력을 지니고 있는 캄온의 만언니이지만, 작고 귀여운 얼굴에서 뿜어져 나오는 아이 같은 순수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를 귀뒤로 수줍게 넘기며 인사하는 그녀는 천상여자!



김소연 - 파이리, 화보녀, 넝쿨 째 굴러온 당신 김.소.연

조그맣고 귀엽지만 열받게 하면 불을 뿜어냅니다. 22살인데 아직도 발이 자라는 걸로 봐서 성장판도 열려있는 것 기도 하고... 특히 썸그라스를 쓰고 지나가는 소연이가 찍힌 사진들은 화보가 됩니다. 천장에서 떨어진 도마뱀을 울리고 멀쩡히 자다가 강아지가 들어왔다고 화들짝 놀라는 엉뚱함도 소연이의 매력!



강현구 - 반전종결자, 아이디어계의 스티브 잡스, 순수청년, 미백현구

첫인상은 '제법 놀 것 같이 생겼군' 하지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속이 깊고 진지한 친구입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순발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How's the weather?'은 타케오지방의 국민동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즐거운 이야기로 팀의 정적을 막아주는 강현구와 함께라면 Have a nice day!!



김수현 - 시크해 보이는 애교녀, 천상여자, 신비의 수현, 애교왕

우월한 기력과 미모 때문에 시크해보이지만 사실 알고보면 애교쟁이 수현이. 매우 허당이지만 그렇다고 무시했다가는 기껏 열심히 참여한 봉사활동 흔적을 하나도 남기지 못할지도 모르는 절대 권력의 소유자! 취하면 우-아~ 하면서 퀴즈탐험 신비의 세계 주제곡을 부르는 그녀는 퀴즈탐험 신비의 수현!!



공경정 - 공대아름이, 칠리소스 공경정.

여러분 경정이를 아시나요? 얼핏 보면 수지가 보이는 그녀는 CAM-ON 팀의 마스코트입니다. 처음에는 잘 느껴지지 못하지만 함께 하면 함께 할수록 Lovely 한 그녀입니다. 특히 그녀의 숨막히는 워킹은 세상 모든 남성들의 입을 떡 벌어지게 할 정도의 매력 있습니다. 봉사 활동 기간 동안 유일하게 제 마음을 설레게 한 그녀! 당신의 매력 지수는? ∞ (무한대)



김승재 - 태산 김승재 선생, 정신적 지주, 캄온가족의 아빠 승재오빠

굳이 꺾여보지 않고서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다. 태산을 멀리서도 알아보는 것과 같이.. 혹은 끊임없는 승재형의 보살핌과 관심들이 그러하다. 빠른 손놀림은 동생들을 무안하게 만들고 만행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한 그의 동안은 동생들의 얼굴을 가리게 만듭니다. 항상 낯은 일을 도맡아 하는 승재형의 마음씀씀이는 태산과 같이 높조인.



김고은 - 쏘쿨, 유쾌한 그녀, 따도녀, 무한매력녀

시원한 웃음소리 만큼이나 시원스러운 성격을 지니고 있는 콜네이 시대의 꽃이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녀는 박장대소로 말합니다. 솔직 담백한 그녀와 이야기하다보면 캄보디아의 무더위를 잊습니다. 에어컨 없이 우리가 생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고은이의 흘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류예실 - 코피-ON, 예실실이, 무한매력녀

처음 이미지는 잔나(잔잔한 나루)였지만 까도 까도 양파같이 계속 쏠아지는 개그분능. 코만 빼고 다 건강한 예실이. 힘든 일도 거뜬히 해내고 일면 알수록 터프함(?)을 과시하는 그녀지만 손대면 특하고 터지는 그녀의 코피를 막을 수 없습니다.



문나리 - 마이더스문, 문드래곤, 세상을 쥐도 안바꿀 보석

커다란 티셔츠 하나만 입어도, 남들은 잘 소화하지 못할 것 같았던 머리끈을 돌려도 언제나 자신만의 스타일로 멋있게 소화하던 그녀. 남다른 감각 만큼이나 손재주도 좋아서 문화교류 날 대미를 장식한 탈춤의 하이라이트였던 사자탈도 문드래곤 손에서 탄생! 뿐만 아니라 그녀는 손으로 벌레도 마구 잡는 털털함까지!!



문혜준 - 여신님, 천사님, 하늘에서 쫓겨난 선녀

고전 소설에 나오는 옥황상제 과일같은 거 따먹다가 쫓겨나는 선녀같은 성격. 아름다운 얼굴과 미소로 지친 팀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던 그녀는 배려가 팔자인 캄온의 여신.



박관우 - 분위기를 지배하는자!!!, 캄보디아의 뽀통령 박관우

그가 가는 곳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함께 진심과 열정을 다해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은 모든 단원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밝은 기운으로 팀을 하나로 묶어주고 지친 사람이 있으면 언제나 제일 먼저 챙겨주는 캄온의 분위기메이커!!



안순규 - 촌데렐라, 순규리, 알고보니 다정남

눈 깜짝할 사이에 찢히고 나타나는 마법은 아니더라도.. 점점 좋아지고 서서히 빠져들게 만드는 그의 치명적 매력! 원소로 쓴 마니또의 편지를 보며 '이게 뭐냐, 부쳐버리겠다' 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 편지받아서 좋아하는게 보이던 순규. 그는 마음이 너무나 따뜻한 남자지만 표현을 못하는 촌데렐라!



유성우 - 포근한 미소, '쌍하 오빠', 아육뿐만, 이층의 훈남오빠

큰 키와 훈훈한 외모로 사랑없이도 멤버 3명의 골수 팬클럽을 만들어낸 사람. 자신이 더위에 약하다는 걸 캄보디아에 와서 뒤늦게 깨달아버렸지만 교육봉사든 노력봉사든 맡은 일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을 본다면 그 누구라도 그의 팬이 되었을 듯!



이승빈 - 리얼 캄보디아, 캄보디아 현지인 '알라딘', 현지왕자님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있다면 프놈펜 공항엔 승빈패스가 있다. 입국심사에서 모두를 놀라게한 승빈패스는 캄보디아 내국인 라인으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캄보디아 왕자를 닮은 승빈이. 우리가 현지에 잘 적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승빈이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준학 - 성당오빠, 부활성자, 소프트 아이스크림

빨래판 복근, 타케오의 밤하늘 처럼 깊은 감성,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원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세심하게 챙겨주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모두와 진심으로 교감하고 함께 아파하고 즐거워해주는 그대는 이 시대의 진정한 성당오빠.



장희선 - 캄보공주, 과일공주, 사투리영어 종결자, 장모피탈

캄보디아 훈남 보라한테 진한 사랑의 고백 편지를 받은 크레이지 아케이드 아이디 과일공주인 그녀. 잊을 수 없는 그녀의 유행어 '데~모/크리시~'. 음성지원이 안되는 것이 안타까울뿐. 첫인상은 털털하지만 알고 보면 천성여자인 반전을 가지고 있는 것도 숨은 매력!



정예 - 비타민걸, 패셔니스타, 천사정예

팀원들에게는 언제나 상큼한 백의의 천사로, 아이들에게는 그 누구보다 따뜻하고 자애로운 모습으로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던 그녀. 따개오의 내리찍는 피약벌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가 달달한 코코넛 때문이라면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상큼한 비타민걸 YE와 함께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팀 필수 유닛



정준화 - 인간와이피이, 인간수평계, 아련아련 아련준화, 이수혁 정준화, 별박은눈빛 준화오빠

팀의 균형을 잡고 싶으신가요. 인간 수평계 에이스 정준화가 있습니다. 길을 걷다 돌아서는 행인 하나, "여기 와이피이 잘 터지나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고 준화는 항상 땀방 터집니다." 개그에 목마른 자들이여, 지금당장 준화존으로 가라!



유준상(아산나눔재단 홍보팀 대리) 미소미소년, 정말?, 좋은데?, 멋진걸?

"준상이 형님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 "정말?"
"형님 망고가 너무 맛있습디다" - "좋은데?"
캄온팀 작은오빠,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봉사에 참여하시어 우리와 한마음이 되어 큰 추억을 남겨주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간직한 사이보이



이성현(인솔자) - 키다리아저씨, 나무늘보 겸 목장 울타리, 세상에 없던 인솔자

방관의 리더쉽! 전면에 나서시지는 않지만 항상 뒤에서 봉사단원 전체를 생각해 주시고 힘든 점은 없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늘 신경 써주셨던 형님에게는 키다리 아저씨만큼의 자상함과 배려심이 한가득! 걸보기엔 느릿느릿하시어서 '아 아마도 안하셨겠지?'하고 보면 이미 알아서 다해주시던 우리 팀의 목장 울타리 같은 존재!

웃음과 눈빛으로
소통한 진심
“희망의 씨앗들이
무럭무럭 자라려무나.”





1	2
3	4
5	6

- 1 너랑 친해지고 싶어~
- 2 뽀뽀!
- 3 이렇게 그리는거야~
- 4 썬어 쓰다이 (안녕)
- 5 문화교류를 마치고...
- 6 트뷰 맑크눔 (따라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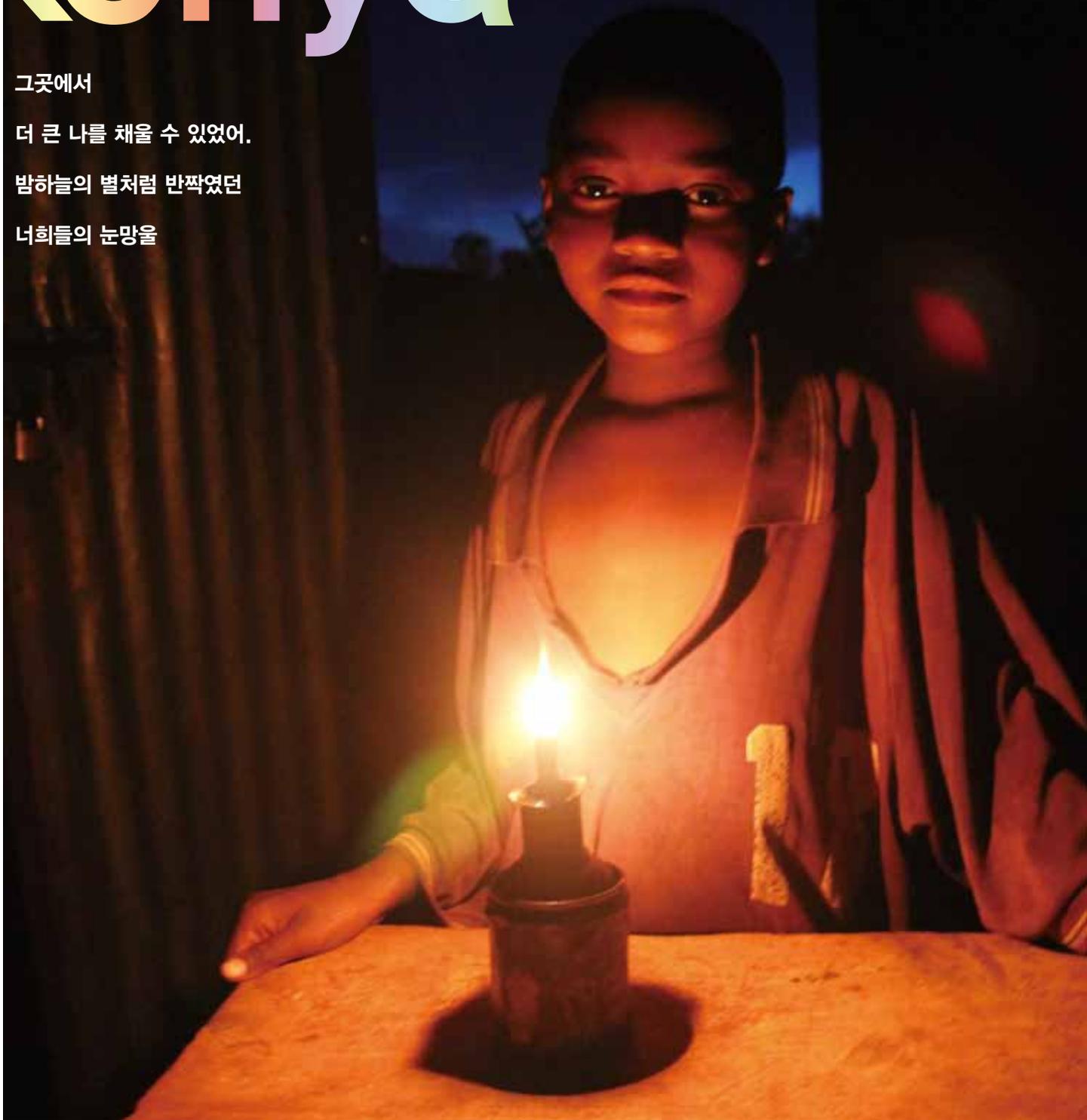
Kenya

그곳에서

더 큰 나라를 채울 수 있었어.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였던

너희들의 눈망을



일정표

0213	1일차	출국
0214	2일차	봉사지역도착 및 답사
0215	3일차	교육봉사·명찰만들기·비누만들기 노력봉사·벽화그리기
0216	4일차	교육봉사·태권도·협동화 노력봉사·벽화그리기
0217	5일차	교육봉사·학교간판만들기·한지필통만들기 노력봉사·벽화그리기
0218	6일차	체육대회 / 문화공연
0219	7일차	문화탐방·사파리(나쿠루)
0220	8일차	교육봉사·창의력퀴즈·계시판만들기 노력대회·벽화그리기
0221	9일차	마사이족 홈스테이
0222	10일차	교육봉사·명찰만들기·비누만들기 노력봉사·페인트 칠하기
0223	11일차	교육봉사·식초글씨쓰기·창의력퀴즈 노력봉사·페인트 칠하기
0224	12일차	출국
0225	13일차	입국

사전모임 및 봉사활동 내용



2012년 2월 4일-5일 케냐산 준비MT + 한파에도 불구하고 팀원들 간의 단합과 봉사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MT를 떠났습니다. 단장님의 말씀을 시작으로 회의를 시작하자 그동안 틈틈이 준비했던 프로그램들과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제공함으로써 많은 것을 주고픈 단원들의 마음이었을까요? 아주 많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졌습니다. 장시간의 회의를 끝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 저녁 식사를 하며 서로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아가는 시간도 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앞으로 2주간 케냐산 단원으로써 함께할 케냐에서의 봉사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2012년 2월 문화공연 연습 + 문화교류를 위해서 태평소, 쟁과리, 장구, 북을 이용하여 우리장단을 연습하기로 하고 아산나눔재단 건물에 모였습니다. 우리 장단을 이용해 케냐의 유명한 동요를 연주하며 함께 어우러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케냐산의 목표였습니다. 긴 연습을 통해 민속음악을 전공한 조윤정 팀원을 제외한 나머지 팀원은 전통 악기를 제대로 다루본 적인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다루본 듯 아주 신명나게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한국과 케냐의 음악이 하나가 되어 울리는 것처럼 케냐산 단원들과 케냐의 어린이들도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팔이 아파도 열심히 치겠다는 각오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였습니다.



2012년 2월 교육자료준비 + 아이들의 교육프로그램 자료 준비를 위해 케냐산 단원들은 코피온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특히 생리대 수업에서 일일이 본을 나누어주고 자르게 하면 모양이 제각기 달라 아이들에게 오히려 짐을 주게 될까봐 팀원들이 커다란 천을 펼쳐놓고 300개에 달하는 생리대 본을 그렸습니다. 또한 수업 때 사용할 전지자료를 알록달록하게 크레파스를 사용하여 수업을 들어갈 학년 수준에 맞게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준비하였습니다.

케냐팀 대표 프로그램

너의 몸을 아껴야해~ 생리대 수업

적은 양으로 한정되어 있는 바늘, 실, 가위를 70명이 나눠 써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자 단원들은 정신없이 실과 가위를 나눠주며 생리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수십 번을 설명해야했습니다. 교사 한명 당 많은 학생들이 배치되어 체력적으로 힘들었지만 생리대를 살 형편이 안 되는 아이들의 손에 완성된 생리대가 쥐어졌을 때의 뿌듯함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 생리대 하나를 완성시키기까지에 수업과정과 추억들이 생리대에 고스란히 작은 손때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노력봉사

아이들이 사용할 책걸상을 만들어주었습니다. 첫날 시행착오를 겪으며 2개를 만든것에 비해 둘째날에는11개를 만들었는데, 일에 속도가 붙으면서 여자단원들도 참여했습니다. 난생 처음하는 망치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곧잘 못을 박았습니다. 완성된 모든 책상들을 운동장에 열맞춰 세우고 참여한 인원들이 모여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유난히 날씨가 무더운 날이었지만 그만큼 우리의 노력은 빛났습니다. 현지학생들과 단원들이 힘을 모아 만든 책상에서는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날 혁혁한 공을 세운 케냐 학생은 페인트칠부터 우리가 준비한 모든 노력봉사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한 '키린 능력자' 알려주었습니다. 알리기 이 책상에서 공부하며 천문학자가 되기위한 공부에 매진하기 바랍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리면 멋진 과학자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언젠가 케냐에서 '알리라는 이름의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배출되길 기대해봅니다.

이름을 알려라! 명찰만들기 수업

얼굴 부분이 될 동그라미 모양의 종이와, 몸통이 될 네모난 박스로 나누어 집니다. 몸통이 될 네모난 박스 위에 깨끗한 하얀 종이를 덮고, 머리부분은 털실로 꾸밀 수 있게 합니다. 순서는 얼굴과 몸통부분을 크레파스, 싸이펜 등을 사용해서 꾸미고, 몸통부분 가운데에 각자의 이름을 알아보기 쉽게 적습니다. 얼굴부분과 몸통부분 꾸미기가 끝난 후에는 얼굴과 몸통부분을 목공풀로 붙이고 마지막으로 목줄을 연결하면 아이들이 목에 걸고 다닐 수 있게됩니다. 처음 이 명찰만들기 수업을 준비하면서, '아이들이 시시해 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것을 소장해본 경험이 없는 아이들에게 개인의 개성을 살린 독특한 명찰을 만들어 주니 세상을 다 가진 것 처럼 좋아했습니다.

뛰어 놀자 애들이! 체육대회

국내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열어봤던 경험이 있었지만,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케냐 친구들을 상대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매우 긴장도 되고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학교에 당일 미리 도착하여 운동장 평탄화 작업을 하고, 라인작업을 했습니다. 교장선생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렬한 응원전과 저의 호각소리가 더해져 진지하면서도 긴장감 넘치는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림보, 돌다리밟기 ,2인3각, 계주, 박터트리기 총 5가지의 경기를 무사히 마치고 모든 아이들에게 직접만든 샌드위치와 마음을 담은 자그만한 선물도 나눠주었습니다.

서로에 대하여 알아가는... 문화 공연

단타, K-POP, 현지인공연, 미술, 잠보송. 단시간 준비로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공연은 수준 높은 현지인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창하면 학생들이 후창을 하는데 우리에게 메기고 받는 형식과 같은 형식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문화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흥이 많아서인지 어린학생들도 노래와 춤에 능합니다. 예상치 못한 멋진 공연을 보고나니 마치 쇼핑에서 득템을 한 기분입니다.



케냐에서 다시 태어난 나

손재민

“ **케냐 코모룩학교 입성!** 어린 케냐 아이들을 보자마자 내 가슴속 저 끝에 있던 편견들이 나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었다. 케냐에 오기 전 무의식중에 케냐 어린이들과 정말 거부감 없이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다. 하지만 그 거부감의 벽이 이렇게 빠르고 쉽게 깨어질 줄은 몰랐다.

내가 그들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에게 도움만을 준다고 생각했던 내가 부끄러웠다. **오히려 봉사자인 내가 봉사받는 그들보다 더 배우는 게 많은데...**

나는 봉사를 하기 전에 이별, 눈물 그런 것은 우리에게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특히 우리가 흘리는 눈물은... 하지만 그들이 진심으로 우리를 위해 눈물을 흘릴 때, 우리의 눈물도 아름다워졌다. 기대는 했지만 예상하지 못했다. 헤어질 때의 아이들의 눈물, 그들은 진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 눈물에 눈물이 났다. 서럽게 울면서 서로 헤어지는 것을 아쉬워할 때 나 자신이 왜 이리 야속하게 느껴지는지... 나 자신이 싫었다. 해외봉사하러 왔다가 무언가 얻고 가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나니까...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강하게 왔다. 정말 내가 크게 성장해서 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싶은 욕구가 치솟았다. 어느 날 간사님은 말하셨다. “봉사단 여러분! 여러분이 여기에 다시 올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활동하세요!” 하지만 나는 다짐했다. **더 배우고 다시 올거라고...**

”





하쿠나 마타타

김민국

“ 첫 일정은 코모록 프라이머리스쿨(국내 초1~중2)에서의 일주일간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처음 들어보는 영어 억양과 예측하기 어려운 하쿠나마타타(No Problem)문화로 고생을 했습니다. 억양은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졌지만, 영어를 못하는 어린 학생들은 학교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업을 준비해야했고, 노력봉사과제였던 책상 만들기는 어디선가 온 목수의 하쿠나마타타로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케냐 사람들은 일을 하다가도 갑자기 오랜 시간 쉬거나 옆으로 가서 수다를 떨거나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어렵거나 힘든 일을 할 때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해내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는 급속한 발전 속에 저런 면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나 하며 그들의 문화에 대한 부러움도 생겼습니다. 처음 배운 마술을 공연을 할 수 있기까지 연습도 하고 일과가 끝나고 회의와 준비를 밤늦게까지 하면서 지치기도 했지만, 서로 노력하는 팀원들과 서로 격려하는 모습에 완벽한 일체감을 가지고 케냐에서의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국인같이 생겨서 '만수'라는 한국이름을 받은 사이몬, 귀여운 요다 마이클, 안드로, 알리 등등 잠깐 동안 많은 아이들에게 많은 정이 들어버렸습니다. ”

케냐 앓이

황재경

“ **아직도 아프리카라는 땅을 밟은 것이 실감이 가지 않는 나날을 보내고 있곤 합니다.**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한 그 순간부터 11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흘러보냈는지도 알 수 없을만큼, 아프리카에서의 시간은 빨리 흘러간 것만 같습니다. 친구들과 저 모두 살아가는 동안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기원합니다. **봉사라는 명분으로 저는 케냐 땅을 처음 밟았지만, 어쩌면 전 그 친구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소중한 여기지 못했던 사소한 일들이 케냐에서는 소중한, 값진 시간들이었고 사람들이었기에 현재 나의 모든 행동과 말들을 케냐를 통해서 나온 혹은 코모록 친구들을 통해서 나온 것이라 다짐하기 때문입니다. **제 이름표 뒤에는 아직도 그 친구들이 써준 자신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 제가 친구들 이름을 잊기 싫어 제 손에 친구들 이름을 적었을 때, 제 진심이 통한 것 같습니다. 그 진심이 제 이름표 뒤에 적혀있습니다. 내 나이 23세, 친구들 나이 8-15세. 23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그들을 만난건 행운이었고, 14년을 산 나의 라피키 찰스와 패트릭, 켈빈, 헤즈론... 그들의 14년 이후의 기억 속에 HWANG JAE KYEONG이라는, 혹은 그들이 지어준 MARIA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저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산 사람이라고 자부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마음으로 저는 한국에 돌아와서도 친구들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잊혀져 가는 케냐에서의 기억이 제 마음을 아쉽게 만들곤 합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배워왔고, 사랑을 느껴왔고, 그들의 사랑을 더욱더 값지게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니나쿠편다.
어쩌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그 순간부터 케냐앓이는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





행복한 딜레마

김상겸

“ 매일 밤 계속되는 자기반성과 고민의 연속. 그 고민이 유난히 길어지던 밤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봉사를 하던 코모록 학교에 벽화작업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는 저희의 등 뒤에서 삼삼오오 모여 구경을 하고, 신기한 듯 쳐다보았습니다. 가끔은 저희가 잡고 있는 붓을 집어 들고 직접 그리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여나 벽화를 망치게 될까, 아이들의 옷에 페인트가 묻을까 염려하며 아이들에게 거리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딜레마에 부딪혔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더해갔습니다. 아이들은 과연 예쁘고 잘 완성된 벽화를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한 번이라도 붓질을 한 함께 만든 벽화를 위한 것일까요. 우리를 보기 위해 모여든 아이들에게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자,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자 마음의 거리를 둔 것은 아닐까요?**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예쁘고 완벽하게 완성된 벽화가 아닌, 튼튼하고 완벽하게 완성된 책상이 아닌, 우리와 함께 뛰어 놀고 함께 땀 흘리기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초짜 봉사단의 어설픈 완성품을 바라는 것이 아닌, 한국의 친구와 함께 추억을 만들어 나가길 원하는 그들의 마음을. 메마르고 삭막했던 우리의 가슴에 그들은 여유를 심어주었습니다. ”

코모록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선물

이정은

“ **벽화시안 이야기로 새벽까지 의논한 후 다음날!** 도안을 그리러 갔는데 생각보다 벽이길고 울퉁불퉁해서 준비해간것을 그려내도 자리가 한참 남았습니다. 단장님의 위기대처로 더 그려넣은 스케치가 그림을 밀도있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벽이 울퉁불퉁해서 걱정이되었습니다. 칠벽이라 한번에 짝 예쁘게 발리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친구들은 돈이없는 친구들은 급식도 못먹습니다. 벽에 페인트 터치가 좀안된다고해서 내가 벌써 이렇게 좌절해버리면 너무 미안해질 것 같습니다. 이곳에선 불평한다고해서, 내가 원하는 상황이오지 않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도 없고 자꾸 불만만 갖게되면 생각이 자꾸 불순해지고 부정적이여지지만 할뿐입니다. **누군가를 돕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일이라는 것을 이곳에 와서 며칠되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느껴집니다.** 나날이 성장하고 자라면서 아이아들이 우리가 했던 모든 행동과 작은 마음이 이친구들의 미래에도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

나의 행복 선생님

박수연

“ 준비해갔던 교육 프로그램들이 코모룩에 머무는 동안 차례차례 진행되었 습니다. 비누만들기 시간에는 창의력이 반짝이는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서 저를 놀라게 했습 니다. 아이들은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비누를 만져 꽃병이 올려진 테이블과 의자를 만들어냈 니다. 둥글거나 네모난 덩어리가 전부였던 비누는 소를 타고 가는 사람이나 권총을 든 경찰 관으로 재탄생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이 아이들의 창의성이 부디 쑥쑥 자 랐으면 좋겠습니다.

생리대 만들기 수업을 하러 들어갔던 여고생 반에서는 학생들과 의도치 않 게 긴 수다를 떨기도 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해주던 저는 어느덧 그 친구들한테 둘러싸여 자 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국가도 문화도 다르지만 같은 '여성'으로서의 수다가 한시간 넘게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데이트를 어디서 하나, 주로 무엇을 하나, 결혼하는 나이가 어떻게 되냐 등 다양한 이야기가 주제로 올랐습니다. 그들과 문화를 공유하고 생각을 나누며 문득 어디서나 사람사는것은 다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덧 페인트 벽화는 완성되었고, 새로운 책걸상이 생겼으며, 아이들과의 정은 점점 깊어져만 갑니다. 그렇게 코모룩에서의 시간은 훌쩍 흘러갔습니다.

”



잊혀지지

않는

꿈

임지원

“ 식초 글씨 수업을 진행했을 때 식초로 자신의 이름과 꿈을 적으라고 한 후 발표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적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데 대다수의 아이들이 파일럿과 엔지니어를 적었습니다. 아이들이 적은 꿈을 보면서 비록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뿌듯한 마음이 들어 돌아다니며 꼭 꿈을 이루기 바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꿈을 꾸는 이유는 자신이 하고 싶어서라기보다는 많은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 지켜보면서 쓸쓸한 마음이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헤어지는 날이 오게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웃고 떠들며 누구보다 정이 들었는데 헤어지려니 아쉬운 마음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아무것도 모를 것만 같았던 유치원 친구들이 풀이 죽고 떨어지지 않으려 하는 모습, 서운한 마음에 같이 우는 아이들, 따뜻하게 안아주며 울지 말라고 다독여주던 아이들의 모습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습니다. ”



케냐에서 받은 뜻 밖의 선물

주선호

“ 일어나면 팀원들과 새천년 체조로 몸을 풀고 준비해놓은 물품들을 챙겨서 코모록 학교로 향해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의 때문지 않은 웃음과 하루하루 바뀌어 가는 코모록 학교의 풍경이 뜨거운 햇볕과 갈증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게 했습니다. 벽화를 칠해주고 책상을 만들어 주고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사실 우리가 해주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봉사를 다 마친 지금은 답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들에게는 잠깐 지나쳤다 가는 봉사자 중 한 사람일수도 있지만 저희가 코모록에서 그들과 나눴던 모든 이야기, 봉사를 진행하면서 얻었던 경험 등을 통하여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면 그들은 물론 저희에게도 의미있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



행복한 마음 부자

임주리

“ 판자촌을 방문했던 그때 작은 단칸방에서 5명이상씩 식구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걸 보고 그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먹을 것을 먹지 못해 앙상해진 몸짓도 기억이 납니다. 나는 살을 빼기 위해 먹을 것을 갖다버리고 먹지 않지만 아이들은 영양실조에 걸려 배가 불룩합니다. 나는 남에게 뺏기기 싫어서 경쟁하고 약탈하지만, 없는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은 나를 믿고 내가 선물로 준 초콜릿마저 나에게 같이 먹자며 양보합니다.

아이들은 오히려 저에게 꼬마 스승들이 되어주었습니다. 제가 해주는 서툰 영어 한마디에 배꼽잡고 웃어주고, 나의 손을 잡고 놓으려 하지 않았으며 항상 불평만 하던 내 입술에서 자기의 이름을 불러 줄때마다 항상 웃음으로 보답해주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들과 너무나도 큰 차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욕심이 채워져야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 아이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고마워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더 불평을 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적인 욕심에서 나오는 사치일 뿐이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 속한 사람이 나라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악의 환경에도 태연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케냐 해외봉사를 통해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보고싶다 케냐. ”



아산테 사나, 조로

김정영

“ **물질적인 선물보다는 앞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멋진 기억을 남겨주고자 노력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는 말처럼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위생교육부터 스포츠 게임을 규칙적으로 하는 법과 같이 앞으로 성숙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계속 해주었습니다. 이때마다 열정적으로 참가하는 케냐 아이들을 보면서 큰 보람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날 저를 항상 따라다녔던 6살 배기 조로는 제가 작별의 말을 건네도, 손짓을 해도 이런 것들이 이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학교정문을 나가는 그 순간까지 쳐다보던 아이의 눈빛을 평생 잊지 못 할 것 같습니다.

케냐에서의 봉사활동을 이제 막바지에 두고 준비해왔던 모든 교육과 공연을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준비해왔던 선물까지 나눠주고 나니 몇 달 전부터 준비해왔던 노력들이 새록새록 떠오르면서 홀가분해졌습니다. 반면, 내가 준 물질적 선물 하나 때문에 다른 아이들이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되진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여기 아이들에게 해줘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말 오기 전부터 얼마나 고민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지에 와서 겪고 **아이들과 소통하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조그마한 관심과 꿈을 펼칠 수 있는 가능성의 길을 조금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현재의 케냐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라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케냐에서 특별한 문화

조운정

“ **체육대회 및 문화공연을 하는 날입니다.** 구름이 약간 꺼서 야외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두 팀으로 나눠 열띤 응원 속에 림보, 계주, 뚝다리밟기, 콩주머니 던지기 등 박빙의 승부가 펼쳐집니다. 가져온 선물에 차등을 둘 수 없어 무승부로 마무리 집니다. 떠나기 전부터 열심히 준비한 문화공연을 하는 시간입니다. 난타, K-POP, 현지인공연, 마술, 잠보송 단 시간 준비로 걱정했던 것이 무색할 만큼 멋진 공연을 선보여줍니다. 그중 인상적이었던 공연은 수준 높은 현지인들의 공연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선창하면 학생들이 후창을 하는데 우리네 메기고 받는 형식과 같은 형식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문화의 수준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민족 자체가 흥이 많아서인지 어린학생들도 노래와 춤에 능합니다. **이처럼 다문화를 경험하는 것이 세계관을 넓혀 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차 쇼핑할 때 득템을 한 기분입니다. ”





나의 반성

김태은

“

오늘은 오전 체육대회, 오후 문화공연 일정입니다. 내가 평소 좋아하는 것들을 하는 일정이라서 인지 아침부터 컨디션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진행팀에 속한 저는 코모록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체육대회 진행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고 체육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코모록 학교의 너무나 열악한 환경, 그리고 너무나 여유 넘치는 ‘하쿠나마타타’ 정신의 케냐인들을 보며 여기 아이들을 행사에 관심이 없고 정해진 일정에 대한 열정도 별루일 거란 생각을 하며 그냥 그런 체육대회가 될 거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열악한 상황, 미숙한 진행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너무나 즐거워하는 모습, 열정 넘치는 모습들을 보며, 저만의 기준으로 미리 판단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찾은 케냐에서 오히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웃음, 따뜻한 마음을 보고 느끼며 제 자신이 더 많은걸 배워가는 것 같아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

“

그곳에서의 추억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것은 바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저와 유난히 친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곳 아이들은 자주 저희에게 사탕이나 펜 같은 무언가를 달라고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때처럼 저에게 'sweet thing?' 하고 말했습니다. 예전처럼 나에게 사탕을 달라고 말하는구나 라고 생각한 저는 한숨을 푹 쉬며 '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활짝 웃으며 저에게 작은 캐리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결코 편견으로 그 아이들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온전히 제 마음을 열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 아이만큼 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케냐에서 저희를 케어해주시던 간사님이 항상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코모록에서는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 짧은 5일동안 코모록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줄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손 씻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 아니면 예쁜 벽화와 책상을 만들어주는 것? 적어도 우리는 서로에게 좀 더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생각하게 하였고 꿈꾸게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코모록 아이들이 우리와 같은 것을 얻었다는 것은 확신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케냐와 한국이 어디 대륙에 있는지는 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우리 20명의 케냐산 단원들은 코모록 아이들의 존재를 알고 함께 꿈꾸는 방법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

꿈만 같던 케냐에서 함께 꿈을 꾸다

오프론



미안해, 조안

양은지

“ 코모록에서의 나날이 지나며 아이들의 이름을 한두 명씩 외워가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날이 많아지고 교실에 우리와 함께 했던 교육의 흔적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봉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은 사라지고 아이들과 함께 즐기고 있다는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또, 봉사를 한다는 게 크고 거창하고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사람들 마음에 스며들어서 친구처럼 가족처럼 내 마음을 나눠주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을 아이들에게 여과 없이 주어서인지 헤어질 땐 참을 수 없이 눈물이 비쳤습니다. 처음엔 우리가 울면 아이들이 슬퍼할 것이라는 말에 눈물을 참으려 노력했지만, 저에게 웃으며 목걸이를 걸어주던 아이의 모습과 또 그 아이들 속에서 고개 숙이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남자 아이의 모습에 울컥 터지는 울음이 참아지질 않아 모자를 뒤집어쓰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또, 너무 예쁜 아이라 바르게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 나도 모르게 혼을 냈던 조안에게 들었던 미안함은 아직도 마음 한 켠에 남아있습니다.

아마 봉사를 위해 떠난 케냐에서 제가 얻은 건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사랑스런 아이들의 마음과 사랑하는 '케냐산' 단원들의 마음에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



별의 아이들

권아영

“ AIC학교로 간 첫 날에는 홈스테이를 했었는데 소풍집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잘지 막막했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과 손을 잡고 노래를 부르며 집에 도착하니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그들의 문화라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기가 없는 어두운 밤에도 길을 잘 다니는 모습도 신기하고 소풍집 밖에는 파리가 엄청 많았는데 집 안은 파리가 없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또한 소 젖 짜기를 직접 해봤는데 학생들은 잘 짜던데 내가 하니 안 돼서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봤을 때 한국의 밤하늘과는 달리 쏟아져 내릴 듯한 별들이 가득했던 그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별뿔별도 어찌나 떨어지던지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하늘이 존재한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



보람이란 무엇인가?

이후의

“ 봉사활동이라는 타이들은 건 행위를 몇 번 해본 사람들은 한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보람이 없다” 수년 전부터 가끔씩 봉사활동을 하는 내가 봉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주 내뱉는 혼잣말이다. 남에게 주는 것 보다, 항상 내가 더 많이 배우고, 느끼고, 얻어가는 것이 그동안 나에게 있어서 봉사라는 것이었다.

테마 교육을 해서 현지 아이들에게 전달되는 지식만으로 그들의 앞날에 도움이라기 보다 작은 경험에 불과할 수 있다. 책상을 만들어 주고, 페인트칠 해준 것 역시 학교시설의 일시적 진보일 뿐인지 모른다. 하지만 선의를 가지고 한국에서 온 20명과 2주 동안 교감하고 소통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눴다는 것, 만약 그것이 그들에게 멋진 기억으로 남았다면 만족스러운 성과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번 케냐 해외봉사 마지막 날, 난생 처음으로 봉사를 하고나서 보람이란 것이 느껴졌다. 좋은사람들은 단원으로 만나서 그 사람들의 모습 지켜보고 만족을 한 것이 아닐까. 23명이 하나가 되어 서로의 부족한점을 채워주며 케냐 어린이들에게 슈퍼맨으로 다가가려했던 우리 단원들이 자랑스럽다. ”

마사이에서 예쁜 추억 한 조각

노영섭



“ 마사이 친구들과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지만 손짓 발짓으로도 조금이나마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잠시 말이 멈추고 정적이 흘렀다. 시간이 지나 어느새 짙은 어둠이 깔리고 추적추적 비 내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다 문득 우리가 아프리카에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도 모르는 낯선 땅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마주앉아 있는 이 순간이 무척 이상하면서도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빈대와 벼룩에 계속 잠을 설치던 우린 새벽에 나와 아프리카의 멋진 은하수를 보면서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밤을 지새웠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사이족 할머니께서 우리에게 마사이 이름을 만들어 주셨다. 정영이에게는 '아주 좋다'라는 뜻의 '요수बाट 마르끼라' 나예겐 '미소, 웃음'이라는 '란노프 나우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다. 겨우 하루 머물렀을 뿐인데 마치 가족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프리카에 예쁜 추억이 한 조각 생겼다.

”

진심을 깨닫다

송진수

“ **마사이 마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는 기억은 홈스테이 일 것입니다. 도착한 첫 날부터 한 여자아이를 따라 도착한 집은 움막 같은 느낌으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집안으로 들어가 보니 구불구불한 입구와 빛이 없어 어둡고 좁은 집안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더욱 저를 고민스럽게 했던 것은 제대로 씻기지 않는 그릇에 주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 받았지만, 잘 넘어가지 않아 결국은 남겨야 했습니다. 최대난관은 잠자리였는데, 반대와 벼룩, 바퀴벌레가 많은 곳에서 잔다는 것이 잠을 못 이루게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되어 춥고 졸리자 저도 사람인지라 포기하는 마음으로 잠에 들게 되었고, 그렇게 길고 길었던 하루를 보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의 엄마와 함께 물을 길으러 갔는데, 작은 물통이라고 생각했던 제 생각과는 달리 물이 들어가니 너무나 무거웠습니다. 집까지 약 이십분 정도 산 길을 올라가야 했는데, 이렇게 매일 물을 가져올 이분들이 너무나 힘들겠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코모로에 비하면 짧은 시간 동안 AIC 학교에 있어, 많은 아이들과 교감을 할 수 없었다는 점이 아쉬웠지만, 별로 가득 찬 밤하늘은 정말 그리워질 것입니다.

이번 아산나눔재단 청년해외봉사활동 1기를 통해 단체 생활과 더운 환경 속에서 **자신을 컨트롤하는 방법, 함께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성숙해진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힘들고 즐거운 시간들을 함께하면서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



울보가 되다

김소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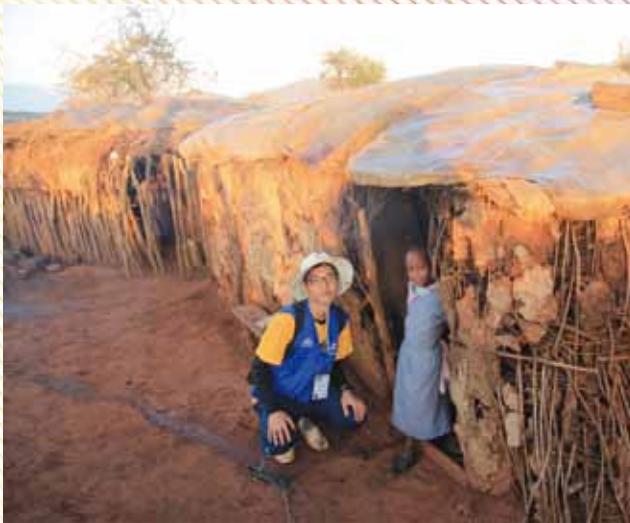


“ **저에게 케냐에서의 열흘은 최대한 간소하게 살면서 한 가지 목적에만 집중했던 그런 열흘이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교육을 해주기위해서 팀원들과 함께 노력하고, 실제로 맘 흘러리면서 봉사한 열흘이었습니다. 특히 마사이 마을에서 마지막으로 팀원들끼리 그동안 해온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겸손을 떠는 건지 솔직한 건지 모르겠지만, **“봉사활동에서 저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제 진심은 아이들을 귀찮아하는 마음이나 냄새가 난다고 생각하는 어린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저는 진심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모두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70년대처럼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멋진 엔지니어가 되고, 멋진 기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걱정하는 마음은 진심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아이들이 꼭 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른 공간, 다른 사람, 다른 언어, 다른 시간, 다른 향기, 다른 문화

류주상

“ 하루하루 새로운 경험들에 많이 감정들을 느끼며 조금씩 생각이 열리는 저의 모습도 발견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이번 봉사활동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얻고자 했던 목표였습니다. 다른 시각으로 세상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낯선 사람에게서 쉽게 정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는 아이들을 보았을 때 잠시나마 아이들이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며 접근하는 것으로 여기고 조금은 회의감을 느꼈던 나 자신에게서 상대방에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저를 부끄러워 했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꿈을 꾸고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 아이들을 보면서 ‘나는 꿈을 꾸면서 행복에 기준에서 물질적인 보상의 부분을 왜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하며 반성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를 반성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더욱 저를 많이 알아 갈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케냐에서 다른 것만을 경험하고 온 것은 아닙니다. 그 아이들은 우리와 같이 정이 많았고, 뛰고 노는 것을 즐거워하며, 헤어짐을 슬퍼하고, 만남을 즐거워 하였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같은 슬픔을 느끼고, 같은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다르지만 같은 사람들이 사는 케냐에서 즐기며 배우다온 류주상이었습니다. ”



Cenya 문화탐방

자연의 위대함.
때묻지 않은
케냐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오전 5시부터 일어나서 6시까지 모든 단원들이 일어나서 씻고 나왔지만 모두들 얼굴엔 잠이 서러 있었습니다. 우리는 총 4개 팀으로 나누어져 중형의 봉고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한 봉고차에는 6명 정도가 탈 수 있고 봉고차의 중간에는 지붕이 열리는 형식으로 딱 사파리에 적합한 차였습니다. 단원들은 모두 '오늘 아프리카의 진가를 보겠구나!'라는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아프리카 사파리로 가는 길은 멀고 험했습니다. 오래된 이동시간으로 모두들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정말로 멋진 케냐의 전경과, 동키들, 그리고 고속도로에 자리잡고 있는 바분 등은 '역시!'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정말로 자연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고, 때묻지 않은 케냐의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긴 이동시간을 견디고 사파리로 들어가는 입구 앞으로 도착했습니다. 앞에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차 안에 있기 답답해서 단원들은 밖으로 나와서 케냐의 공기를 맞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 한 원숭이가 우리들 쪽으로 다가 왔습니다. 그 원숭이는 자기 새끼를 자신의 품 속에 품은 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문이 열려져 있는 우리 차에 들어가서 이것저것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막대기를 가지고 쫓아 내려고 하니, 온순했던 원숭이가 난폭하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도 부서지거나 없어진 것은 없었지만, TV에서만 나올법한 일을 겪은 우리들은 흘러내린 식은 땀을 닦아야 했습니다.

움짤했던 한 고비를 지나고 난 후에, 우리는 본격적인 사파리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들어가니 기린 멧돼지, 처음 보는 새 등 책에서만 나올법한 광경들이 우리를 반기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나무 숲들을 15분쯤 지나오니, 점점 광활한 호수가 나를 향해 손을 들고 있었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그 광활한 호수를 보니 가슴에 묵혀놓은 체증이 쑥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친구인 소연이는 혼잣말로 '너무 아쉬워, 지금 내가 보는 걸 동영상으로도 다 채울 수 없어, 이 냄새, 바람까지 다 닦아가고 싶어.' 라고 말할 정도 였습니다. 사파리 안에서 4.5시간 동안 사파리를 구경했지만 순간 순간이 너무나도 신기했고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람의 의해서 하나도 손상되지 않은 그 순수하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다시 한번 자연의 위대함과 스스로 작아짐을 느꼈습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몸이 힘든 하루였지만 우리가 원하던 진정한 KENYA를 느끼고 있다는 생각에 마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TV에서 보던 것을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것에도 신기했고, 왜 사람들을 그토록 사파리를 가고 싶어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파리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진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KENYA 사파리 어떠냐고??? Wonderful! Incredible!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



단원들을 소개합니다



권아영 - 촘촘, 사모님, 마담,
저 귀^엽지 않^아요?, 쌍턱

강렬한 부산역양과 사모님 얼굴로 다가온 아^영이.
촘촘, 킁킁 거리며 귀척을 몸에 달고 다니고, 자기보다 어려보이는
사람들에게 가서 언니~ 저 귀^엽지 않^아요~? 라고 묻는 진정한 귀척사모님.



김태은 - 당당하게해, 송일국, 배우,
카리스마, 탕오빠, 탑파이브

태은오빠의 감출 수 없는 배우의 카리스마. 하지만 풍기는 카리스마와
달리 정 많고 동생들을 많이 아껴주는 반전 성격의 소유자. 복을 칠 때
태은 오빠에게 볼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스피릿은 다시 또 보고 싶을 정도.



김민국 - 허당, 만국기. 탑 파이브

만국기오빠. 새침한 외모에 매력적인 보조개의 소유자이지만
뭔가 어색한 그는 케냐산의 허당 캐릭터- 은근히 웃긴 그의
다음 행보가 궁금하다^^



노영섭 - 성시경, 휴그랜드, 쾌남,
암전한 고양이, 부뚜막

찍새 사진을 찍어주는 임무를 가지고 봉사활동에 참석했지만.
규칙을 어기고 연애를 시작! 그 순간부터 불균형 적으로 특정인물만
지주 찍어 불만을 샀다. 로맨틱한 목소리로 쾌남이라는 별명이 있다. 사진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진이 가장 많다는 것이 미스터리이다.



김상겸 - 코뿔소, 김정훈간사님, 먹보,
태평소 콧소리

팀의 리더 기운넘치는 코푸는 소리로 우리를 경각시킨다.
항상 모든일에 앞장서면서 우리를 이끌어 준다. 걸 모습과 다르게
우리 팀원중에 가장 몸이 나약하면 모기에 잘 물리는 팀장님
몸조심 하세요.



류주상 - 정범군, 덜생긴(공유, 류승범)

집에서 항상 미니카의 간지진을 갈아끼울 것 같은 주상이
군대를 안 다녀왔어도 군대다녀온 것 같은 주상이
주리 세컨에 만족하고 이제 군대를 가야겠구나



김소연 - 통수김, 울보, 찌질이

팀원들이 회의중 웃고 떠들 때에도 열심히 뭔가를 계속 적고 있던
'케냐산의 서기' 소연이 아이들과의 마지막이 가슴아파 엉엉울던
여린 마음씨를 가진 소연아. 앞으로 울지말고 웃는 일만 생기길 바래.
넌 웃는 모습이 예쁘...아니 보기 좋아. 뒤통수 치지 말고.



박수연 - 뽀수연, 걸그룹스타일,
여자품바

한국에서 온 절세미녀 박수연.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씨 따뜻한 동양여자. 캐릭터 물란을 닮음.
온갖 대쉬에도 끄덕없는 지조.



김정영 - 마술사, 메디, 주황양말,
탑 파이브

체대생 특유의 튼튼한 몸으로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한다.
하지만 허점이 많은 우리의 메디. 의료담당이지만 다만 그냥
약품을 들고 다닐 뿐 치료는 전혀 할 줄 모른다.
다음에는 꼭 배워서 참석 하길.



손재민 - 소말리아, 맨티스, 사마귀,
케냐인, 주리 세컨

재민오빠는 정말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아이들을 잘 챙겨주었습니다. 항상 살아있는 표정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며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긍정에너지였습니다.



송진수 - 고모부, 막말남, 김범수, 미소천사

내 마니또 송진수는 교육팀의 히어로예요! 능숙한 영어와 엄청난 친화력으로 아이들과도 무척 친해졌습니다. 진수는 노래도 잘해요- 신은 진수에게 노래실력을 주셨지만 불행한 춤 실력도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팀 아영이와 함께 춤을 담당하고 있어요. 뽀뽀한 관절 빼고는 안.....벽한가? ㅋㅋㅋㅋㅋ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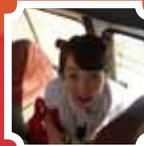
임지원 - 마빈박사, 두부녀, 임두부

하얀 얼굴, 얇고 긴 눈, 큰 키, 날씬한 몸매로 동서양의 조화가 기가막힌 케냐여성. 시크 종결자.



양은지 - 선호 여친, 양은자

누구나 이빠하고 누구나 좋아하는 캐릭터의 소유자로 케냐산의 이름을 칭찬한 은지입니다. 89라인의 최강동안을 맡고 있고 후약형과 선호형의 무한사랑을 받았으며, 고스톱을 위해 가까이 연기도 할 줄 아는 케냐산에 톡톡 튀는 매력의 소유자. 반면 체육대회에서 상공 1미터에서 꼭당 하였으나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여 여장부의 느낌을 한껏 보여줌.



조윤정 - 완전동안, 베스킨라빈스 31

모든 활동의 모범 그 자체! 굳은일부터 교육봉사, 노력봉사 하나하나 모두를 이끄는 건인차. 안그래도 동안인데 나이에 비해 더 젊어지려 노력하는 욕심쟁이, 우후후!



오푸른 - 오푸토, 풍푼, 식신, 여자상경이

오푸토, 미소가 아름다운 사람. 푸른이. 긴 생머리와 하얀 얼굴 청순미를 가진 그녀. 풍선모자가 들어가지 않는 풍푼라 불립니다. 한 끼에 몇 그릇이고 먹어치우며 음식을 남기지 않는 건강미와 예코미까지 풍푼은 아름답습니다.



주선호 - 잇몸미소천사, 부드러운남자, 탑 파이브

모델해도 손색이 없는 우월한 기러지에 살인미소 선히잇 잇몸 여권 사진은 지상렬을 달았지만 실제 모습은 그것보다는 나눔. 교육팀의 리더로 빠른 일처리 능력이 돋보임.



이정은 - 영섭이의 그녀, 사차원, 유병

원래 교육팀에 소속되어있었지만 천재적인 예술 감각을 지녀 원래 춤 디렉터로 발탁. 그녀 지휘아래 이뤄졌던 그 벽화가 그녀의 노력을 대변해주고 있지- 그녀는 이번 봉사도 봉사보다 더 큰 수확을 얻었다. 그 이름은 노영섭.



황재경 - 라이온킹, 황, 팡재, 호피무늬선글라스, (지미,선호형) 세컨녀, 동글이, 부산여자

애기피부의 소유자! 막내는 아니지만 막내같은 귀여움을 가진...그녀 마치 굴러다닐 것 같이 동글동글하게 생긴 그녀는 항상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난타와 K-POP공연 또한 멋지게 해냈던 그녀



이후익 - 당당하게해, 이의제기해, 야크(쥬라기월드컵), 탑 파이브

섹시 알통, 처럼 경례 영어 잘하는 경찰님. 노력봉사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알통이 더 커졌다는. 훌륭한 기러지와 사프한 외모 근육질 몸매를 지녔지만...안타깝게 여자아이들이 다 싫어 한다는...



백소영 선생님 - 손담비, 테트리스 김소연 라이벌, 건강한 여인, 체대녀

케냐의 손담비! 미모의 인술자 코피은 내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빼어난 미모 외에도 쿨한 성격과 강렬한 카리스마로 우리를 제압하십니다. 백소영, 우리 팀의 인술자로서 때로는 엄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인자하고 엄격하며 우리를 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준 0.3초 손담비. 지미와의 커플이 예상됐지만? 국적을 뛰어넘지 못한 아쉬움에 과연 베를 만나러 케냐에 돌아갈 것인지 궁금하다.



임주리 - 끼웠어요?, 소똥녀

개방적 마인드의 소유자. 미국식 마인드에 가장 가깝다. 케냐산 내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톡톡히 치렀으며 막내같이 많은 성숙함을 지닌 그녀. 크희나 섹시 댄스를 잘춰서 케냐인. 우리팀할 것 없이 혼을 빼놓고 현지 학생이랑 스캔들이 난 국제연애 경험자. 입만 열면 웃기는 이야기를 하지만 알고보면 봉사가 몸에 배인 빈전녀.



박지훈 단장님 - 석고상, 쿵푸팬더, 조폭

쿵푸팬더 단장님! 빠른 일처리 능력과 친근한, 푸근한 이미지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하지만 단장님도 임주리를 넘어서지 못하셨다.

때 묻지 않은
보석 같은 눈망을
“케냐는 우리를 행복한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1	2
3	4
5	6

- 1 가장 행복한 조난자들
- 2 모두 함께 뿌잉뿌잉
- 3 도로 위에 감혔습니다
- 4 하늘에 미소를 담다
- 5 푸른이와 5살 카마우
- 6 해맑은 마사이 꼬맹이



어느 샌가
서로에 대한 호기심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그리움으로 바뀌고...





아산나눔재단 청년 해외봉사단 2기 단원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아산나눔재단에서 주최하는 해외봉사를 통해 중국, 쿤밍에 다녀온 제1기 단원 조성혜입니다. 4계절내내 봄이라 해서 지어진 곤명, 쿤밍이라는 곳에서 느꼈던 봄 기운이 근래 한 국에서도 만연하네요. 너무나 고마운 경험이었고 값진 시간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수기 대신 이런 편지를 적습니다.

봉사를 다녀온 지 벌써 1주일이 넘는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때 생각이 아련합니다.



무엇이 그 시간을 이렇게 마음 속에 자리잡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마음이 치료되었기 때문입니다. 각박하고 초조한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질리고 상처받는 시점에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떠났지만 다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핸드폰도 티비도 없는 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중국 56개 민족 중에서 제일 힘 없는 민족. 그래서 그 흠먼지가 부는 고원지대에 도망쳐 와서 사는 사람들. 아이들 무덤이 유독 많은 그곳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에게 연민의 눈빛을 보낼 명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명을 모르는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행복해 보였습니다. 자신이 백혈병인줄 모르고 흠바닥에서 면역력 없이 노는 그 아이는, 몸이 너무나 건강한 우리보다 더 행복하고 빛났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건, 문명을 모르는 이들이 문명을 통해서 피해를 받는 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것. 알지 못한다는 것. 그들끼리 있다면 전혀 불편함이 없고, 죄가 되지 않겠지만,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고립된 그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일주일 방문을 한 우리 팀이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준비해간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여주고, 진행하면서 마음을 교류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박하고
초조한 현실 속
에서 사람에게
질리고 상처받는
시점에서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이
떠났지만 다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치료 받을
수 있는 시간
이었습니다.



저는 바자회를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팀원들이 단정하고 깔끔한 물품으로 세탁을 하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오고, 또는 물품을 사서 기부하기도 해서 아주 질 좋고 재미있는 바자회가 구성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10박스가 넘게 가져간 물품들이 1시간만에 동이 나고, 남은 물품들을 거동이 불편하신 할머니들에게 드리려고 제가 다가갔습니다. 남은 머리핀을 할머니들 머리에 하나씩 꽂아 드리는데, 그 작은 헤어핀으로 너무나 행복해하시고 고마워하시면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데, 너무 감격스럽고 그걸 좋아해 주신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기뻐해 본적이 있나 싶기도 하고, 입고 있는 옷, 건강한 몸과 마음 하나하나 다 감사해 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순수하고 고마웠던 마을 분들 때문에 저희도 그 곳에 있었던 동안은 함께 그 마음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도시에 살면서 누구와 이렇게 허물없고 선입견 없이 자기 마음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 보려고 하겠습니까. 그들 덕분에 저희 19명은 보다 가까이에서 서로를 감싸안고, 위로 해 줄 수 있었습니다.

자랑스런 제2기 아산나눔재단 해외봉사 단원여러분들, 해외봉사를 가기 전에 저는 제가 굉장히 운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과 우리 팀원들을 만날 수 있어 행복했고, 그걸 넘어서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눈을 얻게 된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다양하고 넓은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다시 일상에서 지내다 보면 고장 날 수는 있겠지만, 인생의 강약을 조절할 수 있는 브레이크와 엑셀에 윤활제를 가득 칠해놓았으니 당분간 멘탈 걱정은 안 할립니다. 여러분, 2주의 추억과 감정으로 20년을 풍족히 보낼 수 있습니다. 감히 말씀드리다면 평생의 여운을 가지게 될 경험을 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즐기시고, 건강히 다녀오세요!

인솔자가 보내는 편지

Nepal



20명의 인솔자선생님과 1명의 단원이 다녀온 것 같은 이번 네팔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기억에 남아. 나에게 정말 많은 가르침을 그리고 깨우침을 준 너희들.

늘 처음이라는 것에 따르는 설렘과 낯섦, 처음 만난 너희들의 눈빛에서 난 '기대함'을 찾았던 것 같아. 각자 다른 이유와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아마 모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도 그때를 떠올리며 같이 웃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 같아.

각자에게 있던 보석 같은 재능, 더 많이 찾아 예쁘게 다듬고 만들어 네팔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어. 덕분에 우린 더 많은 보석을 선물로 받았잖아?^^

네팔아이들과 좀 더 이야기 나누기 위해 네팔어를 이곳저곳 적어 들고 다니던 너희들, 지나치는 네팔사람 한명이라도 놓칠까 두리번거리며 먼저 웃으며 인사 건네던 밝은 너희들, 심장이 멎는 소리가 들린다며 소리 지르며 찬물로 씻던 너희들, 조금이라도 컨디션 안 좋은 동료 단원을 위해 기꺼이 비타민을 나누어 주던 너희들, 문화답방 일정을 줄여가며 프로그램을 만들어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순수하고 예쁜 마음의 너희들, '인솔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란 인솔자 쟁기느라 고생한 너희들. 그런 너희들로 하여금 더 많이 배우고 느낄 수 있도록 해줘서 정말 고마워. '처음'이기 때문에 가능한 '순수함'을 다시 한 번 느꼈어.

지금보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네팔꿈치 친구들!

우리를 최고로 여겨주던 네팔아이들과 만났던 모든 사람들 가슴속에 늘 기억하고 기도 하면서 꼭 다시 만나자는 희망했던 약속, 그 약속을 이룰 날이 뚜렷해지기를 바라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

'함께'였기 때문에 더욱 빛났던 '우리'.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데레이 데레이 람로치!

박 세라

네팔 인솔자

Ethiopia



남을 돕는다는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입에 맞지 않는 음식에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벌레와 함께 지내야 하는 상황에 스스로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미지의 질병에 대하여 스스로 얼마나 겁을 내는지, 개발도상국에 대한 고정관념이 얼마나 우스운 것인지, 오랫동안의 단체 생활을 견디기에 내 몸은 얼마나 게으르고 약한지, 서로 다 다른 단원들을 동료로 품기에 본인의 인품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TOP 단원들은 검은 피부와 먼지 투성이 남루한 옷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지 않았고, 언어가 통하지 않음에 주눅들지 않았고, 다른 문화에 대한 낯설음을 호기심으로 여길 줄 알았고, 2주라는 축제의 기간동안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즐겼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이제 그 화려했던 꿈을 내 주위에서의 실천하는 일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았던 그 분에 넘치는 환대를 꼭 누군가에게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에티오피아 인솔자

최진경

China



2주간 함께 고생했던 우리 중국팀 단원들에게

먼저, 인솔자가 우리 팀원들 이름 잊었는지 안 잊었는지 얼마나 애정이 있는지 한번 불러볼까? 현수, 하영이, 현종이, 유은이, 유정아, 세종이, 재경이, 원각이, 성율이, 원식이, 진이, 진경이, 새미, 성혜, 송이, 규영이, 설화, 윤태, 꽃잎이까지 사랑스런 우리 중국팀원 19명! 나 아직 우리 중국팀에 대한 애정 안 식었다. 인솔자가 너희들에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부족했던 나를 믿고 따라줘서 너무 고맙다는 말. 단원들도 내가 부족한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하고 "솔자님 참 고생이 많으세요"라고 나에게 위로를 해주었던 너희들에게 깊은 감동과 고마움을 느꼈지~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봉사활동을 마치고 잘 귀국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중국팀 구성원 한명 한명이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했었기에 10박 11일간의 봉사활동을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솔직히 우리 팀이 개성이 강하긴 해도 단결력 하나 만큼은 최고지~ 앞으로도 우리팀 한명 한명의 기발한 아이디어로 국내에서 다양한 봉사활동 프로그램도 계획해보고, 최고의 단결력으로 정기적으로 다같이 모였으면 좋겠다~!!

글을 쓰다 보니 우리 중국팀 벌써 그림구나!

사랑해요~ 니하오미하오~

PS: 그리고 애들아~ 이제 해단식 끝나고 나면 솔자님, 쌤보다는 형, 오빠로 불러~ 나 그렇게 존칭 써야할 만큼 너희들하고 나이 차이 많지 않거든!(나 아직 20대야~)

중국 인솔자

윤창환

Cambodia



캄보디아 인솔자

이 성현

사랑하는 나의 친구들

지난 12일간의 열정과 눈물의 경험은 나에게도 잊지 못할 추억과 값비싼 교훈이었어. 우리팀은 그야말로 최고였어. 팀원 한 명 한 명의 재능과 열정, 인내와 배려, 협동심과 리더십은 현지인들에게도 충분히 좋은 활동으로 전달되었을 거라고 믿어.

씨엠립 어느 호텔에서 최종 평가회의 때 내가 했던 말 기억나? 각자의 자리에서 최고가 되어달라고. 최고가 되어 사람들이 우리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때, 그 때 우리 따스앙마을에서 만났던 주민들과 아이들의 미소와 눈빛, 특히 연신 '어꾼~'을 외치던 메잉딱 어머니의 눈물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자. 우리의 작은 관심과 노력이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자.

지구촌에는 메잉딱 아주머니 가정과 같은 형편에 놓인 사람들이 아직도 10억이 넘는데. 대나무로 열기설기 지었어도 그나마 살 집과 먹을 것이 있으면 형편이 좋은 거래. 갈 곳 없이 떠도는 난민과 실향민들만 해도 전 세계 도처에 3천만명이 넘는데.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것 같아.

캄보디아 그 작은 마을에서의 12일은 비록 짧은 경험이었지만, 우리가 원하는 세상, 나눔이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어. 각자 최고의 자리에서 나눔의 포스를 발산하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라. 그리고 서로 잊지말자.

모두모두 너무 사랑한다.



케냐 인솔자

백소영

어색한 미소로 케냐산 단원들과 인사 했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이제는 매일 밤 생각나는 사이가 되어 버렸습니다. 코모록 학교에서 만난 만수와 요다 그리고 마사이 마을에서 쏟아져 내리던 별빛이 매일 밤 궁금하고 옆에서 재잘거리며 함께하던 20명의 팀원들이 매일 그림기만 합니다.

하루하루 바뀌는 프로그램과 고된 스케줄도 모두 묵묵히 소화해 내면서 불평불만 없이 묵묵히 따라와주던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팀웍은 또 얼마나 강력하던지, 단 한번의 싸움도 갈등도 없는 것이 “우리 팀원들은 혹시 바보인가.”라고 생각어들 정도였습니다.

그 강력한 팀웍으로 코모록 학교와 A.I.C 아카데미 곳곳을 아름답게 만들어주고 여러분의 미소는 아이들을 언제나 웃음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보여준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끝까지 아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마음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케냐산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한 세상의 감동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아산나눔재단 소개

아산나눔재단은 아산 정주영 선생 서거 10주기인 2011년, 정몽준 의원을 비롯한 창업자 가족들과 관련 기업들이 아산 정주영 선생의 뜻을 이어받아 5,000억원을 출연해 설립되었습니다. 아산나눔재단은 청년들의 실업 해소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통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하고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창업과 관련된 사업과 많은 경험을 통해 취업의 길을 확대해주는 사업들을 수행하고 있는 재단입니다.



청년 해외봉사단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청년들에게 나눔의 리더십을 배양하기 위해 해외봉사단을 모집하여 파견하고 있습니다. 연 500명의 봉사자를 파견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월, 99명의 1기 봉사자를 모집하여 2주간의 현지 활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1기 봉사자들은 노력, 교육, 문화 봉사를 통해 수혜 지역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현지 주민과의 교류, 문화탐방을 통한 시민의식을 함양 등에 목적을 두고 활동하였습니다.

자원봉사단



나눔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내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자원봉사 공모전을 통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직접 활동도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도 펼칠 예정입니다. 또한 전국 규모의 봉사단 및 봉사 교육자를 조직하여 정기적인 나눔 프로그램을 펼칠 예정입니다.



청년 해외인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청년 리더 양성을 목표로 연간 1,000명 규모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진출해 있는 국내 기업들의 사업장과 공사현장 등에 파견되며, 향후 UN 등 국제기구 인턴십 프로그램을 연계해 업무 영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해외 인턴 1기는 지난 1월 9일부터 중국, 미국 등 11개 국가의 현대 중공업 해외 법인으로 파견이 되었습니다.

정주영 창업캠퍼스



공식적인 첫 사업으로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창업캠퍼스는 한국 경제를 이끌 청년 창업가 육성을 위해 세운 혁신적인 비즈니스 인큐베이터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및 엔젤 투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NPO 아카데미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NPO 양성을 목적으로 하며 선진국 NPO와의 교류를 통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한국 시민 사회를 이끌어 나갈 청년 NPO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저물어가는 하늘은
곧 밝아올 하늘을 위한
하나의
아름다운 약속이겠죠?